한국 근대문학 해제집

Ⅱ

문학잡지(1896~1929)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한국 근대문학 해제집

Ⅱ

문학잡지(1896~1929)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발 간 사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는 근대문학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하고,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국내에 소장된 근대문학자료를 연구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는 『한국근대문학 해제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하는 『한국근대문학 해제집Ⅱ: 문학잡지(1896~1929)』는 개화기부터 발간된 근대문학 잡지 중에서 전문가를 통해 선정된 주요 잡지 49종에 대한 해제를 담고 있습니다. 잡지의 서지사항을 고증하고 구성과 내용의 특징을 기술하는 한편, 자료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도 탐색하였습니다.

잡지는 근대적 사상, 학문,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독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어라는 공통의 언어 문화권을 체감하고 민족의식 등을 함양해 왔습니다. 또한 작가들은 잡지를 무대로 삼아 문단을 형성하고 새로운 문학 양식들을 실험해 왔습니다.

본 해제집은 『친목회회보』부터 『신소설』까지 순문예지와 문학 관련지들을 해제하여 잡지와 한국근대문학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잡지의 원본 소장처와 표지 및 판권지 사진도 수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해제집 발간을 계기로 국내에 소장된 근대문학자료들이 널리 소개되고 재조명됨으로써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해제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일러두기

수록범위

- 창간호를 기준으로 1896년부터 1929년까지 발행된 근대문학 잡지 49종에 대한 해제를 담고 있다. 1930년부터 해방기까지 발행된 잡지는 2017년도 해제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 해제대상자료는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자료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객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목록기술

-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을 기본으로 하여 잡지명, 발행처, 창간일 및 종간일, 원본 소장처를 기술하였다.
- 해제집의 마지막에 잡지의 각 호별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 여부를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해제

- 해제 원고는 1종당 200자 원고지 10매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의 가치나 분량에 따라 조절하였다.
- 해제 대상 자료의 표지 및 판권지 사진은 창간호 원본을 기본으로 하되, 창간호 또는 원본이 없는 경우 차호 또는 영인본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 해제는 대상 자료에 대한 개요, 서지사항, 구성 및 내용, 평가 등을 기술하고 별도로 핵심어와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간 및 종간 연월과 특성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 발행 및 편집, 표지화 및 장정 등에 관련된 특징을 기술하였다.

◎ 전체적인 구성과 참여 필진, 수록된 작품의 특징과 의의를 기술하였다.

◎ 문학사적 가치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술하였다.

◎ 해제를 대표하는 핵심어를 제시하였다.

◎ 해제 대상 자료를 연구한 주요 연구서 및 논문을 제시하였다.

표기

-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 기타 전문 용어 등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표기하였다.
- 발행일은 판권지를 기준으로 하고 서력환산기년으로 표기하였다.
- 원본 소장처는 대표기관 한 곳만 표기하였다.
- 잡지명은 겹낫표(『 』), 작품명 및 기사명은 홑낫표(「 」)를 사용하였다.
- 참고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표기하였다.
- 그 외 일반적인 표기원칙은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다.

배열

- 해제 대상 자료는 창간호 발행일순으로 수록하였으며 번호를 부기하였다.

색인

- 잡지명 색인을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다.

목 차

002 발간사
004 일러두기

1896~1909

010 친목회회보
013 대한자강회월보
016 태극학보
019 소년한반도
022 서우
025 야뢰
028 대동학회월보
031 대한학회월보
034 대한협회회보
037 서북학회월보
040 기호흥학회월보
043 소년
047 대한흥학보

1913~1919

052 새별
055 붉은저고리
058 아이들보이
061 학지광
065 청춘
068 반도시론
071 여자계
074 유심
077 태서문예신보
080 신청년
083 창조
086 삼광
089 서광

1920~1924

094 개벽
097 폐허 / 폐허이후
100 장미촌
103 백조
106 조선지광
109 어린이
112 신여성
115 금성
118 영대
121 조선문단

1925~1929

126 신민
129 조선농민
132 문예운동
135 동광
138 별건곤
142 해외문학
145 현대평론
148 예술운동
151 조선시단
154 문예공론
157 조선문예
160 근우
163 신소설

168 자료목록
191 잡지명 색인



1896~1909

1896 친목회회보
1906 대한자강회월보
태극학보
소년한반도
서우
1907 야뢰
1908 대동학회월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협회회보
서북학회월보
기호흥학회월보
소년
1909 대한흥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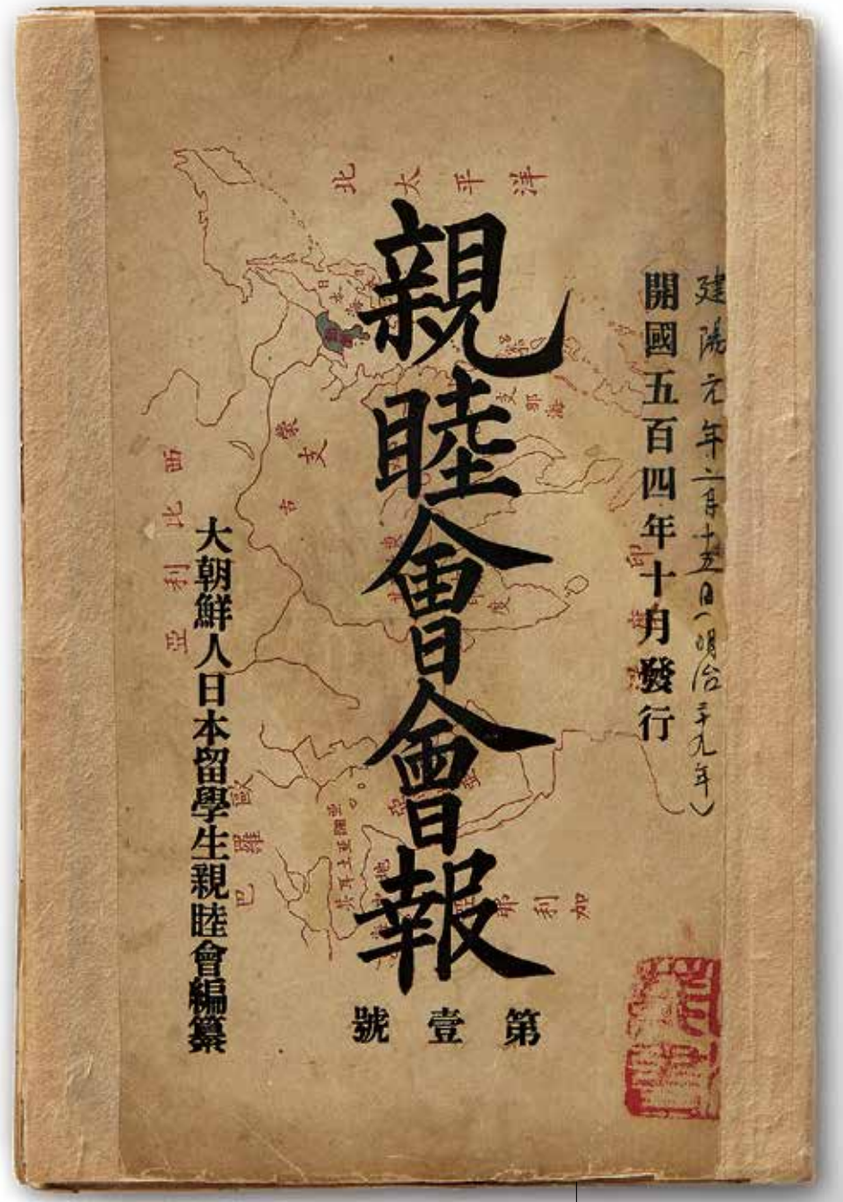
001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1896. 2. 15~1898. 4. 9
아단문고

『친목회회보』는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에서 편찬한 회원 잡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로 평가된다. 창간 당시에는 3개월마다 발간하는 계간지로 출발하였으나, 실제로는 계간지 형태로 정기 발간은 하지 않았고, 1898년 4월 9일까지 통권 6호로 종간한다. 『친목회회보』는 일본에 관비로 유학을 간 113명의 조선 관비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간행한 잡지였지만,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국내로 송부되어 많은 사람들도 회람하여 읽었던 비매품(非賣品) 잡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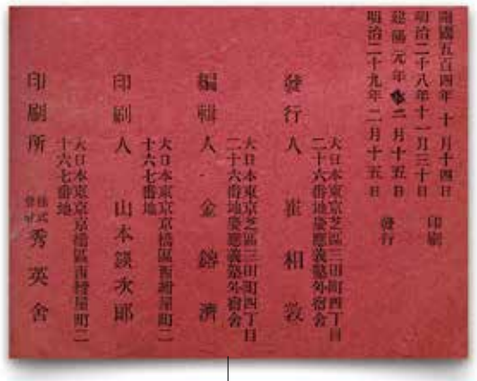
『친목회회보』는 제3호(1896.10.23)만 300부를 발행하고, 나머지 호는 일정하게 500부의 발행 부수를 유지하였다. 『친목회회보』의 판권장을 보면, 1호~2호의 발행인은 최상돈, 편집인은 김용제이며, 3~4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은 김용제이고, 5~6호의 발행인은 원응상, 편집인은 김용제이다. 표지의 제호 배경에 세계지도를 이미지로 넣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표지 디자인은 당시에는 매우 드문 것인데, 이러한 표지 구성을 통해 당시 유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큰 관심과 근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친목회회보』는 1호에서 6호까지 일관된 표제 분류에 따라 글을 수록하고 있다. 잡지의 목차를 보면 10개의 분류 체제에 따라 사설·논설·잡보·연설·문원·내보·외보·만국사보·회사기·친목회일기 등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친목회회보』는 유학생 친목회의 일상적 소식과 유학생들 사이의 정보 및 지식 교환에만 머문 기관지는 아니었다. 고국의 동포들에게 개화사상과 자주 독립사상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국(國)에 애(愛)하며 군(君)에 충(忠)하는 지(志)를 확립하자"는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국담론을 견인해내는 글을 다수 수록하고 있었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다. 특히 『친목회회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잡지의 성격이 분명해지는데, 이 잡지는 단순한 유학생 친목회의 회지를 넘어 당시의 근대적 지식과 학술 문예, 그리고 시사를 아우른 종합지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친목회회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잡지였고, 이후 잇달아 간행된 잡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다만 잡지가 일본에서 간행되었고, 잡지 제작비용 중에는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찬성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인들의 찬조도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로 볼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해제 : 김찬기)

핵 심 어 최초의 잡지, 개화사상, 일본유학생친목회

참고문헌 배남덕, 「『親睦報』에 출하는 일본한자어 연구」, 『일본어문학』65, 한국일본어문학회, 2015.

차배근, 「대조선인일본유학생 『친목회회보』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연구』35,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199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02 대한자강회월보

大韓自强會月報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6. 7. 31~1907. 7. 25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자강회월보』는 1906년 7월 31일자로 창간되어 1907년 7월 25일 통권 13호로 종간된 대한자강회의 기관지이다. 대한자강회의 전신은 헌정연구회로 국민의 정치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였다. 이후 1906년 장지연과 윤효정 등이 헌정연구회를 확장하여 조직한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다. 대한자강회는 본회와 지방지회를 가진 전국 단체로 지회 수만 최소 25개를 상회하였고, 회원수도 15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한자강회는 주로 개화자강 계열의 인사들과 개신유학자계열의 인사들의 정치의식을 담아낸 전국적 조직이었다. 이런 점에서 근대초기의 잡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치 전문 잡지가 『대한자강회월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자강회월보』의 판권장을 보면, 편집 겸 발행인은 김상범, 인쇄인은 이정주, 인쇄소는 제국신문사, 발행소는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이다. 1부의 정가가 15전이고, 본문이 한문 현토체란 점을 보면 일반 국민이 구독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표지는 녹색 배경에 적색으로 한반도 지도를 넣고 기운찬 백색의 제호를 넣어 구성하였다. 단체를 주도하던 구성원들의 애국 계몽의지가 표지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대한자강회월보』의 본문은 1호에서 13호까지 일관된 표제 분류에 따라 글을 수록하고 있다. 사설·논문·문원·잡조 등과 같은 표제 분류에 따른 본문 구성 방식은 『친목회회보』가 소개된 이후 근대초기 여타의 잡지 편집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잡지 체재였다. 대한자강회가 창간된 시점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여서 국민의 민족의식과 독립 열망이 폭발하던 시기였다. 때문에 이 시기에 결성된 학회들의 기관지 역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한자강회는 이 시기 국민의 독립에의 열망을 담아내는 여타의 학회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전국적 단체였다. 이러한 사정은 기관지인 『대한자강회월보』 발기인들이 작성한 취지서를 보면 자명해진다. 『대한자강회월보』의 창간호에서는 "무릇 我國의 독립은 自强 여하에 있을 뿐이다"라는 설립 취지서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대한자강회월보』의 기사를 보면 이 잡지가 지향하는 바를 잘 알 수 있다. 『대한자강회월보』 13호에서는 자강회 인천 지회장 정재홍(鄭在洪)의 의거 내용(이완용 내각의 궁내부대신 박영효를 육혈포로 저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을 소상히 다루며 일본의 보호 정치를 규탄하는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한자강회월보』는 13호로 폐간되고, 대한자강회는 1907년 8월 이완용 내각이 내부대신 송병준의 지시에 의해 해산된다.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한자강회월보』는 근대초기의 잡지들 중에서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을 통해 '자강지술(自强之術)'을 견인해내려 한 대표적인 정치 전문 잡지였다. 다만 대한자강회와 기관지인 『대한자강회월보』는 여전히 일본을 문명화의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해제 : 김찬기)

핵 심 어 대한자강회, 정치 전문 잡지, 자강지술

참고문헌 이현종, 「대한자강회에 대하여」, 『진단학보』29, 진단학회, 1966.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함동주, 「대한자강회의 일본관과 '문명론'」,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3.

003 태극학보

太極學報
태극학회
1906. 8. 24~1908. 12. 20
아단문고

『태극학보』는 1906년 8월 24일자로 창간되어 1908년 12월 20일 통권 27호로 종간된 태극학회의 기관지이다. 태극학회는 '대조선 일본유학생 친목회'에 이은 두 번째 일본 유학생회로 주로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유학생 단체였다. 『친목회회보』 이후 다양한 유학생 잡지가 창간되는데, 이 중에서 문예란을 강화한 대표적인 잡지가 『태극학보』와 『대한흥학보』였다. 요컨대 근대 문학의 개념과 성립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들이 이 두 잡지에 다수 실리게 된다.

『태극학보』의 판권장을 보면, 1호에서 18호까지는 장응진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고 있고, 19호부터 종간까지는 김낙영이 맡는다. 인쇄인은 김지간, 발행소는 태극학회이다. 1부의 정가가 12전이고, 본문은 순 한글과 순 한문도 있지만 주로 한문 현토체 글이 주종을 이룬다. 표지의 바탕은 '묶음', 혹은 '결합'을 상징하는 타슬이 장식적 요소로 기능하는 태극기가 사선으로 배치되고, 태극기의 사선 배치 아래쪽으로 강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환기하는 붓글씨체의 한자 제호가 배치된다.

『태극학보』의 본문 역시 일관된 표제 분류에 따라 글을 수록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표제 분류에 따른 본문 구성 방식은 근대초기 많은 잡지들이 채택하던 잡지 체재였다. 『태극학보』는 2년 넘게 발간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예물과 논문들이 수록되는 바, 대체로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긴요한 지식과 문물 등을 소개하는 논문과 근대 문학의 시원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문예물들이 주로 수록된다. 이러한 사정은 "同胞國民의 智識을 開發ᄒᆞᄂᆞᆫ" 일에 조력하고자 한다는 창간호의 발간 취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요컨대 동포들에게 근대적 지식을 알리고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또 그것을 개발하고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발간 취지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문예물과 더불어 근대국가 만들기의 한 방법 제기된 '외교론'과 '조선혼'을 다루는 논설들을 수록하여 이 시기 계몽 담론을 견인하고 있다.

『태극학보』는 근대초기의 잡지들 중에서 사적인 개인의 차원의 감정과 생각을 다룬 글들과 학문적인 배움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글을 분명히 구분하여 수록한 잡지였다. 특히 『태극학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과 계몽을 담고 있는 장응진의 소설 「다정다한」, 「월하의 자백」 등과 같은 문예물을 다수 수록하여 근대적 문학 개념의 형성과 발전을 연구하는 데에도 긴요한 잡지로 평가되고 있다. (해제 : 김찬기)

핵 심 어 외교론, 조선혼, 계몽 담론

참고문헌 서은영, 「근대 계몽기 '국민' 담론과 외교론의 '전개'」, 『동북아 문화연구』2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전은경, 「『태극학보』의 표제 기획과 소설 개념의 정립 과정」, 『국어국문학』171, 국어국문학회, 2015.

조현신, 「한국의 근대초기 잡지 표지 디자인의 특성」, 『디자인학연구』27, 한국디자인학회, 2014.

004

소년한반도

少年韓半島

소년한반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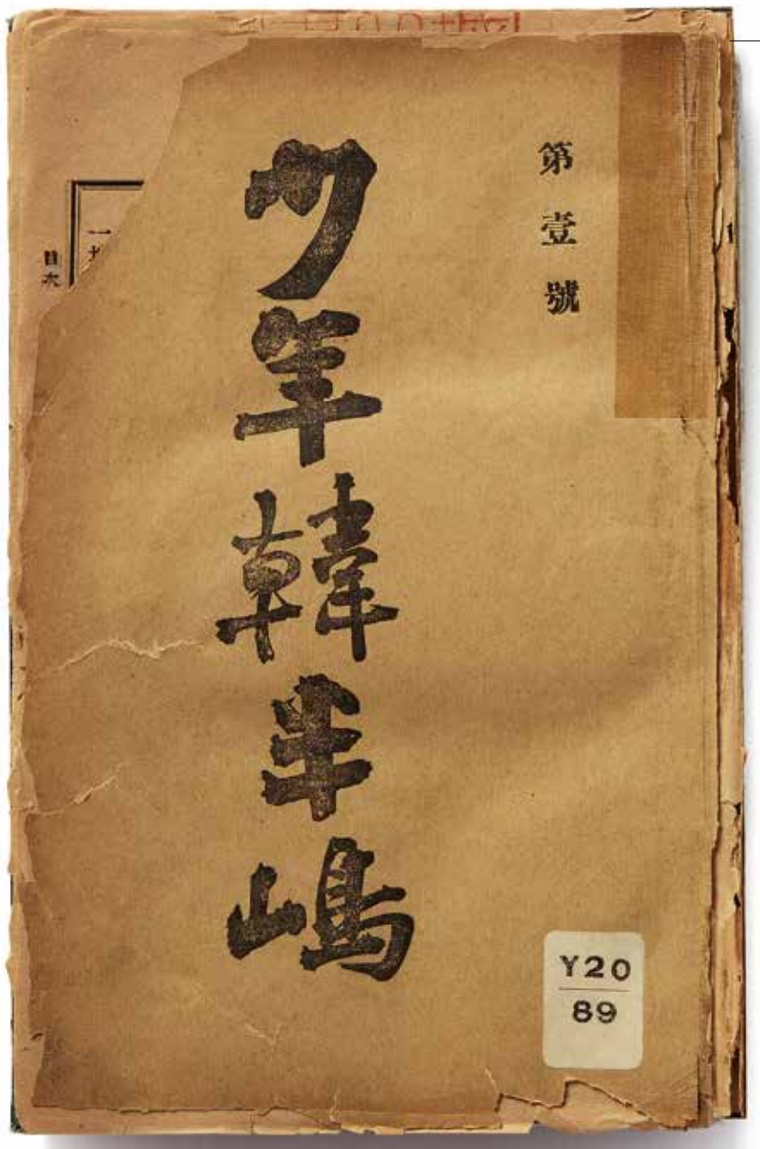
1906. 11. 1~1907. 4. 1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년한반도』는 1906년 11월에 창간되어 1907년 4월 통권 6호로 종간된 근대초기 최초의 청소년 잡지로, 최남선의 『소년』의 모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잡지는 당시 청소년들에게 근대문화와 사상을 전파하고, 애국과 구국의 방안을 계몽하는 데 힘쓴 글들을 다수 수록했다.

『소년한반도』의 판권장을 보면, 사상에는 아산 군수 출신으로 정약용 연구에 정통한 양재건, 찬술원은 이완용 내각의 법무대신이며 을사 매국 7역신 가운데 하나였던 조중응과 이인직이 맡고 있었다. 표지의 한자 제호는 강렬한 느낌을 자아내는 획과 약자로 표지 중앙에 종서로 배치되었다. 요컨대 이러한 표지 디자인을 통해 당대 청소년의 기상과 포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소년한반도』는 1호에서 6호까지 표제 분류에 따라 논문·소설·사조·잡조 등의 글을 수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소년한반도』의 창간 취지는 "구사회를 혁명하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민족적인 비약을 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잡지는 근대초기 계몽담론의 핵심인 '애국'과 '민족'의 이념을 구국의 이데올로기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학의 효시로 평가받는 이인직의 '사회학' 논문이 게재되었다. 다만 이인직의 사회학 논문에서는 그의 논설 「삼진연방」이나 신소설 『혈의누』에서 균열을 드러냈던 아시아 연대론에 대한 그의 입장이 다시 제시된다는 점에서 다층적 평가를 요한다. 또한 『소년한반도』가 애국계몽운동을 견인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창간호부터 활약한 조중응이 제4부터 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그리고 일진회의 최영년이 창간 축사를 한 점, 이인직이 고정기고가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이 잡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창간호 표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光武十年十一月一日發刊 每朔一回(一日)
定期發行 (代金新貨十五錢)
臨時事務所敦化門前私立普光學校內
著作者少年韓半島社
發行代表者 梁在謇
發賣所
皇城中署布屛下南邊三十七統六戶
金 相 萬 書鋪
皇城中署罷朝橋南邊博文書林
朱 翰 榮
大廣橋東邊九里床廛越邊書舖
高 裕 相
磚洞法語學校前幾外地
大韓每日申報社
敦化門前私立普光學校內
本社臨時事務所
印刷所
隆署會洞朴平基氏 ◎普 文 館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소년한반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잡지였고, 이후 최남선의 『소년』 창간에도 영향을 준 잡지였다. 이해조의 「잠상태」를 연재하여 근대 소설 문학의 지형을 다지는 등 당대의 학자와 명사들이 찬술원이었다. 다만 을사역신이었던 이완용과 조중응 등이 활동하여 잡지의 기본적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평가도 있다. (해제 : 김찬기)

핵 심 어 청소년 잡지, 을사역신, 근대소설

참고문헌 김경은, 「이인직과 아시아연대론」, 『한국학연구』28,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2.

유봉희, 「애국계몽기 이해조의 단체 언론 활동과 그 인적 관계망」, 『연대소설연구』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05 서우

西友
서우학회관
1906.12.1 ~ 1908.5.1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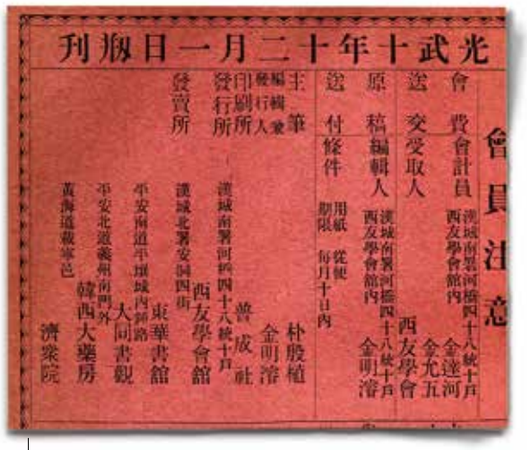
『서우』는 서우학회에서 발간한 기관지로 1906년 12월 창간되어 1908년 5월까지 통권 17호를 발간한 종합잡지이다. 서우학회는 1908년 1월 한북흥학회와 통합하여 서북학회로 발족하고, 1908년 6월부터 기관지 『서북학회월보』를 발간했다.

서우학회의 창립 발기인은 박은식, 김달하, 김명준 등 12인이며, 기관지 『서우』의 창간 당시 주필은 박은식, 편집 겸 발행인은 김명준, 인쇄소는 보성사, 발행소는 '서우학회관'이었다. 서우학회는 1906년 10월 26일에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의 재경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계몽단체였다. 『서우』의 창간호 표지는 초록색 바탕에 적색의 얇은 테를 둘러 적록의 색채 대비가 선명하고, 제호는 백색의 힘찬 붓글씨체를 선택하여 『서우』의 창간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우』는 근대초기 발간한 많은 잡지들처럼 표제 분류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창간호부터 사설·논문·사조·잡조 등의 분류 체제에 따라 글을 수록하여 근대적 종합잡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서우』는 민족자강 및 교육 구국 사상을 제시하는 논문을 다수 수록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우리 동포 청년의 교육을 인도하고 면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대중의 지식을 계발하는 것이 곧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기초이다"는 창간호 취지서에 잘 드러난다. 또한 논문란에 을지문덕이나 양만춘과 같은 역사적 위인들의 전(傳) 작품을 수록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근대적 문예 장르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문예물에 해당할 수 있는 전기물을 논문란에 수록하는 것으로 보아 문예에 대한 분명한 장르 의식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우』는 10호에서 박은식의 「文弱之弊는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光武十年十二月一日發刊

會員注意

會費計員 漢城南署河橋四十八統十戶 西友學會館內 金達河
送交受取人 西友學會 金允五
送原稿編輯人 漢城南署河橋四十八統十戶 西友學會館內 金明濬
付條件 用紙 從便 期限 每月十日內

主筆 編輯兼發行人 朴殷植
印刷所 普成社 金明濬
發行所 漢城南署河橋四十八統十戶
發賣所 西友學會館 漢城北署安洞四街
東華書館 平安南道平壤城內新路
大同書館 平安北道義州南門外
韓西大藥房 黃海道載寧邑
濟衆院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必喪其國」이란 글을 통해 이 시기 근대 계몽 담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무론'을 제출하고 '숭문천무(崇文賤武)'의 폐해를 경고하였다. 또한 『서우』는 '교육' 구국의 계몽 담론을 견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어서 이 시기 교육 구국 활동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도 긴요한 잡지로 평가된다.

이처럼 『서우』는 근대초기 애국계몽 운동이 전국적 차원으로 전개되지 않은 현실에서 평안도 황해도 출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최초의 지역 단위 학회의 기관지였다. 이런 점에서도 『서우』는 국권회복과 교육구국의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한 근대초기 대표적 종합지였다. (해제 : 김찬기)

핵 심 어 서우학회, 민족정신, 교육구국, 상무론

참고문헌 권영신, 「한말 서우학회의 교육구국 활동」, 『교육문화연구』11, 인하대교육연구소, 2005.

김원희, 『한국의 개화교육사상』, 재동문화사, 1979.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06 야뢰

夜雷

야뢰보관

1907. 2. 5 ~ 1907. 7. 5

서울대 중앙도서관

『야뢰』는 1907년 2월 창간되어 그해 7월, 통권 6호를 내고 종간된 종합잡지이다. 『야뢰』의 편집 겸 발행인은 오영근이고, 인쇄소는 보성사, 발행소는 야뢰보관이다. 잡지의 제호 '야뢰(夜雷)'의 서체는 한문 전서체의 변형이거나 잡지의 발행 목적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타이포그래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호 '야뢰(夜雷)'의 타이포그래피의 형상성은 곡선을 잘 살린 것이어서 '우레'라는 순 우리말이 주는 느낌과는 거리가 있다.

『야뢰』는 목차에서 표제 분류에 따라 글을 배치함으로써 글의 성격과 장르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담아내고 있다. 예컨대 문예란을 보면 이러한 장르 의식이 잘 드러나는 바, 서사물과 시가, 그리고 교술 장르에 대한 분류에 따라 문예물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야뢰』는 창간호부터 시사평론, 학술, 사회문제 등 다양한 부문의 학술 논문(인문, 이화학, 생리학, 농학, 경제학 등)과 사회 현실 문제를 다루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관외보도 게재하여 종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야뢰』는 기본적으로 동도서기의 이념에 의거하여 서구의 학술 및 기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발행인 오영근이 창간 취지서에서 "동서 고금의 제도 정형(情形)과 학술 기업(技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것을 다 갖추고, 삼라만상을 망라하여 한권의 책 속에 모아 일반 국민에게 보통지식"을 채워주려는 목적 아래 창간된 잡지란 점을 천명한 점에서 잡지의 지향점은 분명해진다. 특히 문예란에 '골계소설'이란 양식 명칭을 붙인 서사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뢰』의 편집진은 문예물에 대한 장르 의식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금제조법'이란 과학 기술 논문을 수록하는 등 근대초기의



창간호 표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과학과 기술을 선도하는 논문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즉『야뢰』는 국민의 생활에 긴요한 보통의 지식을 채워준다는 창간 취지를 살린 글들을 수록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보였다.

이처럼『야뢰』는 매호마다 자연과학 논문을 수록하고, 진화론을 적극 수용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서구 과학 사상 전파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로 볼 때,『야뢰』는 근대 초기 과학기술 계몽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끈 잡지로 평가할 만하다. (해제 : 김찬기)

핵 심 어 동도서기론, 민지계몽, 자연과학

참고문헌 정진석,『한국 잡지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조현신,「한국의 근대초기 잡지 표지 디자인의 특성」,『디자인학연구』27, 한국디자인학회, 2014.

최덕교,『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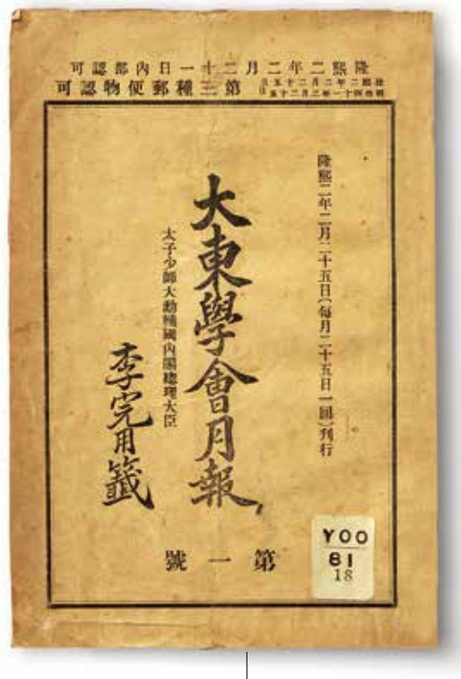
007 대동학회월보

大東學會月報
대동학회회관
1908.2.25~1909.9.25
서울대 중앙도서관

대동학회는 신기선을 임시회장으로 하여 조직되었고 특히 이토 히로부미의 찬조금 1만원을 받은 일로 각계의 큰 비난을 받았다. 신채호는 신기선을 일본의 3대 충노(忠奴)로 질타하고 공개적인 절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부회장 홍승목과 서기 겸 『대동학회월보』의 발행인인 이대영(李大榮)을 비롯한 학회 임원들의 상당수는 총독부 창설 이후, 중추원과 경학원 등의 일제 기구에 소속되어 유림의 친일화를 위해 적극 협력했다.

『대동학회월보』는 1908년 2월 창간되어 1909년 20호로 종간되었다. 광고를 제외하고 60-70면 정도의 분량을 매호마다 유지했으며 서울 300부와 지방 400부를 합쳐 700부를 발행했다. 근대계몽기의 다른 학회처럼 대동전문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였고 『월보』는 법학, 화학, 물리학 등 교과서 성격의 글도 자주 게재하였다. 표지에는 한자로 "大東學會月報"가 세로로 쓰여 있다. 1호 표지에는 회원 이완용이 잡지 제호 옆에 "太子少師大勳輔國內閣總理大臣"이라는 직책과 더불어 "李完用籤"이라 써놓았다. 첨(籤)은 보통 책이나 문서에 붙이는 쪽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으나, 태자의 사부이며 공신이고 총리인 이완용이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렇듯 이 단체의 구성원은 당대의 원로와 고관대작을 포함했다.

일제에 대한 협력 때문에 비난을 받은 대동학회이지만 『대동학회월보』의 구성과 편집의 방식은 당대의 다른 계몽적 잡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월보』가 취한 1)논설-2)학술-3)문예 내지 잡문-4)휘보의 사단 구성은 다른 잡지에도 대체적으로 적용된 형식이다. 근대지식이 중심이 된 2)가 분량으로는 비중이 컸는데, 일제에 대한 협력 여부에 관계없이 근대 분과학문의 수용은 계몽운동에 참가한 다양한 지식인들에게 공통의 지상과제였다.



창간호 표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월보』가 가진 차별성은 표기법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논설 부분에는 한문으로 된 글이 국한문으로 된 글보다 더 많아서, 1호에서 5호까지 논설에 편성된 모든 글들이 한문이다. 또한 학술에 해당하는 기사도 한문으로 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문예에 속하는 글은 모두 한문이기에 한문의 비중이 다른 잡지에 비해 월등하게 컸다. 한문고전에 근거한 과거제도의 폐지와 국문을 공식화한 갑오개혁 이후에 한문에 대한 국문의 우위는 교육, 식산 같은 계몽운동의 주요 과제였으나, 『월보』는 이를 거스르는 방향을 취했다. 문체에 따라 그 내용도 한문고전에 근거한 조선의 사문(斯文) 전통을 옹호하는 성향이 강했다. 공맹(孔孟)의 도를 옹호하는 「도학원류(道學原流)」(신기선, 1-3호), 「종교와 한문」(김문연, 19호), 한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한문국문(論漢文國文)」(여규형, 1호) 등을 들 수 있으며 거의 모든 호의 끄트머리에 신기선 등의 원로 유림이 『논어』 등의 경서를 강의한 기록을 수록하였다.

『월보』는 전반적으로 한문전통과 사문 의식에 대한 강조로 시작되어 근대 분과학문을 서술한 다음 한시 수창 등의 한문 시문(詩文) 창작이 이어진다. 부록처럼 관보와 언론 단신이 붙고 전통적 경학 강의로 마무리되는 양상이었다. 동문동종(同文同種)이라는 문구에 집약되듯이,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공유한 한문전통이 조선 식민통치의 문화적 보완재로 사용되었음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이다.

일제에 대한 협력이 명백히 보이는 경우를 찾기는 힘드나, 일제의 외교관 하야시 규우지로


發行所 慶城西署西學峴 大東學會會館
印刷所 慶城中署苑洞 普成社
編輯兼發行人 李大榮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林久治郎)의 「교육사의(教育私議)」(14호)를 보면 민간의 사립학교를 통합하여 교육체제를 정비하자고 주장하였다. 사립학교를 침탈하고 교육을 독점하려 했던 일제 교육정책을 홍보한 셈이다.

『대동학회월보』의 학술적 가치는 상당하다. 여기 참여한 유림들은 장지연, 박은식 등의 개신 유학자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당대의 주류라 할 만한 인사들이다. 이들이 근대 분과학문과 국민국가 이념을 수용한 과정 및 일제에 협력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한 자료이다. (해제 : 임상석)

핵 심 어 일제 협력 유림, 유림의 근대 학문 수용, 사문 의식

참고문헌 구장률, 『근대 초기 잡지와 분과학문의 형성』, 케포이북스, 2013.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9.

정욱재, 「20세기 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 『한국사학보』 56, 201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08 대한학회월보

大韓學會月報
대한학회사무소
1908. 2. 25~1908. 11. 25
연세대 학술정보원

당시 일본 유학생들은 여러 단체를 조직하면서도 1907년부터는 통합을 시도하였다. 첫 통합조직은 대학유학생회였으나 1907년 2월부터 5월까지 3호의 기관지를 남기고 단명한 후, 대한학회라는 보다 확장된 통합조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태극학회는 합류하지 않았다. 당대의 다른 유학생 단체처럼 국가와 계몽을 기치로 내세웠으며 1호의 표지 뒤에 황태자의 사진을 게재하고 7호의 본문은 대한제국을 기리는 송(頌)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최린, 고원훈, 채기두, 최석하 등 학회 주요임원 등의 적극적인 일제 협력에서 나타나듯이 회원의 다수는 결국 일제 식민지 체제 안에서 복무하게 된다.

이 단체의 기관지 『대한학회월보』는 1908년 2월부터 11월까지 9호를 내고 종간하였으며 일본에서 발행되었다. 6호는 103면이나 발행되었으나 대부분 60-70면 내외였는데 발행부수는 1,000부에서 1,500부에 이르러 당대에 영향이 컸음이 드러난다. 인쇄술이 발달한 일본에서 발행하는 만큼 사진과 도화의 질과 양이 국내의 잡지에 비해 훨씬 뛰어났다. 2호부터 5호까지는 영국 의회, 자유의 여신상, 개선문, 아테네의 극장 등의 도화를 수록해 서구에 대한 동경도 나타난다.

"1)논단/연단 : 정론 성격 - 2)학해 : 학술의 성격 - 3)사담/사전 : 역사 관계 기사 - 4)문원 : 문예 성격 - 5)잡찬 : 앞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글이나 짧은 언론 기사 - 6) 휘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대 국내 잡지와 달리 관보를 게재하지 않았고 대신 졸업생에 대한 축사, 학생 연설회 및 운동회 개최 등을 수록했다. 그리고 몇몇의 주요 필진이 정론을 주로 구성하던 국내의 잡지들에 비해 유학생 단체 기관지는 필진이 더 다양한 편이었다. 회원들 간의 관계가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상대적으로 수평적었던 점이 드러난다. 정론과 학술은 계몽의 2대 과제였는데, 4호까지는 1)의 비중이 크고 2)에 수록된 글이 부족하나 5호부터는 1)과 2)의 비중이 비슷해진다. 정치에 대한 논설은 간접적이고 소설적이어야 한다는 주의가 명시되었듯이 일제의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6호). 2)는 주로 근대 분과학문을 소개했다. 대학생이던 회원들이 일본 대학의 강의를 그대로 지면에 중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적 단결론,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론, 신학문과 전통 학문의 융합, 일본과 미국 등 열강에 대한 선망, 기독교·불교·공자교의 절충, 프랭클린·뉴튼·와트 등의 서구 위인 상찬, 식산흥업, 교육진흥 등 다양한 정론으로 시작하여 법학, 경제학, 위생학, 상학, 윤리학, 심리학 등의 분과학문을 갖추고 콜럼버스, 피터 대제, 영국과 인도의 역사 등이 실린 3)으로 이어진다. 한시나 국문시가가 주로 실린 4)가 다음이고 일본문화에 대한 기사, 일본기행 등이 실린 5)가 이어지고 6)으로 마무리 된다. 편집체제상 1)과 2)에 중점이 있지만 4)와 5)에도 흥미로운 기사가 많다. 국문을 무시하는 교육자를 토벌하자는 「교육자토벌대」(나홍석, 3호), 국문 운문의 수창을 수록한 「나는 가오」(최남선, 3호) 그리고, 서사적으로 일본의 통감부 정치를 간접 비판한 「자유재판의 누문(漏聞)」(고원훈, 4호) 등은 주목할 글이다.

또 6호의 「보설(報說)」에서 "한자는 취하나 한문체는 버리고 쉬운 국한문으로 체제를 맞춘다"고 명시하고 이후 잡지 전체에서 한문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 잡지는 한문전통과 근대 분과학문이 상충하던 당대 지식인들의 글쓰기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해제 : 임상석)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핵 심 어 대한학회, 근대 과학 수용, 일본 인식, 국한문체

참고문헌 구장률, 『근대 초기 잡지와 분과학문의 형성』, 케포이북스, 2013.

이태훈,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자기인식과 계몽 논리」, 『한국사상사학』45, 2013.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9.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09 대한협회회보

大韓協會會報
대한협회사무소
1908. 4. 25~1909. 3. 25
연세대 학술정보원

계몽기 한국에서 결성된 단체 가운데 가장 정당에 가까운 체제를 가진 것이 대한자강회였으며 1907년 일제에게 해산당한 후, 대한협회가 후속으로 발족되었다. 『대한자강회월보』의 표지가 한반도의 지도 안에 "大韓自强會月報"를 써 넣은 것과 동일하게 『대한협회회보』의 표지도 같은 빨간색 지도 안에 잡지의 이름을 한자로 적어놓았다. 『회보』의 뒷면은 오각별의 오각형 안에 만(卍)자가 들어간 협회의 휘장을 실어 놓았다. "卍"은 동포 이천만이고 오각별은 오대주, 오각형은 "교육·식산·정치·법률·외교"를 의미한다고 해설한다.(「대한협회휘장설」, 2호) 1908년 4월에 창간되어 1909년 3월 총 12호로 종간되었다. 후속으로 대한협회는 1909년 6월부터 일간지 「대한민보」(1910년 8월 종간)를 발행하였다.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는 의병투쟁이나 해외 망명 및 운동 거점 설치 등, 일제 체제 거부의 대척점에 선 실력양성론에 근거해 정당정치를 추구한 대표적인 단체였는데, 그 구성원들 사이의 사상적 경향이나 일제에 대한 태도 등은 다양했다. 자강회시절에도 일본인 고문인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를 받아들여야 했고 『월보』에는 보호국 한국이 일본의 문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논조가 등장하나, 당면한 식민지 위기에 대한 자주적 모색이라 평가할 여지가 많다. 『회보』는 일제에 대한 타협과 보호국 논리에 동조하는 논조가 두드러져 『월보』와 차이를 드러낸다. 자강회와 대한협회의 주요 임원인 윤효정이 의병을 폭도로 규정하고 정당 정치로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펴고(1호, 2호), 일본의 정당정치와 입헌정치를 본받아야 한다는 논설(김성희, 「眞政黨與非政黨論」, 2호: 원영의, 「정치의 진화」, 12호) 등이 게재되어 일본문명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양상이다. 검열의 제한 아래에서도 『월보』는 보호국 체제를 넘어서는 국민국가 설립에 대한 지향을 보인 반면, 『회보』는 조선계발정책이 잘 유지된다면 '이또 히로부미'를 적극 지지할 것을 표명하는 등 일단 현 체제를 인정하는 성격이 강하다.(「雜俎」, 12호)

그러나 『회보』에는 체제 협력적인 성격의 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민족적 장래를 모색한 신채호의 대표적 논설(「대한의 희망」, 1호 :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2호)이 실렸고, 양계초의 「변법통의(變法通議)」와 교육 관계 논설 등을 국한문체로 번역 게재하여 국민국가의 이념을 모색하기도 한다. 장지연은 교과서 검정과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10호, 12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대한제국 황실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건의서」, 10호) 보호국 체제를 개량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동양척식회사에 대해 협회 차원의 의문을 제기하고(7호) 한성부민회 결성을 보도하는 등(10호) 국가체제에 대한 개인의 이권을 문제시한 것은 민권운동의 맹아를 보이는 흐름이기도 하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編輯兼發行人 漢城中部塔洞 洪弼周
印刷人 漢城北部齋洞 趙琬九
印刷所 漢城南部明洞 日韓印刷株式會社
發行所 漢城中部塔洞三十二統 加一戶大韓協會事務所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회보』는 『월보』보다 정당에 대한 지향성을 명징하게 드러내 정치, 국가, 법률 등에 대한 기사를 강화했다. 후자의 형식이 "논설-교육-식산-문예-회보-잡록"이고 전자는 "논설-교육-실업-정치-법률-역사-문예-회보"로 구성되어 정치와 법률이 독립된 편집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만큼 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대한협회회보』는 실력양성운동 및 일제 문명 우월론 등 통감부 체제 하의 정치·사상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가운데 민권운동의 맹아까지 나타낸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또한 『월보』-『회보』-『대한민보』 등으로 통감부시대부터 총독부 초기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다양한 전환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해제 : 임상석)

핵 심 어 일제문명 우월론, 보호국 체제, 실력양성운동, 신채호, 장지연

참고문헌 김종준, 「대한제국기 민권운동 연구의 재인식」, 『한국학연구』31, 2013.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대한자강회월보편역집 1-3』, 소명, 2012-2015.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9.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함동주, 「일본제국의 한국지배와 근대적 한국상의 창출」, 『일본역사연구』25,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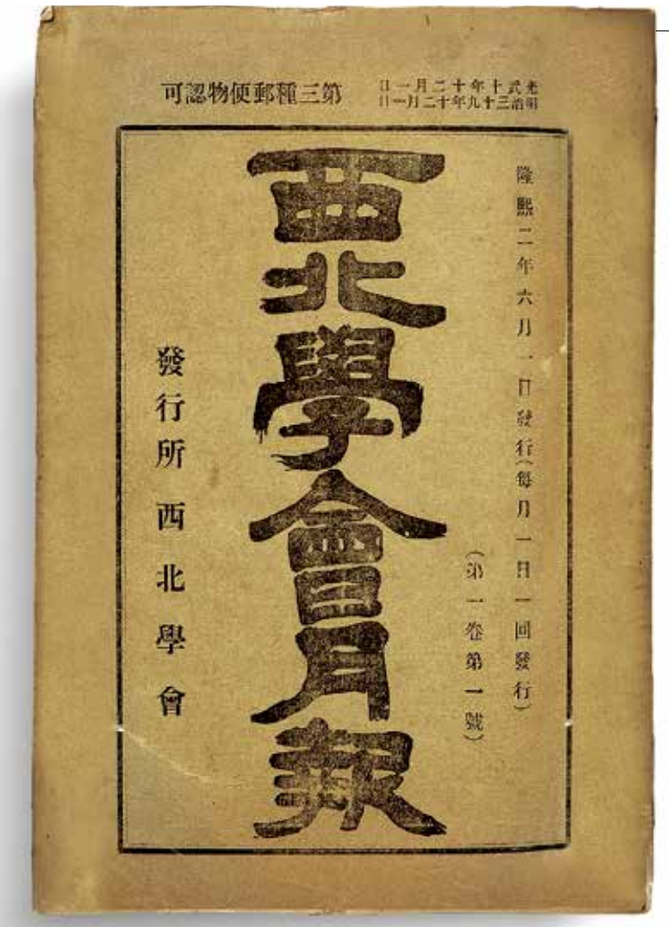
010 서북학회월보

西北學會月報
서북학회
1908. 6. 1~1910. 7. 1
아단문고

서북학회는 관서지방 인사를 중심으로 한 서우학회가 함경도 중심 인사들의 한북학회와 통합하여 1908년 1월 결성되었다. 기관지 『서북학회월보』는 1908년 6월부터 1910년 7월까지 발행되었다. 전신에 해당하는 『서우』가 1906년 12월부터 1908년 5월까지 발행된 것을 감안하면 계몽기 잡지 가운데 가장 장기간 발행된 사례이다. 역시 서북 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태극학회의 『태극학보』도 1906년 11월부터 1908년 11월까지 26호를 발행하여 일본 유학생 단체 기관지로서 가장 장기간 발행되었다. 조선시대 내내 차별받았던 서북 인사들의 언론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점은 주목해야 한다.

『월보』의 19호까지는 영인본이 있으나 20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가능하고 22호와 25호는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지는 잡지명을 중앙에 한자로 크게 쓴 모양이다. 『월보』는 당대 다른 잡지에 비해 거의 삽화를 찾을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서북학회는 서울에서 운영한 서북협성학교 학생들의 작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호남학회, 기호흥학회, 교남학회 등 사립학교를 운영하던 단체들은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에 맞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22호)

『서우』와 『서북학회월보』에서는 서북인의 차별에 대한 공분을 드러내며 대응책을 강구했다. "인물고"라는 기획을 통해 주로 조선시대 서북 출신 명사들의 사적을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광개토대왕비 비문 관계 기사를 게재하고(9호) 고구려의 시를 소개하며(14호), 홍석주의 「발해세가(渤海世家)」(25호)를 수록하는 등 고대와 북방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光武十年十二月一日 第三種郵便物認可
隆熙二年六月一日發行(每月一日一回發行)
(第一卷第一號)
西北學會
發行所西北學會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번역 성경 등의 수용을 통해 국문체의 발전이 빨랐던 서북 인사들이 중심이 된 만큼 『월보』에는 한글의 비중이 높은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논설 성격의 기사들은 다른 잡지들과 비슷하게 한문의 비중이 높았으나 풍자적이고 서사적인 성격의 잡문 성격의 기사들은 한글 전용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담총(談叢)", "항요(巷謠)", "가담(街談)" 등의 한글 위주 기사들은 시대 풍자의 정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 항목에 편성된 "뒤장이수작"(19호), "전사(田舍)의 탄(歎)"(17호) 등은 주목할 사례이다. 잡지의 구성은 호남학회, 기호흥학회 등의 다른 학회지에 비해 체제가 혼란하다. 논설의 항목만 고정적으로 배치되고 학술적 성격의 글은 "교육부", "위생부", "잡조", "강단" 등의 제명 아래 편성되었다. 그러므로 근대 과학을 개설한


光武十年十二月一日 刊
會員注意
會費 會計員 漢城中部校洞二十九統二戶 西北學會館內 朴景善
送交 受取人 西北學會
原稿 送付 編輯人 漢城中部校洞二十九統二戶 西北學會館內 金達河
修件用紙 規限 從來每月十日內
主筆 編輯兼發行人 朴殷植 金達河
印刷人 李達元
印刷所 發行所 普成社
發賣所 漢城中部校洞二十九統二戶 西北學會
中央書館 皇城麒麟橋 韓昌林
文明書館 皇城明洞 大韓昌林
皇城中署布屋下廣學書舖
皇城小安洞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학술 성격의 기사들은 『기호흥학회월보』, 『호남학보』 등에 비해 내용의 연속성이나 구성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위생과 삼림학에 관한 기사들의 비중이 컸다.

『월보』에는 새로운 이념에 대한 기사들이 다양하고 특색이 있다. 박은식과 김원극 등을 중심으로 한 양명학 관계 기사를 자주 게재했고 종래의 사문 전통을 공자교 같은 근대적 종교로 개신하자는 취지의 논설도 나타난다. 이율곡, 양계초, 워싱턴 등 다양한 명사들의 사상과 사적을 지속적으로 소개한 것은 사문의 전통과 서구의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동도서기론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한국에 다시 오시면 서구의 제도를 참조하실 것이라는 주장도 비슷한 흐름이다.

서북학회의 부회장이었던 정운복은 이또 히로부미와 밀접한 관계로 일제에 협력했고 서북학회는 일진회와 연합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보』에서 일제의 부강과 문명에 대한 선망은 종종 나타나지만 명확한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총독부 설립 직전까지 『서북학회월보』는 식민지 위기에 대응해 이념적·학술적 모색을 지속했다. (해제 : 임상석)

핵 심 어 서북인, 공자교, 양명학, 박은식

참고문헌 구장률, 『근대 초기 잡지와 분과학문의 형성』, 케포이북스, 2013.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9.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0.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11 기호흥학회월보

畿湖興學會月報
기호흥학회사무소
1908. 8. 25 ~ 1909. 7. 25
연세대 학술정보원

계몽기 한국에서 결성된 학회들은 대체로 지역 기반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들의 활동무대는 거의 예외 없이 서울이었다. 평안도 중심의 서우학회가 가장 먼저 결성되었고 일본 유학생 학회도 이 지역 중심인 태극학회의 결성이 이른 편이고 활동도 왕성했다. 조선의 중심지인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기호흥학회는 늦게 결성되어 1908년 8월부터 기관지 『기호흥학회월보』를 발행하였다. 회원의 면모는 이용직, 신기선, 정만조, 안종화 같은 유림의 원로 및 정부 고관부터 박정동, 유병필, 안국선처럼 근대학문을 익힌 신진 인사들까지 다양했다. 이 학회는 다른 학회처럼 기호학교를 운영했으며 기관지에는 이 학교 소속 인사들도 자주 참여했다. 이종일, 오세창처럼 천도교 관계 인물들도 있고 대한자강회 회장 윤효정이 기호학교의 교장을 맡기도 했다. 뒤에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김가진, 조완구와 어윤적, 윤치오, 민종묵 같은 후일의 일제 중추원 의원들도 같이 학회에 참여했다. 서울·경기·충청이라는 조선의 전통적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만큼 다양한 성향의 주요 인사들이 모일 수 있었다.

『월보』는 1908년 8월부터 1909년 7월까지 12호가 발행되었고 매호 60면 가량이었다. 편집은 이해조가 담당했고 발행과 편집은 기호학교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표지에는 전서체로 잡지명 "畿湖興學會月報"을 썼고, 1호의 표지 뒤에는 두 장에 걸쳐 의친왕이 행서체로 "咸與維新"를 썼다. '함여유신(咸與維新)'이란 모두 함께 새로이 한다는 의미로 『서경(書經)』「하서(夏書)」의 한 구절이다. 혁신의 근거를 한문고전에서 찾고 있으며, 대한제국의 독립과 부강을 발간 취지로 내세웠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1) 흥학강구(興學講究) : 정론 성격 – 2) 학해집성 : 근대 과학 소개 – 3) 사조(詞藻) : 문예 성격 – 4) 잡조(雜俎) : 잡문 및 기서(奇書) – 5) 언론 단신과 관보"의 차례로 편성되어 여타의 계몽기 잡지와 유사한 구성방식을 보였다. 1)과 2)의 비중이 비슷하다가 7호 이후로는 1)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 당대의 다른 잡지에 비해 역사 관계 기사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기호흥학회월보』는 면수에 비해서는 기사의 수가 많았는데 1)에 속하는 글들이 대부분 한문 산문의 압축된 형식과 수사를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7호 이후부터 한문의 비중이 줄어 한문으로 된 기사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문 고문 형식의 1)로 시작해 근대 과학을 한문의 비중이 낮은 국한문체로 서술하고 한시(漢詩)가 등장하여 문체와 내용에서 한문전통과 과학이 절충된 양상을 드러낸다.

서술된 기사들이 대부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당대의 학회지 가운데 분과 학문을 가장 체계적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기호학교를 운영하던 이해조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과 학문 기사들은 이 학교의 교재일 확률이 많다. 이해조는 「윤리학」(5 – 12호)을 8회나 연재하여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대동학회월보』처럼 전통적 사문(斯文) 의식과 신학문의 조화를 기도하는 논설이 많이 등장하고 신기선, 민종묵 등이 한문 산문을 게재하는 등 수구적인 경향을 보인데 반해, 신채호의


發行人 金奎東
編輯人 李海朝
印刷人 李基弘
印刷所 右文館
發行所
發賣所 京城各書舖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문법을 의통일(宜統一)」(5호), 변영만의 「대호교육(大呼教育)」(1호) 등은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사회진화론과 사문 전통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이외에 조선후기에 유한규(柳漢奎)의 부인 전주 이씨가 집필한 태교서를 7회(2-8호)나 국한문체로 번역하여 연재한 것도 주목할 사례이며 "청구미담"이란 제목으로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간행된 최초의 근대적 교과서 『소학독본』을 5호부터 11호까지 계속 연재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기호흥학회월보』는 근대과학의 적극적 수용과 사문 전통의 보존이라는 동도서기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유림 원로, 신학문을 습득한 개신 유학파, 천도교 세력 등 당대의 다양한 지식인들이 각기 다른 논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해제 : 임상석)

핵 심 어 사회진화론, 이해조, 동도서기, 기호학교

참고문헌 송민호, 「동농 이해조와 운양 김윤식(1)」, 『국어국문학』173, 2015.

유봉희, 「「윤리학」을 통해 본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이해조의 사회진화론 수용」, 『현대소설연구』52, 2013.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9.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12 소년

少年
신문관
1908.11.1~1911.5.15
국립중앙도서관

1908년 11월 창간되어 1911년 5월 통권 23호로 종간된 한국 최초의 종합잡지로, 매월 1회 발간을 원칙으로 삼았다. 일제 통치에 저촉되는 국권회복 및 역사·학문 관련 논문 등 때문에 수차례의 발매금지와 정간에 시달렸다.

편집 겸 발행인은 최남선의 장형 최창선(崔昌善), 발행처는 한성 신문관(新文館)이었다. 물론 『소년』의 실질적 주재자는 최남선이었고, 이광수와 홍명희도 주요 필자로 참여했다. 『소년』의 앞표지에는 맨 위에 발행 일자, 상단부에 월계관에 둘러싸인 제호 '소년' 및 그 좌우의 창간 목적("아국 역사에 대영광을 첨하고 세계문화에 대공헌을 위함" "활동적·진취적·발명적 대국민 양성"), 하단부에 간략한 목차를 적은 "본권 개목(槪目)"이 배치되었다. 뒤표지에는 "소년구가(口歌)서류"라는 제목 아래 장편창가 『한양가』, 『경부철도가』, 『세계일주가』에 대한 소개 광고가 꾸준히 실렸다.

『소년』은 매호 서양과 일본의 문명 상태 및 그 외 지역의 저발전 상황이 담긴 각종 이미지를 '삽입사진동판'으로 제시했다. 문명과 야만의 대조적 상황을 주어진 사실로 지시함으로써 신대한 소년의 세계지(知)와 미지(未地) 개척의 모험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1909년 제2권 5호는 아예 '꽃'을 주제로 문명 제국의 유명한 건축물과 각종 화초(花草)를 촬영·판각·인쇄한 이미지를 특집으로 실었다.

『소년』 최대의 가치와 의미는 조선과 동서양을 포괄하는 문학과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육당은 「해(海)에게서 소년에게」(창간호)를 비롯한 「소년대한」, 「신대한소년」, 「구작(舊作) 3편」, 「삼면환해국」, 「대한소년행」, 「바다 위의 용소년(勇少年)」 등 신대한 소년의 꿈과 모험심을 격려하는 신체시를 계속 실었다. 또한 도산 안창호에게 바친 「태백산가」 외 3편, '꽃' 특집을 기리는 「꽃 두고」, 단군 이래의 '조선혼'을 찬송하는 「대조선정신」 등을 통해 '불함문화론'의 기초를 닦았다.

육당은 창간호부터 소년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편 서양문예에 대한 지식 습득을 장려하기 위해 유명한 서구소설을 번역·게재했다. 동화 형식의 「거인국표류기」(걸리버여행기), 「로빈손무인절도표류기」(로빈손 크루소우)는 바다와 세계 개척의 모험담에 관련된다. 한편 1910년 한일합방 직전에 실린 위고의 「ABC계(契)」(레미제라블, 제3년 7권), 육당이 노동·역작의 표본으로 숭앙했던 「톨스토이선생하세(下世)기념」(제3년 9권)으로 발표한 「너의 이웃」 외 2편은 조선의 식민화와 관련하여 미래의 '신대한'을 향한 소년의 각성을 촉구하는 번역소설로 읽힌다.

'신대한'에 봉공할 청년의 훈육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소년』은 이를 위해 그들의 모범이 될 만한 위인들의 전기 및 선각자들의 삶과 생각을 담은 「신시대 청년의 신호흡」을 꾸준히 연재했다. 을지문덕, 이순신, 민영환, 나폴레옹, 피터 대제, 워싱턴, 링컨, 이율곡, 후쿠자와 유키치, 프랭클린, 톨스토이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매호 연재된 「소년시언(少年詩言)」이나 이광수의 「여(余)의 자각한 인생」과 「조선사람인 청년들에게」(제3년8권) 역시 어지럽고 나약한 국가 현실에 맞서 미래의 주역 청년들이 취해 마땅한 사상과 태도를 정성껏 제시한 계도물들이다.

『소년』은 '조선적인 것'에 대한 앎과 자랑의 교육에도 힘썼다. 조선의 과거와 현재에 걸친 지리·역사·문화를 널리 소개한 기행문 「쾌소년세계주유시보」와 「교남홍조(嶠南鴻爪)」, 산문 「봉길이 지리공부」, 조선반도의 문명사와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상대한사(海上大韓史)」 등이 그것이다.

『소년』은 '신대한'의 확장과 완성에 필요한 제반 가치와 사상, 글쓰기의 제시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빼어난 교본이자 실천의 텍스트였다. 물론 『소년』은 자주독립보다 문명개화에 치중했다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미각성 상태의 조선 청년들은 『소년』을 통해 근대인의 지성을 갖추고 근대국가 '신대한'의 국민으로 성장하는 방법과 모델들을 배울 수 있었다.(해제 : 최현식)


隆熙二年十一月刊行(第一年第一號)
不許翻刊
編輯並發行人 崔昌善
印出人 朴永鎭
印出處 新文館
發行處 京城南部錢井洞五十九統五戶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 심 어 『소년』, 최남선, 신문관, 신대한, 대조선, 문명, 신체시, 번역소설, 위인전

참고문헌 권보드래, 「『소년』과 톨스토이 번역」,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

윤영실, 「국민국가의 주동력, '청년'과 '소년'의 거리—최남선의 『소년』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48집,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08.

조윤정, 「잡지 『소년』과 국민문화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현대문학회, 2007.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최현식, 『최남선 근대시가 네이션』, 소명출판, 2016.

013 대한흥학보

大韓學會月報

대한흥학회사무소, 대한흥학회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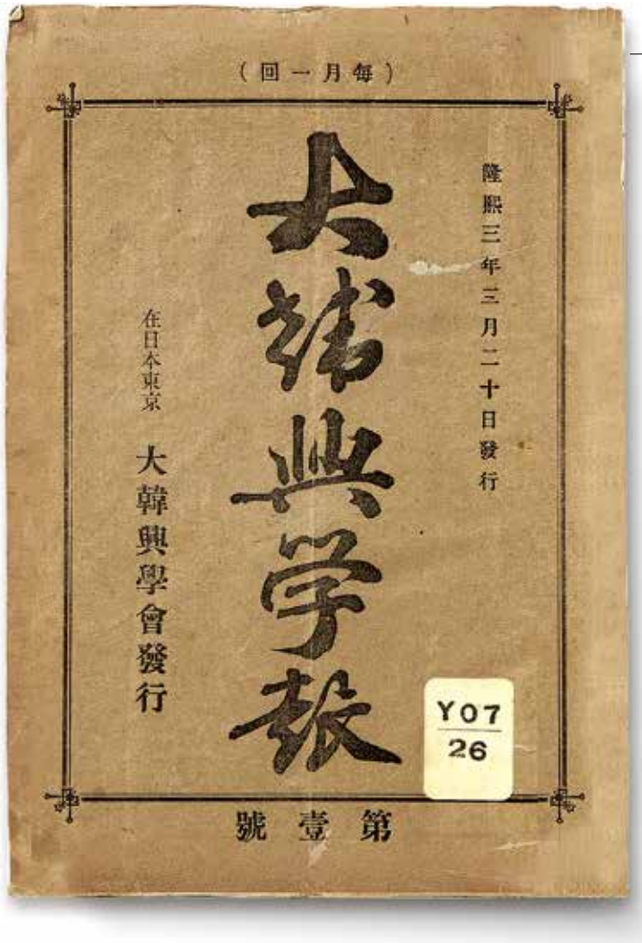
1909. 3. 20~1910. 5. 20

서울대 중앙도서관

대한흥학회는 일본 유학생 학회들이 연합한 대한학회와 서북 출신 인사 중심으로 장기간 활동한 태극학회 및 황실 유학생 중심인 공수학회 등과 통합해 유학생 학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직되었다. 학술 진흥을 통한 조국의 문명부강을 기치로 내세웠다. 회장 채기두, 기관지 발행인 고원훈이 1920년대부터 관직에 나아가 일제에 적극 협력한 만큼 대다수의 회원은 결국 일제 체제에 협력하게 된다.

기관지 『대한흥학보』는 1909년 3월부터 1910년 5월까지 13호가 일본에서 발간되었으며 1호부터 6호까지는 평균 80면 정도로 당대의 잡지 가운데 『소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분량이 많았다. 그러나 7호부터는 60면 내외로 줄어들어 총독부 체제이후 계몽운동의 위축이 드러나며, 학회도 1910년 8월 강제 해산되었다. 발행부수가 2,000부에 달하여 일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내 한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신에 해당하는 『대한학회월보』에 비해 삽입된 도화가 줄어들었다.

"1) 논단 / 연단 : 정론 성격 – 2) 학해 : 학술의 성격 – 3) 사담 / 사전 : 역사 관계 기사 – 4) 문원 : 문예 성격 – 5) 잡찬 : 앞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글이나 짧은 언론 기사 – 6) 휘보" 등으로 구성되어 다른 유학생 잡지와 유사하나 『대한학회월보』와 달리 2)의 비중이 1)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으며 대신 4)와 5)에 문예 성격의 기사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학 강의록을 그대로 옮긴 형태의 기사들은 줄고 독자적 정론이나 창작의 비중이 커졌다. 논설 성격의 기사 가운데는 유학생들의 입신출세주의를 비판한 조소앙의 「회원제군」(7호)이 특기할 만하고 이광수,



창간호 표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홍명희, 문일평 등의 유학생 시절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글들도 주목할 만하다.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청년국지원기(靑年國之元氣)」(길승익, 8호) 같은 사례도 있다.

『대한흥학보』는 문예에 포함될 성격의 기사의 수가 논설과 학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짤막한 시가가 많기에 수량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잡지에 비해 문예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투고자수가 130명에 달하여 독자가 수련을 거쳐 필자로 참여하게 되는 문단의 초보적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광수의 「옥중호걸」(9호), 「무정」(11-12호), 진학문의 「요조오한(四疊半)」(8호) 등은 당대의 상황을 전하는 흥미로운 작품들이다.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대한학회월보』와 유사하게 7호부터 국한문체로만 투서해달라는 입장을 밝힌다.(「투서의 주의」, 6호) 이후에도 한문 산문과 한시(漢詩)들이 게재되었으나, 다른 계몽 잡지의 표기법에 비해서는 한문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 『대한흥학보』 문학기사의 양이나 질이 다른 학회지에 비해서 확장되었으나 당대 발행되었던 국문체가 중심인 잡지 『소년』(1908.11~1911.5)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주목할 사항이다. 이광수의 작품도 『소년』에 게재된 작품들이 『대한흥학보』의 그것보다 다양하고 성취도가 높다.

학술을 목적으로 삼은 학회 기관지에서 문예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예정된 식민지 상황에서 국민국가의 구성요소인 과학의 수용에 더 이상 큰 수요를 느끼지 못한 방증일 수 있다. 과학은 일본어로 전달되어야만 하고 국어가 일본어가 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일본 유학생들은 깨닫고 있었을 터이다. 잡지가 문예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은 국가가 소멸한 시대의 『학지광』 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해제 : 임상석)

핵 심 어 대한흥학회, 조소앙, 일본 유학생, 문예 활동

참고문헌 이태훈,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자기인식과 계몽 논리」, 『한국사상사학』45, 2013.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9.
전은경, 「유학생 잡지 『대한흥학보』와 문학 독자의 형성」, 『국어국문학』169, 201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1913~1919

1913 새별
붉은저고리
아이들보이
1914 학지광
청춘
1917 반도시론
여자계
1918 유심
태서문예신보
1919 신청년
창조
삼광
서광

014 새별

새별
신문관
1913. 1~1915. 1. 14
서울대 중앙도서관

1913년 1월 창간되어 1915년 1월 폐간되기까지 통권 16호를 발행한 아동잡지이다. 발행인은 최창선(崔昌善), 발행소는 경성 신문관이다. 『새별』의 실질적 주재자는 최남선이었고, 이광수도 편집에 관여했다. 매월 1회, 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폐간호는 14일 발행되었다.

아동의 지식(교훈) 및 재미(유희)에 함께 초점을 맞춘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와 달리 『새별』은 문예란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테면 『새별』은 매호 「읽어리」란을 통해서 문예에 대한 강좌, 실제 작문의 예시, 작품 모집 및 작품평 등을 함께 게재하여 아동은 물론 부모 독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이로 인해 「읽어리」란은 당시 경향 각지의 사립학교에서 필수적인 참고서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읽어리」란(欄)(15~16호)은 근대적 편집체제를 취한 다른 곳과 달리, 그림·사진 같은 이미지 없이 국한문 혼용문으로 인쇄된 옛 서책 모양을 취하고 있다.

『새별』 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상단부에 큰 별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토끼를 세워둔 문양이 자리한다. 그 아래로 가운데가 뚫린 커다란 황금열쇠를 배치한 후 위쪽에는 제호 '새별'을 써넣고, 중앙의 빈 공간에는 학생모를 쓰고 교복 입은 두 학생의 전면과 측면을 그려 넣었다. 열쇠 좌우에 '신문관 발행'과 '서울 구리개'(현 을지로)를 적어 넣어 발행소와 발행지를 분명히 표시했으며, 표지 하단부에 발행호수를 기록했다.

다음은 현존하는 『새별』 15호(1914. 12)와 16호(1915. 1)의 구성과 내용이다. 목차 뒷면에 낯선 여러 종족·민족들의 풍속과 문화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지적 욕구를 자극했다. 『새별』의 첫 기사는 언제나 한샘(최남선)의 「굽은 다리 곁으로서」가 장식한 듯하다. 아동과 함께



15호 표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부모, 교사 독자를 배려한 태도겠는데, 깍듯한 존대어와 자상한 어조로 삶과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적인 이야기나 생각들을 들려준다. 매호 실린 또 다른 코너로는 세 컷의 만화와 더불어 해당 이야기를 제시하고 등장인물들의 다음 행위를 묻는 「다음 어찌」, 『아이들보이』에서 만났던 아동 계도용의 「웃음거리」가 있다.

이광수(외배)는 동화 「물나라의 배판」(15호)에서 바다 생물들의 갈등과 화해의 우화(寓話)를 들려줌으로써 아동들의 행동윤리와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또한 「과학 단화(短話)」(15호)를 통해 개미나 코끼리의 생태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하며, 창가(唱歌) 가사와 악곡의 동시적 제시를 통해 '게'의 모습과 움직임을 재미나게 묘사한다.


定價表
壹冊先金……六錢
六冊先金……壹拾四錢
拾貳冊先金……貳拾七錢
(地方에는郵稅每冊五厘)
大正三年十二月三日印刷
全 十二月五日發行 (每月壹次發行)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新文館
印刷所 新文館印出所
印刷人 崔昌善
印刷者 崔昌善
編輯人 崔昌善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振替口座京城六六四番)
本書無斷轉載

15호 판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한편 『새별』에는 동화 중심의 순문예물도 여러 편 실렸다. 당나라 장안의 임금을 조롱하는 「황제의 새 옷」(15호)은 서양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번안한 것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아동들에게 실질 숭상과 근검절약의 교훈을 전달했다. 「서국명화집(西國名話集)」(16호)은 서양의 유명동화 6편을 한꺼번에 읽히기 위한 것으로, 성냥팔이 소녀, 워싱턴 대통령, 윌리엄 텔 등의 이야기가 실렸다. 박지원의 「허생전」(16호)도 선택되었다. 노동·역작하지 않는 양반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나라의 아동들이 갖춰야 할 근로와 성실의 덕목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새별』은 한민족의 전통과 우수성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데도 힘썼다. '개천절'(15호)과 '한글창제기념일'(16호)에 대한 기사가 그것이다. 전자는 '대조선'의 찬란한 역사성을, 후자는 당대 민중 및 새 나라의 언어·문자적 기반을 이루는 한글의 위대성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새별』은 아동들의 글쓰기와 그에 대한 평가를 독립시킨 「읽어리」란(欄), 서양동화의 번역과 번안, 조선의 전통과 역사 관련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그럼으로써 아동들의 지식 함양과 표현 능력제고, 올바른 전통 이해와 주체적인 역사의식의 발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해제 : 최현식)

핵 심 어 아동잡지, 최남선, 이광수, 읽어리, 서양 동화, 조선의 역사와 전통

참고문헌 박숙경, 「신문관의 소년용 잡지가 한국 근대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015 붉은저고리

붉은져고리
신문관
1913.1.1~1913.6.15
신문박물관

1913년 1월 창간하여 1913년 6월 일제에 의해 강제폐간 되기까지, 매월 2회(1일·15일)씩 통권 12호(현재 11호까지 확보)가 발행되었다. 아동의 계몽과 교육에 초점을 맞춘 잡지로 학습보조 자료의 성격도 함께 지녔다. 잡지보다는 신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발행인은 '최남선(崔南善)', 발행처는 '경성 신문관(新文館)'이다. 『붉은 저고리』라는 제호는 상단부의 "공부거리와 놀이감의 화수분"(작은 글씨)과 하단부의 "붉은 저고리"(큰 글씨)를 두루마리 용지에 펼쳐놓은 형태로 제작되었다. 제호 둘레에는 흰 옷을 입은 힘센 소년이 좌우로 양손을 뻗쳐 두 마리 호랑이의 발을 들어주고 있는 판화를 배치했다. 최남선은 『소년』에서 일본인이 내세운 토끼에 맞서 호랑이를 조선 상징의 영물(靈物)로 내세웠는데, 『붉은 저고리』도 그 뜻을 잇고 있다. 최남선은 「인사 여쭙는 말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그림도 많이 가졌습니다. 공부거리와 놀잇감도 적지 아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보고 듣고 배우고 놀기에 도움될 것은 이것저것 다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과연 『붉은 저고리』에는 아이들의 지식 증대와 흥미 고취에 필요한 각종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유익한 위인전 및 우화 등을 세심하게 배치했다. 또한 사람 이름이나 몇몇 명사, 숫자 등을 제외하고는 한글전용의 문체를 사용하여 아동에 대한 배려와 민족어에 대한 사랑을 함께 표현했다.

『붉은 저고리』 창간호에는 '은진미륵' 이미지와 설명, 온달과 평강공주 삽화가 딸린 「바보 온달이」, 체력 신장을 유도하는 '줄넘기기' 그림, 이야기 「따님의 간 곳」, 사냥개의 사냥 장면을 담은 4컷 만화, 한샘(최남선)의 「깨우쳐 들일 말씀」('혼자 있을 때 조심'), 위인전에 해당하는


京城 新文館 發行
第壹年 第弐號
붉은저고리
옛줍는 말솜
바둑이

2호 1면. 신문박물관 소장

「이름난 이」(아이삭 뉴유톤), 동식물에 대한 소개란 「것 모리」('물범'), 아이들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소개하는 「의사 보기」('성냥개비 놀이') 등이 실렸다.

이런 구성 방법은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깨우쳐 들일 말씀」은 '버릇의 힘', '믿음', '마음을 바로 먹음', '나만 깨끗합시다', '남의 잘못', '때를 아낌', '거짓과 참' 등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과 습관 형성에 필요한 항목들을 제시했다. 「이름난 이」에서는 뉴턴 외에 나폴레옹, 셱스피어, 정몽주, 김시습, 워싱턴, 벤자민 플랭클린, 링컨 등이 초상화를 곁들여 소개되었다. 과학자 뉴턴과 문호(文豪) 셱스피어, 『자조론(自助論)』의 플랭클린을 제외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이들의 인성 개발에 도움이 될 주변 이야기로는 '바둑이', '눈 구경', '우리 오누이', '또범이', '첫 봄', '봄새 흔한 허물' 등이 수록되었다. 또한 온달, 솔거, 해명(유리왕의 태자) 등의 이야기가 실려, 조선 고대사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을 드높였다. 「것 모리」에서는 '주머니 쥐', '낙타', '비단 새', '티익', '코코 나무' 등 조선에서 볼 수 없는 동식물을 삽화와 함께 실음으로써 아이들의 과학 지식을 늘려주고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한편 4호부터는 『이솝우화』를 조선 실정에 맞게 번역·소개하는 한편 거기서 배워야 할 지혜와 교훈을 '풀이'라는 형식으로 꾸준히 담아냈다. 또한 손 그림자로 동물 모양을 흉내 내는 「그림자 그림」, '꽃'과 '별' 등을 담고 있는 복잡한 모양의 도형들을 주어진 선을 따라 그려가는 「그림 한 끝」 등을 통해 아이들의 지혜와 흥미를 함께 독려하기도 했다.

『붉은 저고리』는 아동들을 교육·계몽하기 위해 창간된 최초의 아동용 잡지다. 이를 위해 최남선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위인전(교훈)과 이야기(흥미), 과학 지식 향상과 지혜 계발의 놀이, 그를 위한 사실적 이미지와 방법의 제시, 아이들이 갖춰야 할 생활 관습과 태도 등을 쉽고 재미있는 한글전용 문체로 구성하였다. 이런 항목들은 아동잡지의 구색 갖추기를 넘어 식민지 현실에 맞서 아동의 인성 계발과 실력 함양을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해제 : 최현식)

핵 심 어 최남선, 아동 잡지, 계몽, 교육, 위인전, 이야기

참고문헌 박혜숙, 「한국 근대 아동문단의 민담 수집과 아동문학의 장르 인식」, 『동화와 번역』 제16호,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8.
서유리, 「한국 근대의 잡지 표지 이미지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3.
조은숙, 「1910년대 아동신문 『붉은 저고리』 연구」, 『근대문학연구』 제8호, 한국근대문학회, 2003.

016 아이들보이

아이들보이
신문관
1913. 9. 5~1914. 10. 5
아단문고

1913년 9월부터 1914년 10월까지 통권 13호가 발행되었다. 일제에 의해 두 달 전 강제 폐간된 『붉은 저고리』를 대체하기 위해 간행한 아동잡지이다.

발행인은 '최남선', 발행처는 '서울 신문관'이다. 표지화는 12호까지 동일한 형식의 총천연색 그림을 취했다. 무관 복색에 전립을 쓰고 활과 창으로 무장한 상태로 백마를 타고 있는 용맹스런 장수를 표지 전면에, 정면을 바라보는 호랑이 머리를 좌측 하단에 배치했다. 하지만 13호(폐간호)는 화려한 꽃무늬에 둘러싸인 서양 복색의 부인 곁에서 유아 5명이 노는 모습을 파란색으로 인쇄한 것을 표지화로 취했다. 『아이들보이』 역시 아동의 기호와 취향에 적합한 체제를 취했다. 미지의 세계와 자연을 소개하는 사진, 사람과 동식물들의 모양을 그린 그림본, 이야기 속 삽화 등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만한 이미지를 잡지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아이들의 흥미와 지혜 계발을 위한 「의사 보기」도 『붉은 저고리』에 이어 계속 실렸다.

인명(人名) 이외에는 한글전용 문체를 사용한 점, 어려운 한자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 쓴 점 등은 민족어의 주역으로 성장할 아동을 위한 배려에 속한다. 예컨대 『아이들보이』에서 '보이'는 '보다(覽)'에 명사형접미사 '이'를 붙여 '읽을거리'를 뜻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말이다. 이에 더해, 창간호부터 아동의 작문을 모으기 위해 「글꼬느기」 원고지를 첨부한 것, 6호 이후 'ㅎㅏㄴㄱㅡㄹ'란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가로의 한글 풀어쓰기를 예시한 것, 일상의 사물 옆에 한글과 한자를 엇갈리게 놓아 문해력(文解力) 향상을 도모한 「그림글 읽기」를 배치한 것 등도 최남선(한샘)의 민족어 보급과 근대화를 위한 남다른 노력을 충실하게 대변한다.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아이들보이』는 교훈이 되는 옛 이야기로 「흥부 놀부」, 「심청」, 「세 선비」, 「옷나거라 뚝딱」, 「나무꾼으로 신선」, 「남 잡이가 저 잡이」를 배치했다. 우애와 효, 선비의 도리, 약자 돕기 등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윤리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골라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새로이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이야기가 7·5조 창가(唱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본 6편은 매우 특이한 형태의 근대적 동화요(童話謠)로 명명되기도 한다.

최남선은 자연과학 지식을 통해 아동들이 사회에 크게 쓰이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되는 버러지들 이야기」(1~12호)를 빠짐없이 실었다. 연가시, 잠자리, 거미, 꿀벌, 누에, 뱀, 도마뱀, 지네, 가뢰(딱정벌레), 노래기, 더부살이 벌 등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버러지들'이 대상이다. 쓸모없어 보이는 '버러지들'의 효용성을 앞세움으로써 아동들이 겉모습을 뛰어넘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편 최남선은 서로 친분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웃음이나 부조리를 소개하는 「웃음거리」를 매호 실었다. 웃음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제대로 살펴보라는 의도로 파악된다. 『아이들보이』 첫 꼭지를 「계집아이 슬기」, 「날랜 이 여섯」, 「나무꾼의 딸」, 「거짓 아드님, 참 아드님」, 「일곱 동생」, 「수탉의 알」 등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다룬 서양동화를 골라 실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13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아이들보이』에서 가장 특이한 지면은 잡지 내부에 따로 배치된 「아이들 신문」(5호~12호)일 것이다. 2~3쪽 지면에 아이들 계도용 '말씀', 세간의 소식을 전하는 '전보',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소문', 아동의 올바른 행동과 습관을 유도하는 '이야기'를 실었다. 신문의 형식을 빌려 아동의 훈육과 계몽에 필요한 가치와 내용들을 '핵심요약'의 형태로 제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해제 : 최현식)

핵 심 어 『붉은 저고리』의 승계, 최남선, 아동문학, 한글, 그림, 동화요

참고문헌 권혁준, 「『아이들보이』」의 아동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박진영, 「해제 : 어린이 잡지 『아이들보이』의 총목차와 폐간호」, 『민족문학사연구』 제42호, 민족문학사학회, 2010.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최기숙, 「'신대한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 생태학—『소년』과 『아이들보이』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6호, 상허학회, 2006.

017 학지광

學之光

동양각, 학지광발행소, 학지광사

1914. 4. 2~1930. 12. 27

아단문고

1914년 4월 창간되어 1930년 12월 통권30호까지 발행된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의 기관지이다. 1914~1921년에 총22호 정도 발간되었는데, 이때가 『학지광』의 전성기였다. 이후 일제의 압수나 발매금지 때문에 휴·복간을 거듭하다 1927년 3월호(28호)를 펴낸 후 장기 휴간에 돌입했다. 결국 1930년 4월 29호('갱생호')를 낸 뒤 1930년 12월, 3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최팔용·신익희·장덕수·박석윤·최원순 등이 차례로 편집 겸 발행인으로 활약했다. 발행소는 도쿄 우시코메(牛込)에 위치한 '학지광발행소', 인쇄소는 도쿄 긴자(銀座)에 위치한 '복음(福音)인쇄합자회사 도쿄지점'이었다. 초기의 표지는 상단부 : 에스페란토어 'LUX SCIENTIAE', 중앙 : 세로글씨 '学之光', 하단부 : 발행호수('제1권') 및 발행단체('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발행')로 구성되었다.

한편 기관지 말미에 '투고(投稿) 주의'란을 통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고 재료 언론 학술 문예 진담(珍談) 기타(단 시사(時事) 정담(政談)은 불수(不受))", "사자(寫字) 주의 정해서(正楷書) 언문정음(諺文正音)", "기한 매우(每偶) 수월(數月) 십오일까지" 등이 그것이다.

『학지광』은 문학사에서 동인지 『창조』『폐허』 등에 앞서 조선 근대문학의 요람이자 문인 배출의 온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주요한은 1916년 3월 발표된 김여제의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8호)을 "그 정조, 사상, 감정이 새롭고 형식에 이르러도 고대의 격을 타파한 자유시였다"라고 1920년대의 『조선문단』에서 고평했다. 또한 최소월의 「벨지엄의 용사」(4호), 김억의 「야반(夜半)」 외 2편(5호), 현상윤의 산문시 「비오는 저녁」(5호), 이광수의 장시 「극웅행(極熊行)」(14호), 김형원의 「작은 돌의 노래」(21호), 현상윤의 소설 「청류벽(淸流壁)」


學之光
(非賣品)
第二號

2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10호)과 진학문의 소설 「부르짖음」(12호) 등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에 공헌한 작품들, 염상섭의 수필 「지는 꽃잎을 밟으며」와 나도향의 수필 「병상의 봄비」, 그 후속세대 김동명의 시 「황혼의 노래」, 이효석의 시 「야시(夜市)」 외 2편, 이태준의 「묘지에서」 외 1편, 마해송의 희곡 「겨울의 불꽃」(이상 27호),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걸식(乞食)」(4호), 안드레프의 「외국인」(6호)과 체호프의 「사진첩」(10호) 같은 번역소설의 게재도 『학지광』의 몫이었다. 안확의 『조선의 문학』(6호), 김동인의 「소설에 대한 조선사람의 사상을」(18호) 등도 조선문학의 역사와 정체성, 가능성과 한계를 구명하는 소중한 평론이었다.


大正三年四月十八日印刷
大正三年四月二十日發行
(非賣品)
編輯人 東京市本郷區弓町二十九番地 金 榮 燮
印刷人 東京市本郷區弓町二十九番地 金 重 英
發行所 東京市本郷區弓町二十九番地 東 洋 圖
印刷所 東京市神田區錦町三丁目一番地 秀英舍印刷合資會社東京支店

2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학지광』은 논설과 수필을 통해 유학생과 조선인이 취해야 할 새로운 태도와 시각 등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가령 송진우의 「사상개혁론」(5호)은 공교(孔敎) 타파와 국수(國粹) 발휘, 가족제 타파와 개인 자립, 강제 연애의 타파와 자유 연애의 고취, 허영교육의 타파와 실리 교육의 실시 등을 주장했다. 현상윤은 「강력주의와 조선청년」(6호)을 통해 무용(武勇)적 정신, 과학적 보급, 산업혁명 등에 바탕한 강력주의를 주창했다. 전영택 「전적 생활론」(12호)에서 '톨스토이의 인도주의'와 '니체의 초인주의', '스틸나의 개인주의' 등을 현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책으로 소개했다. 이광수는 「천재야! 천재야!」 및 「혼인에 대한 관견(管見)」(12호), 「졸업생 제군에게 드리는 간고(懇告)」(13호), 「숙명적 인생관에서 자력적 인생관」(17호) 등의 논설을 통해 '민족개조론'에 관련된 부정적 요소들, 이를테면 조혼, 강제혼인, 관존민비(官尊民卑), 남존여비, 양반상놈의 계급사상, 비위생적인 가옥, 의복제도 등의 '악습속'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더불어 문명론에 기댄 새로운 생활양식의 수립을 적극 호소했다.

『학지광』은 재일조선유학생의 친목 도모 및 상호 부조를 위한 기관지로 출발했으며 식민지 조선의 개량과 발전을 위한 논설 및 문학 작품 발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럼으로써 근대문학의 파종과 전파, 조선 개혁과 발전에 관한 날카로운 쟁론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조선개조론'에서는 전통 사상과 이념, 생활과 관습의 혁파를 넘어, 사회주의 사상과 노동운동에 입각한 변혁론까지 제기될 정도였다.(해제 : 최현식)



종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핵 심 어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사상 개혁론, 조선 개조론, 강력주의

참고문헌 구인모, 「『학지광』 문학론의 미학주의」, 동국대 석사논문, 1999.

김동식, 「진화·후진성·1차 세계대전—『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7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신지연, 「『학지광』에 나타난 심미적 문장의 형성 과정」, 『민족문화연구』 제40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양문규, 「1910년대 유학생 잡지와 한국근대소설의 형성—『학지광』의 담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제3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이경훈, 「『학지광』의 매체적 특성과 일본의 영향1—『학지광』의 주변」, 『대동문화연구』 제48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018 청춘

青春

신문관

1914.10.1~1918.9.26

국립중앙도서관

1914년 10월 창간되어 1918년 9월 통권15호로 종간된 대중적 계몽지다. 『청춘』 역시 일제가 정한 국시(國是) 위반의 혐의로 정간(6호) 및 발행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최창선, 인쇄자는 최성우(崔誠愚), 인쇄 및 발행소는 경성 신문관이었다. 『소년』과 마찬가지로 최남선이 주재자였으며, 이광수, 현상윤, 진학문 등이 주요필자로 활약했다. 표지는 전면(全面)에 흰 옷을 걸치고 꽃을 쥔 늠름한 청년이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를 데리고 서 있는 모습을, 좌측에 세로글씨로 '靑春'과 발행호수를, 우측하단부에 '경성 신문관 발행'을 배치했다. 육당은 창간사에서 "다 같이 배웁시다 더욱 배우며 더 배웁시다"라고 주장하는바, 청년과 호랑이, 꽃의 이미지는 '배움'이 문과 무, 인문과 예술과 과학, 학문과 실용 전 분야에 걸쳐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서두에 세계 각지의 자연 및 문화 명소를 사진 자료로 꾸준히 게재하여 독자들의 호기심 충족과 상상력 계발에 일조했다.

『청춘』은 전통의 계승과 재해석에 충실하여, 고전문학 소개와 한시·시조의 현대적 개량에 힘을 쏟았다. 전자로 「표해가(漂海歌)」, 「호남가」, 「팔도가」, 박지원의 「연암외전」, 임백호의 「수성지(愁城誌)」, 이퇴계, 유성룡, 조광조, 서경덕 등의 「언행록」을 들 수 있다. 옛 시가의 개량으로, 육당은 「붓」, 「내속」, 「부여 가는 이에게」, 「여름길」 등의 현대시조와 「자명종」, 「비차(飛車)」 등의 한시를, 춘원은 「님 나신 날」, 「원단(元旦)의 걸인」, 「궁한 선비」 등의 현대시조를 발표했다.

『청춘』은 한국 근대문학과 서양 근대소설 발표의 장이기도 했다. 『소년』 광고에 실렸던 장편 창가 「세계일주가」(창간호), 이상협의 「재봉춘(再逢春)」, 현상윤의 「광야」와 「핍박」, 이광수의 「김경(金鏡)」,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방황」, 「윤광호」 등은 우리 근대문학을 대표한다.

이 상황은 문예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를 위해 시·시조·한시·잡가·신체시가·보통문·단편소설 등을 '현상모집'한 『청춘』의 의도와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청춘』은 '세계문학개관'(1호~9호)이라는 고정란을 두어 서구 소설을 꾸준히 번역 소개함으로써 우리 근대소설의 현재와 미래를 객관적으로 조명했다. 위고의 「너 참 불상타(레미제라블)」, 톨스토이의 「갱생(부활)」, 밀턴의 「실락원」, 세르반테스의 「돈기호전기(돈키호테)」, 초서의 「캔터베리기」, 모파상의 「더러운 면포(麵包)」 등이 그것이다.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육당은 장지연, 주시경 등과 함께 '조선광문회'를 조직하여 고문헌의 보존과 반포 및 민족문화의 선양을 꾀했다. 한편 육당은 창간호 서두의 논설 「지성(至誠)」을 통해 지성·신념·실행력 등을 겸비한 '사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덕·정치·외교·저술 등의 백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선 최고의 인물을 가려 뽑은 「오백년간 대표 일백인」은 그 '사람'에 관련된 위대한 선인들의 목록이다. 단군 및 부여 시절 한민족의 역사를 '민족적 자각'의 관점에서 탐구한 「계고차존(稽古箚存)」, "역대 인물을 전형하야 현시(現時) 관직에 안배한" 「조선역대기인비관(朝鮮歷代其人備官)」(이상 14호) 역시 육당의 민족의식과 전통계승 욕망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청춘』은 식민지 현실을 반성하는 한편 청년들의 각성을 유도할 목적으로 「동정(同情)」, 「아관(我觀)」, 「냉매열평(冷罵熱評)」, 「편견과 누습을 버리라」, 「재물론」, 「노력론」, 「용기론」, 「귀천론(貴賤論)」, 「풍기(風氣)혁신론」, 「자녀중심론」 등과 같은 육당과 춘원의 논설을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청춘』은 '신대한' 건설을 '대조선'의 계승으로 전환해가던 최남선의 사상과, '문사(文士)'로서 '소설 창작'과 '민족개조론'을 동시에 추구해가던 이광수의 사상 및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물론 자주독립을 괄호 친 문화민족주의의 경향이 역력하다는 한계 역시 뚜렷하다. 그러나 조선의 전통과 미래를 문예와 역사의 탐문, 사회현실에 대한 냉철한 응시, 발전된 자연과학의 수용, 조선청년의 실력 양성과 윤리 함양을 통해 새롭게 제시하고 입안하는 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해제 : 최현식)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 심 어 고전문학, 현대시조, 민족주의, 세계주의, 비판정신

참고문헌 류시현, 『최남선 연구』, 역사비평사, 2009.

윤영실, 「최남선의 수신(修身) 담론과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소년』, 『청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2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이경현, 「『청춘』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문학」, 『한국문화』 제43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 4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근대서지학회 소장

019 반도시론

半島時論
반도시론사
1917.4.10~1919.4.10
국립중앙도서관

『반도시론』은 일본 동경의 반도시론사가 한글로 발행한 월간 시사종합지로, 1917년 4월에 창간되어 1919년 4월에 통권 25호로 종간되었다.

『반도시론』의 판권장에 따르면, 편집 겸 발행인은 우에노 마사키치(上野政吉), 인쇄인은 아베 세츠지(阿部隲治), 인쇄소는 동경 국문사(國文社), 발행소는 반도시론사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우편으로 주문하여 받아 볼 수 있었다. 반도시론사의 사장은 다케우치 로쿠노스케(竹內錄之助)로서, 『반도시론』을 내기에 앞서 서울에서 신문사(新文社)를 경영하면서 잡지 『신문계(新文界)』(1913.4~1917.3)를 발행했던 인물이다. 한글로 인쇄된 『신문계』는 한일병합 이후 일본 식민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반도시론』도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기본적으로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했고, 필자에 따라 한문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다.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반도시론』의 창간호는 본문이 124면에 이르고 여기에 조선의 자연풍경과 총독부 관료의 사진이 별도의 화보로 첨부되어 있다. 재정적으로 윤택할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와 정치적 연관성을 지닌 잡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창간호에 실린 반도시론사 사장 다케우치의 논설 「반도시론의 발간과 오인(吾人)의 주의(主義)」는 이 잡지의 창간사에 해당하는 글이다. "今日天地에 半島同胞도 名義上이나 實行上에 堂々ᄒᆞᆫ 帝國臣民이라"는 구절이 보여주듯, 『반도시론』은 '제국신민의 양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잡지이다. 이러한 발간 의도 측면에서 『반도시론』에 실린 글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총독부측의 정책, 규범, 인사의 이동 등을 독자에게 안내·지시하는 글들이다. 이미 창간호에서부터 하세가와 총독에 대한 환영사인 「장곡천신총독(長谷川新總督)을 영(迎)ᄒᆞᆷ」이나, 총독의 훈시를 전달하는 「도장관(道長官)에 대(對)ᄒᆞᆫ 총독훈시(總督訓示)」, 날짜별로 총독부의 일정을 소개한 「경성일지(京城日誌)」 등의 글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종류는 조선에 관한 정보를 관찰·수집하여 식민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글들이다. 조선의 역사, 공업, 교육, 실업, 금융, 범죄 유형, 부랑자 및 실업자 문제, 청년실업 상태, 유망한 산업의 유형 등 주제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세목이 분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도시론』은 창간호부터 「지방통신」란을 두어 경성 이외의 지역 정보도 수집하였는데, 이는 제4호(1917.8)에 이르러 약 일 년 간 「조선 13도 일대 조사」라는 기획 하에 서선(西鮮), 금강산, 경상남북, 충남 등의 특집 취재기를 싣는 것으로 본격화되었다. 문예란은 백대진, 최찬식 등 『반도시론』의 기자로 일했던 문인들이 주도했는데, 그 제재는 사회부랑자의 통제라든가 신여성의 행실 비판처럼 잡지에서 사회적 문제로 언급한 사안들을 재활용하는 수준이었다. 『반도시론』의 문예란은 작품들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이 잡지의 주요 독자층, 즉 총독부의 동화 정책에 호응했던 조선인 집단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도시론』의 기사나 문예류를 막론하고, 기성세대의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구습에 저항하는 부랑청년이나 신여성 등은 비난의 대상이자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일종의 독자 투고란이라 할 「금성옥음(金聲玉音)」에서는 "朝鮮의 下流輩들이 所謂 人權平等을 내세워 무리하게 上流人士를 凌辱"한다는 호소를 들을 수 있다. 구습에 저항하거나 기존 체제를 위협할 자질을 지닌 인물들, 즉 부랑청년, 여성, 빈민 등은 동화정책을 펴는 총독부나 조선의 지배층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이는 거꾸로 『반도시론』이 조선의 보수적인 지배층을 독자로 포섭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반도시론』은 제국신민 양성의 지침에 따라 총독부와 조선의 보수적인 지배층의 관점에서 조선의 현실과 전망을 담아낸 잡지라 할 수 있다.(해제 : 정주아)

핵 심 어 관변잡지, 동경 일본인 발행, 국한문혼용, 제국신민 양성, 부랑청년·여성·빈민 비판

참고문헌 우미영, 「'조선일주'의 정치성과 식민 정보원의 글쓰기」, 『어문연구』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이경훈, 「『학지광』의 매체적 특성과 일본의 영향1— 『학지광』의 주변」, 『대동문화연구』4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20 여자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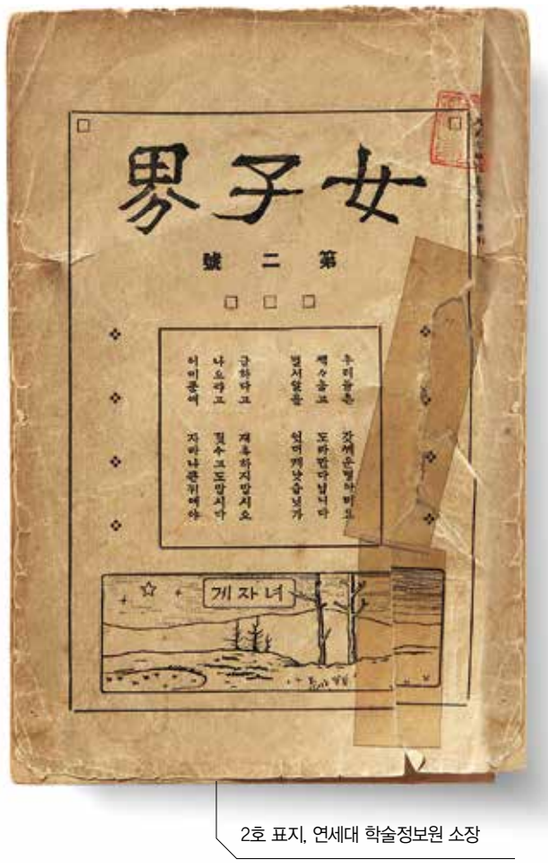
女子界
여자계사
1917. 6~미상
연세대 학술정보원

『여자계』는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의 기관지로, 창간 및 종간호의 전모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잡지이다. 1917년 6월에 평양 숭의여자중학교 동창회 잡지부원들이 당국의 인가를 받아 '6월 말일'에 창간호를 발행한 정황이 있으나, 잡지 실물이 전하지 않아 정확한 일자는 확인할 수가 없다. 제2호부터는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가 잡지의 경영 및 편집을 주관하였는데, 현재 발행 여부가 확실한 제호는 2호(1918. 3), 3호(1918. 9), 4호(1920. 3), 5호(1920. 6), 6호(1921. 1), 속간4호(1927. 1) 등이다. 제7호 및 기타 속간호의 발간 여부라든가 실물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2호의 판권장에는 편집 겸 발행인 김덕성(金德成), 인쇄소는 요코하마의 복음인쇄주식회사, 발행소는 동경 여자계사 등으로 기입되어 있다.

『여자계』가 동경여자유학생들의 잡지로 그 명맥을 유지했다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제2호는 사실상의 창간호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편집부는 편집부장 김덕성, 편집부원 허영숙, 황애시덕, 나혜석, 편집 찬조 전영택, 이광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동경 유학 중이던 전영택과 이광수는 문필 활동의 경험을 살려 여학생들의 잡지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성 문인을 찬조자 혹은 필자로 초빙하는 체제는 『여자계』 제4호에 이르면 여성 유학생들만으로 잡지를 편집 및 발간하는 체제로 바뀐다. 피보호자로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화되었던 탓이다. 제2호의 표지에는 신생 잡지로서의 입장을 담아낸 짧은 시를 적고, 그 아래에는 황량한 들판에 홀로 떠 있는 별을 그려 넣었다. 시의 내용은 "우리들은 갓 ㅅ개운병아리요", "급하다고 재촉하지맙시오"라는 구절로 요약되는데, 섣불리 성과를 다짐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잡지를 키워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삽화는 장차

조선 여성계의 척박한 현실을 비추는 별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듯하다.

제2호의 필자로는 여성 유학생들, 편집 찬조를 맡았던 전영택이나 이광수, 외부 필자로 초빙된 염상섭이나 최남선 등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그 활동이 두드러진 인물은 추호(秋湖) 전영택이다. 그는 제2호에 사설인 「각성의 신춘」과 논설인 「가정제도를 개혁하라」, 여행 에세이인 「동경에서 부산까지」 등 3편의 글을 실었다. 사설에서 전영택은 외모 가꾸기와 돈을 좇는 행태를 꾸짖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방향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수행과제로 교육문제, 사회개량, 사회구제 등을 들었다. 사설을 통해 전영택은 장차 『여자계』가 나아갈 방향을 지정하려 한 것이다.


女子界
第二號
게자녀

2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그러나 재동경 여자유학생 친목회의 기관지 노릇을 했던 만큼, 『여자계』의 본령은 여성유학생들의 일상과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여자계』 제2호에는 김덕성, 허영숙, 나혜석의 졸업 소식이 나온다. 이 기사는 "諸氏의 卒業은 果然 우리 歷史以後의 처음"이고 이들이 "업든 女子界를 創造하실 建設者"들이라며 축하를 보낸다. 교사 김덕성이라든가, 의사 허영숙, 예술가 나혜석 등은 사실상 한국 여성 지식인의 첫 세대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신여성'은 여러 갈등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는데, 정월(晶月) 나혜석이 『여자계』 제2호에 수록한 단편소설 「경희」는 이들 여성유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압축해서 제시했다. 이 소설은 부모의 강요로 결혼을 하고 '구여성'들의 세계 속에 섞이게 된 주인공 경희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 구습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주장한 결과 여성 유학생들에게는 항상 편견과 질시의 시선이 따라다녔다. 때문에 『여자계』는 한국의 여성 지식인 첫 세대에게 쏟아졌던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와 기대를 안고 봉건 사회에 진입해야 했던 여성들의 의지 및 부담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잡지라 할 수 있다. (해제 : 정주아)


大正七年三月十一日納本
大正七年三月卅二日發行
（定價拾八錢、郵稅二錢）
女子界第二號
編輯發行兼人 東京本鄉區彌生町第一物產會 金德成
印刷人 橫濱市根岸町三千二百五十七番地 折坂友之
印刷所 橫濱市山下町百〇四番地 福音印刷合資會社
發行所 東京本鄉區眞砂町二十五、女子界社

2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핵 심 어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 여성해방잡지, 가정개혁론, 여성소설

참고문헌 이경수, 「1910~20년대 재일본 조선유학생 친목학회지에 나타난 신여성 담론 : 『학지광』과 『여자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3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이혜진, 「『여자계』연구 : 여성 필자의 근대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21 유심

惟心
유심사
1918.9.1~1918.12.1
국립중앙도서관

『유심』은 만해 한용운이 발행한 대중적 불교잡지로, 1918년 9월에 창간되어 그 해 12월에 통권 3호로 종간되었다.

『유심』은, 설악산 오세암에 은거하면서 보다 대중적인 불교의 교리를 구하던 한용운이 깨달음을 얻은 뒤 서울 종로구 계동 43번지에 한옥을 얻어 '유심사(惟心社)'라 이름하고 홀로 만들어낸 잡지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잡지 판권장에는 발행소는 유심사, 인쇄소는 신문관(新文館), 편집 겸 발행인은 한용운이라 표기되어 있다. 잡지의 표지에는 굵고 강직한 느낌을 주는 붓글씨로 잡지의 이름을 써 넣었고, 별 다른 장식은 하지 않았다.

한용운은 '만해(萬海, 卍海)', '주관(主管)', '오세인(五歲人)', '계동산인(桂東山人)' 등 다양한 필명으로 권두언을 비롯하여 시, 논설, 에세이 등을 실었다. 외부 필자로는 최린, 최남선, 유근, 이능화, 현상윤, 이광종, 김남천, 박한영, 권상로 등이 있다. 천도교계 인사인 최린이라든가, 대종교계 인사인 유근, 한때 대종교에 관계했던 최남선 등의 이름을 참고해보면, 외부 필자들은 불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종교운동을 민족계몽운동으로 연결하는 데 관심을 두던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최남선은 『유심』이 인쇄된 신문관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유심』의 체재는 권두언, 필자들의 글, 수상총화, 현상문예 공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상총화는 동서양의 명저나 명사들이 남긴 유익한 격언을 모아서 소개하였다. 잡지의 마지막 장에는 빠짐없이 현상문예 공고를 실었다. 보통문, 단편소설, 신체시가, 한시 등 고전문학과 신문학을 골고루 모집하였다. 종간호인 제3호를 보면 소파 방정환이 'ㅈㅎ生'이라는 이름으로 투고하여 단편소설 부문에서 「苦學生」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되어 상금 일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유심』의 발간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한용운이 써낸 권두언과 대표 논설들이다. 한용운은 홀로 잡지를 운영했었던 만큼 권두언을 지속적으로 담당했다. 창간호 권두언인 「처음에 씀」에서는 "千萬의 障碍를 打破ᄒᆞ고 大洋에 到着ᄒᆞᄂᆞᆫ 得意의 波ᄅᆞᆯ"보라고 적었다. 이후 권두언에서도 한용운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창간호에 실린 한용운의 시 「심(心)」이나 논설들은 잡지를 펴낸 한용운의 의도와 당시 그가 잡지를 통해 펼치고자 했던 사상의 윤곽을 보여준다. 가령 "心은 何時라도 何事何物에라도 心自體뿐이니라/心은 絕對며 自由며 萬能이니라"는 「심」의 일절은, 일이든 사물이든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마음에 달렸다는 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조선청년과 수양」이라든가, 무기명으로 실렸지만 한용운의 글임이 분명한 「마(魔)ᄂᆞᆫ 자조물(自造物)이라」(2호), 「자아를 해탈ᄒᆞ라」(3호) 등의 논설은 「심」이 지향하는 메시지가 바로 위기에 놓인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구상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글에서 한용운은 문명화가 조선의 나아갈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각종 폐단을 낳는 물질문명을 좇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양을 통해 정신문명을 건설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유심』에 글을 기고한 필자들도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조선청년이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정신적 태도 등을 적었는데, 최남선은 남의 동정을 받는 약자가 되지 말고 세계의 주인공인 강자가 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심』은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식민지 시기 한국의 종교계가 민족계몽운동에 관심을 쏟았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물질문명의 건설을 좇기 쉬운 과도기에 정신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균형 감각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잡지라 할 수 있다. (해제 : 정주아)

핵 심 어 대중적 불교잡지, 한용운, 정신문명, 고전문학과 신문학의 병용, 강자론

참고문헌 고재석, 「한국근대불교와 문학의 상관성」, 『민족문화연구』4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김상일, 「근대 불교지성과 불교잡지」, 『한국어문학연구』5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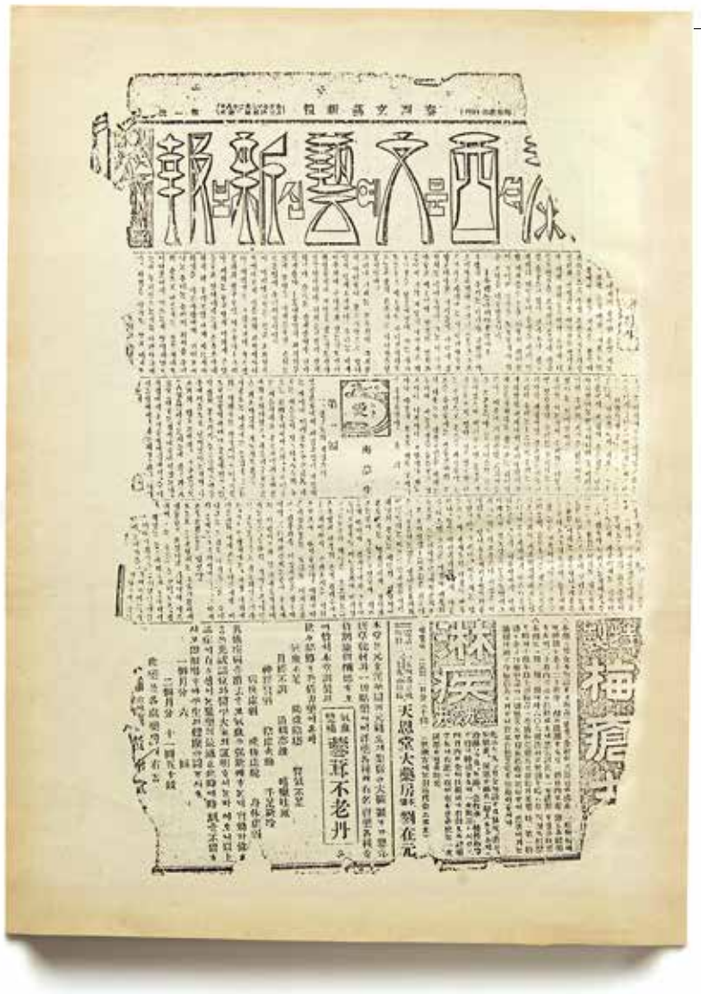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22 태서문예신보

泰西文藝新報
미상
1918.9.26~1919.2.17
국립중앙도서관

『태서문예신보』는 1918년 9월 26일자로 창간되어 1919년 2월 17일까지 통권 16호를 내고 종간된 주간 문예잡지이다.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매주 간행되었다. 발행인은 윤치호, 주간 겸 편집인은 장두철이었다. 『태서문예신보』가 종간된 것은 편집인 장두철이 3·1운동에 참여하고 상해로 망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보는 저 태셔의 유명한 쇼설·시됴·××·가곡·음악·미슐·각본 등 일반 문예에 관한 기사를 문학 대가의붓으로 즉접 본문으로붓터충실하게 번역하야 발힝할목젹이온 바……"라는 창간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번역을 통해 서구의 문예를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창간된 잡지였다.

『태서문예신보』는 매호 권두에 사설을 실었고, 창작시·번역시·창작소설·번안소설을 비롯하여 외국 문학이론·국내 문단 사정 등을 실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준시전문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받아왔다. 김억과 황석우는 『태서문예신보』를 주도한 필자였는데, 특히 김억의 번역시와 시론은 한국 근대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번역시들은 훗날 한국 최초의 번역 시집인 『오뇌의 무도』에 수록되었다. 『태서문예신보』의 주요 필진이었던 김억과 황석우의 시는 서구 문예사조와 근대시의 영향을 받아 서정적 미의식의 자각과 자유시의 운율에 대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특히 김억의 「프란스 시단」(10호, 11호), 「쏘로굽의 인생관」(9호부터 14호에 걸쳐 연재), 투르게네프와 베를렌의 시를 중심으로 한 번역시, 「봄은 간다」 등의 창작시, 시론의 성격을 지니는 「시형의 음률과 호흡」 등은 근대 문학사에서 김억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태서문예신보』를 대표하는 문학사적 성과로 주목받았다.



창간호 표지(영인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태서문예신보』는 매호 첫 면에 사설을 싣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1호에서는 별다른 사설의 표기 없이 「창간의사」에 이어서 '우리는아러야ᄒᆞ겟다'라는 소제목을 붙여 사설임을 드러낸 반면 2호부터는 '사설'이라고 명시하면서 사설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을 달았다. 3호부터는 '사설'을 뜻하는 영어 'editorial'을 국문으로 '에듸토리일'로 표기하면서 부제로 '대아(大我)'를 달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사설에서부터 자아의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 『태서문예신보』의 사설은 대체로 인생의 문제를 '행복 찾기' 혹은 '행복에 이르는 길'로 비유하거나 '행복'의 수사를 동원해 설명하는 특징을 보인다.

주요 필진으로는 김억, 황석우 외에도 편집인 장두철과 백대진, 최영택, 이일 등이 있었다. 장두철은 이 잡지를 주재하면서 몇 편의 시와 소설을 남겼으며 해몽(海夢)생·HM 등의 필명으로 많은 기사를 썼다. 이후 『신천지』의 발행인이 된 백대진은 「최근의 태서문단」을 비롯한 해외시를 소개했다.

1920년대 한국시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태서문예신보』에는 비문예적인 기사들도 많이 실렸다. 비문예적인 기사들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태서문예신보』의 근대성은 계몽주의가 기획한 근대성과 근대예술의 근대성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서문예신보』의 계몽성과 낭만성은 근대성이라는 가치에 의해 평면화되는 배치를 보여준다. (해제 : 이경수)

핵 심 어 주간 문예잡지, 서양문학의 번역, 김억, 황석우, 근대성

참고문헌 김행숙, 「『태서문예신보』에 나타난 근대성의 두 가지 층위」, 『국어문학』36, 국어문학회, 2001.1.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정한모, 『한국 현대시 문학사』, 일지사, 197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최호영, 「『태서문예신보』에 나타난 자아 탐색과 '대아(大我)'의 의미지평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5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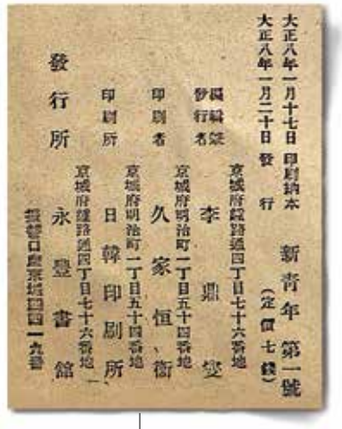
023 신청년

新靑年
영풍서관, 경성청년구락부
1919. 1. 20 ~ 1921. 7. 15
아단문고

『신청년』은 1919년 1월에 창간되어 1921년 7월에 통권 6호로 종간된 문예동인지이다. 창간을 주도한 인물은 방정환, 이중각, 유광렬 등이다. 이 중 방정환은 1917년 민족운동에 뜻을 둔 청년들을 모아 경성청년구락부를 조직했고 잡지 운영도 전담하였다. 창간 당시 편집 겸 발행자는 이정섭, 인쇄인은 쿠게 츠네에(久家恒衛), 인쇄소는 일한인쇄소, 발행소는 영풍서관이었다. 『신청년』 제3호(1920. 8)부터는 발행소가 경성청년구락부로, 제4호(1921. 1)부터는 발행인이 최승일로 바뀌었다. 잡지 운영을 둘러싸고 이러한 변동이 생긴 것은, 삼일운동 이후 방정환이 유학을 떠나고 이중각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등 주요 구성원들의 신변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배재학당에 재학 중이던 최승일이 『신청년』의 발행을 맡게 되었고, 나도향이나 박영희 등 배재학당 문우들이 참여하게 된다. 여전히 경성청년구락부를 발행소로 표기했으나 실상은



창간호 표지(영인본), 아단문고 소장


大正八年一月十七日 印刷納本
大正八年一月二十日 發 行
新靑年 第一號
(定價七錢)
編輯兼發行者 京城府鐘路通四丁目十七番地 李 鼎 燮
印刷者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五十四番地 久家恒衛
印刷所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五十四番地 日韓印刷所
發行所 京城府鐘路通四丁目十七番地 永豊書館
振替口座京城四一九番
창간호 판권지(영인본), 아단문고 소장

배재학당 문우지에 가깝게 성격이 변화하였다. 잡지 판형도 창간호부터 제3호까지는 타블로이드판형에 다단 편집을 하고 있으나, 제4호부터는 신국판형 일반 문예잡지의 편집 형태와 유사해진다. 방정환, 이중각을 비롯한 초창기 필진들이 모두 사라지고, 제4호 이후에는 박영희, 나도향, 황석우 등 낯익은 문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나 순문예지의 체제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 잡지 경영에 부담을 느낀 최승일은 나도향과 박영희를 통해, 배재학당의 『신청년』과 휘문의숙이 발간하던 『문우』의 연합을 제안하게 된다. 이 연합은 결국 문학동인지 『백조』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신청년』의 경우 문헌상으로 종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움에도, 현재까지 발굴된 최종호인 제6호(1921.7)를 종간호라 보는 것은 『신청년』 및 『백조』를 둘러싼 이러한 정황에 근거를 둔 것이다.

창간 당시의 『신청년』은 소설, 시, 수필 등 문예의 형식을 차용하여 시국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학생들의 글을 수록했다. 잡지의 창간사는 만해 한용운으로부터 받았다.

한용운은 "방아머리 ᄭᅡ치져고리 櫻桃갓흔 어린입설로 天眞爛漫ᄒᆞ게 부르ᄂᆞᆫ 너이노릭"라 하여 이 잡지가 학생들이 주도한 잡지라는 점을 적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黑暗의 寂寞을 ᄭᅦ치ᄂᆞᆫ 무슨 노릭의 初聲"이 되리라는 기대와 격려를 표현했다. 잡지의 창간을 주도한 인물이었던 만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방정환은 소파(小波), 소파생, 잔물, SP생 등의 필명으로 가장 많은 글을 기고한 필자이다. "가을밤의 어두움 / 漸々깁허가는침묵 / 그中에 눈쓰인다"(소파생, 「암야」, 1호)는 구절은 청년구락부를 조직하고 잡지를 창간하던 당시의 암울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훗날 의열단 활동에 투신한 이중각은 "나ᄂᆞᆫ 나니라/나박긔나가업스며 나아닌나도업나니라"고 자아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그럼으로 나죽난 데남이代身치못ᄒᆞ며 나홀닐을남이ᄒᆞ지못ᄒᆞᆷ은正ᄒᆞᆫ理致니라"라고 하여(1호) 청년들의 주인의식과 실천의지를 강조하였다. 제2호의 편집후기라 할 「편집실에셔」에는 창간호 발행 후

열흘이 못 되어 잡지가 매진되었다는 언급이 있어, 『신청년』이 주독자층인 청년들에게 환영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창간 초기의 『신청년』이 종합잡지로서 청년들의 민족의식과 현실 감각의 고양을 촉구했다면, 문예지로 전환한 후기 『신청년』은 결과적으로 『백조』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여타 잡지와 구분되는 『신청년』의 본령은 경성청년구락부의 기관지로서 청년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신청년』은 삼일운동을 전후하여 국내 청년층이 보여주었던 현실 인식과 사회 참여에의 열망을 보여주는 잡지이다. (해제 : 정주아)

핵 심 어 경성청년구락부, 삼일운동, 학생잡지, 방정환, 최승일, 시대의식

참고문헌 정우택, 「『문우』에서 『백조』까지: 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한기형, 「근대잡지 『신청년』과 경성청년구락부 - 『신청년』연구」, 『서지학보』, 한국서지학회, 2002.



근대서지학회 소장

024 창조

創造

창조사

1919. 2. 1~1921. 5. 30

아단문고

『창조』는 1919년 2월 1일자로 창간되어 통권 9호인 1921년 5월 30일자로 종간된 한국 최초의 문학동인지이다.

『창조』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주요한, 인쇄인은 무라오카 헤이기치(村岡平吉)였으며, 인쇄소는 복음인쇄합자회사, 발행소는 창조사, 판매소는 서울 동양서원·평양 기독서원·광명서관이었고 책값은 30전이었다. 2호의 편집 겸 발행인도 주요한이지만 인쇄인은 '折坂友之'로 바뀌었다. 인쇄소와 발행소는 그대로고, 대리부로 태서문예신보사(경성부 낙원동 254번지)가 추가되었다. 『창조』 3호의 발행 겸 편집인은 김환으로 바뀌었다. 『창조』는 2·8독립선언이 나오기 직전에 당시 일본 유학생이던 김동인·주요한·전영택 등이 중심이 되어 도쿄에서 편집, 요코하마에서 인쇄 발간했다. 발행일자는 1919년 2월 1일로 박혀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1월 20일쯤 나왔다.

『창조』 창간호는 재단하지 않고 접은 채로 제본하여, 읽는 사람이 페이퍼 나이프로 손수 가르면서 펼쳐보는 이른바 '프랑스장(裝)'으로 멋을 부렸다. 창간호는 A5판(국판) 84면으로 되어 있고, 목차는 표지에다 나열했다. 창간호에는 주요한의 시 「불노리」, 최승만(極熊)의 희곡 「황혼」, 김환(白岳)의 소설 「신비의 막」, 전영택(長春)의 소설 「혜선의 사」, 김동인의 소설 「약한자의 슬픔」, 주요한(벌꼿)의 「일본근대시초(1)」 등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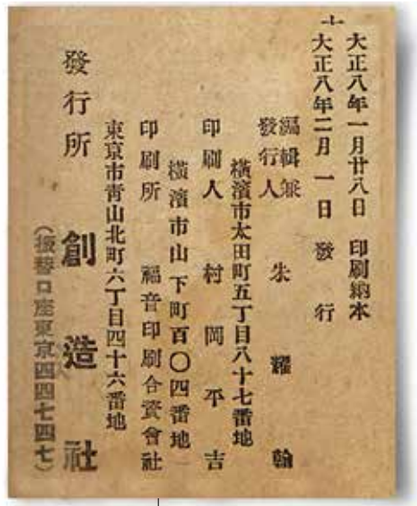
『창조』의 창간 동인으로는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 김환, 최승만이 있었고, 2호부터는 이광수, 3호부터는 이일, 박석윤이 동인으로 추가되었다. 이후에도 7호부터 오천석, 8호부터 김관호, 김억, 김찬영, 9호부터 임장화 등이 동인으로 추가되어 모두 13명이 『창조』의 동인으로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활동하였다.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1969 : 203)에서는 창조의 실질적인 동인으로 김동인·주요한·전영택을 들면서 그 중에서도 『창조』의 문학적인 성격을 대표한 작가로 김동인을 꼽고 있다.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은 모두 평양 출신의 작가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창간호에는 자유시의 출발점을 열어준 주요한의 「불노리」가 실려 있는데, 대동강을 배경으로 물과 불의 이미지가 낭만적으로 펼쳐지고 변사조의 리듬이 산문적으로 구현된 이 시는 근대 자유시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김춘식(2003 : 146~147)에 따르면 주요한의 자유시는 그가 『창조』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문화적 민족주의, 교양주의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창간호에서 주요한은 「일본근대시초(1)」를 통해 일본의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시단을 로맨티시즘 시대와 심볼리즘 시대로 나누고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오기쿠」 등을 비롯한 이 시기의 주요 작품들을 번역·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신여성의 비극적 운명을 그린 전영택의 소설 「혜선의 사」, 신여성의 심리 묘사를 통해 비극적 운명을 그린 김동인의 「약한자의 슬픔」 등이 창간호에 발표되었다. 『창조』 2호에는 전영택의 소설 「천치? 천재?」, 3호에는 김동인의 소설 「마음이 여튼자여」가 발표되었다. 『창조』 5호에는 김소월의 「낭인의봄」, 「야의우적」, 「오과의 읍」, 「그리워」, 「춘강」 등이 실렸다.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창조』는 일반적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최남선, 이광수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적 성격의 문학을 극복하고 완전한 구어체의 문장을 쓰면서 현대 문학사조의 새로운 영역인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문학을 개척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된다. 계몽의 시대를 지나 자기표현의 글쓰기가 요구되었던 시대에 한국 최초의 문학동인지 『창조』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성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제 : 이경수)

핵 심 어 문학동인지, 김동인, 주요한, 서북출신문인, 전영택, 평양, 사실주의, 예술지상주의

참고문헌 김춘식,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동국대 박사논문, 2003.
김행숙,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3.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최현희, 「『창조』지에 나타난 '자아'와 '사랑'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15, 한국현대문학회, 2004.6.

025 삼광

三光
삼광사
1919. 2. 10 ~ 1920. 4. 15
연세대 학술정보원

『삼광』은 1919년 2월에 창간하여 1920년 4월에 제2권 제1호(통권 3호)로 종간된 종합예술잡지로, 조선유학생악우회(朝鮮留學生樂友會)가 일본의 동경에서 발행하였다.

편집 및 발행인은 홍영후(洪永厚, 홍난파(洪蘭坡))였고, 발행소는 삼광사, 인쇄소는 일본 동경 소재의 국문사(國文社)에 두었다. 판매소는 경성 소재의 광익서관(廣益書館)이었다. 조선유학생악우회가 발행 주체로 표기되어 있으나 『삼광』은 사실상 홍난파가 주도한 잡지라고 할 수 있다. 창간 당시 동경음악학교에 재학 중이던 홍난파 이외에 시인 황석우, 극작가이자 아동문학가인 유지영 등이 참여했다. 표지에는 '三光'이라는 잡지명을 붉은색 붓글씨로 써넣어 주목도를 높였고, 그 아래에는 바그너(Wagner)라든가 구노(Gounod) 같은 유명 음악가의 초상화를 인쇄해 넣었다.

창간 당시 음악 잡지에 가까웠던 『삼광』은 종간호에 이르면 문학잡지에 가까워진다. 창간호의 「편집여언」에 따르면 당초 『삼광』은 음악, 미술, 문학 등을 아우르는 '순예술잡지'를 표방했었다. 편집 및 발행을 담당했던 홍난파가 음악에 관련된 논설과 에세이를, 시인 황석우는 '상아탑(象牙塔)'이라는 필명으로 시를 투고했다. 홍난파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번역하여 연재하기도 했다. 유지영은 '팔극원(八克園)'이라는 필명으로 산문과 각본을 썼다. 종간호인 3호에는 염상섭이 본명과 '제월'(霽月)이라는 필명으로 시평(時評)과 소설을 기고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맞아 조선민족에게는 정치적인 '외적 해방' 이외에 '내적 해방'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염상섭의 시평인 「이중해방」이라든가, '춘양생(春陽生)'이라는 필자가 쓴 「마-크스와 엔겔스의 소전(小傳)」이 수록된 것을 보면 당대의 사상적 흐름을 반영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편집여언」에는 검열로 미처 싣지 못한 글이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도 찾아 볼 수 있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그러나 『삼광』이 특별한 잡지로 자리매김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한국 최초로 음악 위주의 예술잡지를 표방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는 당시 동경음악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홍난파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홍난파는 본명인 홍영후를 비롯하여 난파, 난파생, YH생, ㅎㅇㅎ, 도레미생, ㄷㄹㅁ, 도레미(都禮美) 등의 필명으로 여러 편의 글을 실었다. 홍난파는 창간호에 실린 전체 글 중 창간사와 편집여언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의 글을 직접 썼다. 홍난파의 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훗날 사학자가 된 이병도가 쓴 축사, 상아탑 황석우의 시, 팔극원 유지영의 산문과 각본 각 한 편씩에 불과하다. 홍난파는 「창간의 사(辭)」에서 악우회(樂友會)를 조직하고 잡지를 창간한 의의가 "頹敗한舊習과 固陋한思想을打破하고 새精神, 새思想, 훌늉한欲望, 偉大한野心을 집어느아야 할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때 음악은 "思想의 變遷期"의 실력양성과 신문화 도입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그는 음악개론에 해당하는 「음악이란 하(何)오」, '지(智)'와 '정(情)'의 조화로운 발전을 주장하는 논설인 「인문발달의 삼대시기」, 음악을 주제로 한 각국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음악상의 신지식」 등 여러 가지 글을 발표했다. 단지 예술을 즐기자는 차원이 아니라 독자를 향한 학문적인 지식의 보급이라는 태도로 음악에 접근했다는


大正八年一月三日印刷
大正八年二月十日發行
禁轉載
本誌定價 金貳拾錢
郵稅 貳錢
編輯兼發行人 東京市神田區三崎町三ノ一 洪永厚
印刷人 東京市京橋區第十區町十五番地 阿部藹治
印刷所 東京市京橋區第十區町十五番地 東京國文社
發行所 東京市牛込區通寺町十 三光社
發賣所 京城龍山三丁目 廣益書館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것이 홍난파의 『삼광』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질의응답란'을 만들어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박자, 음색, 오페라 등 생소한 음악 용어를 풀이해 준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삼광』은 문학, 음악, 미술 등으로 예술잡지의 영역을 확장했으나, 문학이든 음악이든 일단 민족적 실력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생각해야 했던 식민치하 예술인의 고뇌를 보여준 잡지이다. (해제 : 정주아)

핵 심 어 조선유학생악우회, 음악잡지 표방, 신문화론, 실력양성론

참고문헌
노춘기, 「잡지 『삼광』 소재 시와 시론 연구」, 『비평문학』 42, 한국비평문학회, 2011.

서은경, 『1910년대 유학생 잡지와 근대소설의 전개과정 : 「학지광」, 「여자계」, 「삼광」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11.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26 서광

曙光
문흥사
1919.11.30~1921.1.18
연세대 학술정보원

『서광』은 문흥사가 발행한 종합학술지로, 1919년 11월에 창간하여 1921년 1월까지 통권 8호로 종간되었다. 발행처인 문흥사는 3·1운동의 문화적 열기 속에서 이병조가 설립했다.

『서광』 창간호의 판권란을 보면, 편집인 장응진, 발행인 이병조, 인쇄인 김중환, 인쇄소는 조선복음 인쇄소로 되어있다. 편집인이자 주필 장응진은 당시 휘문고보 학감이었고, 신종석이 편집 실무를 담당했다. 창간호의 표지는 머리에 왕관을 쓴 청년이 횃불과 장검을 들고 있는데, 그 청년의 뒤편에서 빛이 쏟아지는 이미지로 되어 있다. 『서광』의 필진은 이돈화, 박달성, 이병도, 황석우, 홍영우, 이일, 이종숙, 나혜석, 홍사용, 박종화, 노자영 등이었다. 이 필자들은 각각 『개벽』, 『삼광』과 『중앙시단』, 그리고 『백조』 등 1920년대 초기 한국 잡지 매체의 담당자들이었다.

『서광』의 내용이나 편집체제를 살피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창간호부터 『서광』의 주요 의제가 청년 담론임을 알 수 있다. 「신시대를 환영함」, 「조선청년의 무거운 짐」(1호), 「현대청년의 가치」, 「청년의 자각을 절규함」(2호), 「우리의 행복과 책임을 논하여써 청년동무에게 고함」(4호) 등의 제목이 그 증거이다. 둘째, 편집체제는 크게 논설과 문예로 나눌 수 있는데, 논설은 사회와 진보, 학문의 본질, 결혼이나 가정 문제, 농촌문제, 자연과학 상식,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셋째, 문예면에는 한시, 수필, 시, 소설 등이 실렸는데, 외국문학 관련 소식도 간간히 보인다. 특히 『서광』의 7호에는 박종화, 노자영, 김동인 등의 이름이 보인다.

『서광』의 창간호 목차나 편집인 장응진의 직업을 고려할 때, 잡지 『서광』은 휘문고보 인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행인 장응진은 당시 휘문고보 학감이었고, 임경재는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휘문고보 교장이었다. 또한 휘문고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단체 '문우회' 회원들이 이 잡지의 필진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문우회는 함성부, 학예부, 운동부, 서무부 등의 하부 기관을 두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문우회는 백일장을 개최하기도 하고 일본 문인 야나기 무네요시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문우회의 하부 조직 중에서 학예부가 문예 및 회보 편집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정백, 홍사용, 박종화, 정지용 등이 학예부를 담당했는데, 이들은 1920년대 전반기의 문학이나 사상 운동의 주역이었다. 정백은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자 가운데 하나였고, 홍사용과 박종화는 낭만주의 문학 운동의 핵심 매체였던 『백조』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정지용은 일본 유학 이후 돌아와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를 개척했고 수많은 후배 시인들을 발굴했다.

여기서 정백, 홍사용, 박종화 등의 매체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휘문고보 재학시절 이들은 안석주, 김장환, 송종현 등과 함께 등사판 회람잡지 『피는 꽃』을 함께 만든 적이 있다. 이 잡지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터뜨렸던 것으로, 박종화의 회고에 따르면 이러한 체험이 『백조』 창간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흥사와 잡지 『서광』은 문학적 열정은 가득하지만 아직 미숙했던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문학을 창작하고 또 발표했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잡지 『서광』은 청년들의 등사판 회람잡지 체험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면서도 전문적인 문예동인지 『백조』의 등장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했던 것이다. 3·1 운동 이후 새로운 문화적 욕구와 청년들의 문학적 열정을 실현시킨 잡지 매체로서, 『서광』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해제 : 이원동)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핵 심 어 휘문고보, 문흥사, 문우회

참고문헌 박종화, 『여가는 흐르는데 청산은 말이 없네』, 삼경출판사, 1979.
이경돈, 「동인지 『문우』와 다점적 혼종의 문학」, 『상허학보』 28, 2010.
정우택, 「『문우』에서 『백조』까지 — 매체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7집, 2009.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1920~1924



1920 개벽
폐허 / 폐허이후
1921 장미촌
1922 백조
조선지광
1923 어린이
신여성
금성
1924 영대
조선문단





027 개벽

開闢
개벽사
1920. 6. 25 ~ 1949. 3. 25
국립중앙도서관

『개벽』은 천도교청년회 발행으로 1920년 6월 창간되어 1926년 8월 강제 폐간되기까지 72호를 발간한 종합잡지이다. 그 후 1934년 11월, 1946년 1월 두 차례나 복간되어 통권 85호까지 간행되었다.

『개벽』의 창간 동인은 이돈화, 이두성, 박달성, 민영순, 차상찬, 김기전 등이었고, 창간 당시 편집인은 이돈화, 발행인은 이두성, 인쇄인은 민영순, 인쇄소는 신문관, 발행소는 개벽사였다. 창간호의 표지는 조선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지구 위에서 힘차게 표현하는 그림으로, 신문화운동을 바탕으로 조선인을 계몽하고자 했던 『개벽』의 이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신문지법에 의해서 발행된 『개벽』은 일제당국의 검열 정책으로 인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잡지 자체가 발매금지 당하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 그럴 때마다 『개벽』의 담당자들은 권두언이나 편집후기 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거나 항의했고 호외호와 임시호를 수시로 발행함으로써 이에 맞섰다.



창간 호외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개벽』은 안정적인 편집 체제와 전국적인 분배 체계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6년 동안 결호 없이 평균 8천부의 판매부수를 올렸던 대중적 잡지이자 1920년대 한국 최대의 종합잡지였다. 이는 천도교 계통의 인맥과 자금, 그리고 조직력으로 『개벽』이 운영되었지만, 잡지의 내용이나 체재가 천도교 사상의 전파만이 아니라 조선 문화의 전면적인 개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창간호부터 『개벽』은 권두언과 사설 등을 통해서 종교 사상은 물론 교육문제, 농촌문제, 사회문제 등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상을 소개하고 다양한 시사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개벽』은 독자투고, 지방통신란, 전래동화모집, 조선 1도호의 발간 등 다양한 기획을 마련해서 잡지의 대중화에 성공했다.



창간 호외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와 같이 『개벽』 필진의 개방성과 편집 기획의 체계성은 『개벽』 문예면에도 영향을 끼쳤다. 『개벽』의 문예면은 다양한 계통 출신의 소설가, 시인들을 아울렀다.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의 주역이었던 동인지 매체 『창조』, 『폐허』, 그리고 『백조』 출신의 작가 염상섭, 김동인, 박종화, 나도향, 현진건 등에게 지면을 제공했다. 이로써 『개벽』의 문학은 양식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동인지 중심의 문학을 넘어설 수 있었다. 또한 『개벽』은 창간호부터 문예부장을 두었고, '독자교정란, 현상문예, 독자문예, 신춘문예호, 해외문단특집' 등 다양한 기획을 마련했다. 이는 『개벽』의 문예지면이 독자와의 교류는 물론, 신인 발굴, 해외문학 소개 등의 역할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23년 이후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사회주의 경향의 문인 김기진, 박영희, 이기영, 조명희, 이익상 등의 문학 비평이나 작품이 『개벽』에 실리기도 했다. 문학사에서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의 문학론과 작품들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던 자연주의 문학의 내부적 분화로 이어졌다.

이후 1920년대 한국 문단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논쟁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요컨대, 『개벽』은 한국에서 계급 문학, 혹은 사회주의 문학의 출발점이 된 매체였다.



근대서지학회 소장

이처럼『개벽』은 천도교 계통의 잡지였지만 그 이상의 문화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개벽』의 문학은 다양한 양식과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동인지 중심의 문학을 넘어섰고, 또한 초기 사회주의 문학의 산실로서 사회적 현실과 문학의 관계를 탐구하는 장이었다. 이는 193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전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저변이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해제 : 이원동)

핵 심 어 천도교, 종합잡지, 리얼리즘, 개벽사상, 프로문학

참고문헌 최덕교,『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최수일,『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028 폐허 / 폐허이후

廢墟 / 廢墟以後

폐허사, 신반도사 / 폐허이후사

1920.7.25~1921.1.20 / 1924.1.1

서울대 중앙도서관 / 아단문고

『폐허』는 1920년 7월 창간된 문학동인지로서, 1921년 1월 통권 2호로 폐간되었다.『폐허이후』는 1924년 1월, 한국 근대문인들의 첫조직 〈조선문인회〉와 관련된 문예잡지이다. 당대의 다른 잡지와 비교했을 때,『폐허』와『폐허이후』의 창간호 표지는 별다른 장식이나 기호 없이, 표제인 '폐허, 폐허이후'가 한층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강렬한 인상을 준다.



창간호 표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창간호의 편집은 김억과 황석우가 맡았고, 편집 겸 발행인은 발행 자금을 전담했던 광익서관의 고경상이었다.『폐허』의 창간 동인은 김억, 김영환, 김원주, 김찬영, 나혜석, 남궁벽, 민태원, 염상섭, 오상순, 이병수, 이혁노, 황석우 등 12명으로서, 문인들뿐만 아니라 사학자, 미술가, 신문기자 등도『폐허』의 동인이었다.『폐허』의 제호는 독일 시인 실러의 "옛것은 멸하고 시대는 변하였다. 새생명은 폐허로부터 온다"는 시구에서 따온 말이다. 이로써 폐허파의 사상적 성격과 문학적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그것은 낡은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는 아나키즘 사상이었고, 낭만주의, 이상주의, 상징주의 등의 예술적 지향이었다. 소설가 염상섭이 창간사 「폐허에 서서」를 썼지만, 황석우, 오상순, 남궁벽, 김억 등 한국 근대시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시인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황석우는 시편 「석양은 꺼지다」를 발표했고, 「일본 시단의 2대 경향」이라는 평문도 발표했다. 그리고 김억은 「베를렌시초」를 번역해서 실었다. 『폐허』 2호는 편집인 남궁벽, 발행인 이병조, 발행소는 신반도사로 바뀌면서, 내용 구성도 달라진다. 오상순의 「종교와 예술」 등 평론과 함께, 여러 동인들이 베를렌, 메테르링크, 예이츠, 플로베르 등을 다룬 글을 실었다. 주목할 글은 초창기 염상섭의 예술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저수하에서」이다. 『폐허』는 『창조』, 『백조』 등과 함께, 1920년대 초반기 '동인지 문학' 시대를 만들어낸 잡지로서, 그 의의가 크다. 동인지 문학은 주로 일본 유학생 출신의 문인들이 만든 전문 문예잡지로서, 서구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상과 문예 사조를 소개하고 또 한국적으로 소화함으로써, 한국 근대문학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한편 『폐허이후』는 염상섭이 주재하여 만든 문예잡지로, 편집인 염상섭, 발행인 아놀드, 인쇄인 김병익, 인쇄소 대동인쇄 주식회사, 발행소 폐허이후사, 총발매소 중앙서림으로 되어 있다. 시나


『폐허이후』 표지, 아단문고 소장



『폐허이후』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소설 작품은 물론 외국문학 소개나 평론도 실었던 『폐허』와 달리, 『폐허이후』는 염상섭의 소설 「잊을 수 없는 사람」, 김정진의 희곡 「기적불 때」, 현진건의 소설 「그리운 흘긴 눈」 등이 실려 있다. 이 밖에, 오상순, 홍명희, 주요한, 최남선, 변영로, 현진건, 김명순, 김억 등의 소설, 시, 시조, 번역소설 등이 실려있다. 염상섭이 주재한 잡지이자 표제 때문에, 『폐허이후』는 동인지 『폐허』의 후신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폐허 이후』는 1922년 12월, 한국 근대문인들의 첫 번째 조직 〈조선문인회〉와 그 기관지 『르네상스』(1923.4.)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문인회〉는 이병도, 염상섭, 오상순, 황석우, 변영로 등이 참가했고, 장차 외국 동지와 교섭이 있을 것이므로 '조선'이라는 두 글자를 붙였다고 한다. 조선문인회는 기관지 『르네상스』를 내고, 이후 『폐허 이후』를 발간한 것 말고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 조선문인협회는 한국 최초의 문인조직으로서 문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익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생활상 문예운동을 통해서 '최선의 사상을 창출하고 민중을 교화하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띤 조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폐허』와 『폐허이후』는 1920년대 전반기 한국의 근대문학이 형성되고 조직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잡지들은 3·1 운동 이후 만개했던 새로운 사회를 향한 개조 운동의 구체적인 매개체가 되면서 청년과 지식인들의 문화적 표현 욕구를 담아냈다. 특히, 『폐허』는 『창조』와 『백조』 등 1920년대 전반기 동인지 문학 세대의 대표적인 잡지 매체였다. (해제 : 이원동)

핵 심 어 동인지 문학, 조선문인회, 염상섭, 신문화운동

참고문헌 박헌호, 「염상섭과 '조선문인회'」, 『한국문학연구』 43집, 2012.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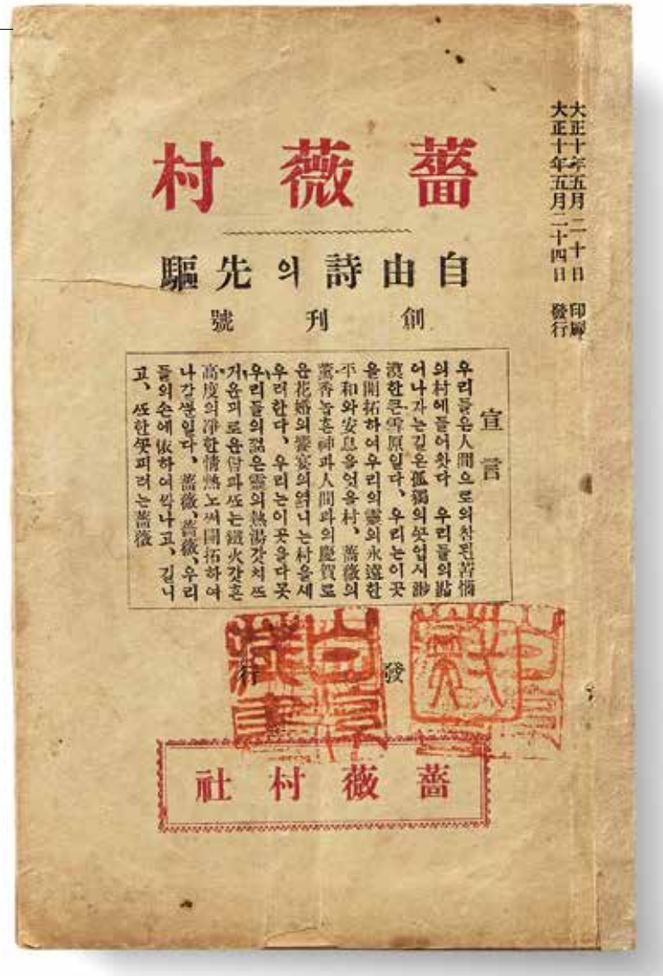
029 장미촌

薔薇村
장미촌사
1921. 5. 24
아단문고

『장미촌』은 1921년 5월 24일 창간되어 한 호만을 내고 종간된 최초의 시 전문 잡지이다. 장미촌사(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99)에서 A5판 25면으로 발행되었다. 장미촌 동인으로는 변영로, 황석우, 정태신, 신태악, 노자영, 박영희, 박종화, 박인덕, 이홍, 이훈, 오상순 등 11명이 있다. 단, 오상순은 동인에 가입을 했으나 작품은 발표하지 않았다. 『장미촌』에는 시 전문지답게 변영로의 「장미촌」과 정태신의 「최후의 고향」이라는 산문을 제외하고 모든 동인의 시가 실려 있다. 『장미촌』의 표지에는 「자유시의 선구」라는 부제를 내걸고 「선언」이라는 권두사가 적혀 있다. 낭만주의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장미촌』의 「선언」은 한국 현대문학 동인지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진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미촌』의 편집인은 황석우이고 발행인은 변영서였다. 『장미촌』이 한 호만을 내고 종간된 이유는 재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황석우의 와세다 대학 수학에 따른 일본 유학 그리고 동인들이 바라는 지속적인 지향점과 목표의 혼미와 아울러 집단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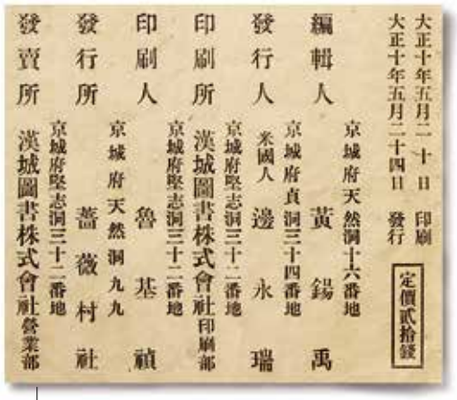
『장미촌』에는 황석우의 「장미촌의 향연」, 「장미촌의 제일일의 여명」, 신태악의 「생과사」, 「초첨」, 노자영의 「픠어오는 장미」, 「밤하날」, 박영희의 「적의 비곡」, 「과거의왕국」, 박종화의 「우유빗거리」, 「오뇌의청춘」, 박인덕의 번역시 「콜넘버스」, 이홍의 「신월의야곡」, 이훈의 「춘」 등과 같이 13편이 수록되어 있다. 변영로의 산문 「장미촌」은 단결, 조직, 도덕 등을 부정하고 정신, 영혼 등을 긍정하면서 장미촌이라는 이상향을 상정하였다. 한편 주요 필진인 황석우는 정열과 이지와 탐구심으로 이상향을 찾아 나가자고 외쳤다. 그는 「장미촌의 향연」에서 "孤獨은 나의 情熱의佛土, 나는 그우에 한적은 薔薇村을 세우려한다. 그러하여 나는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스사로그村의 王이되려한다"라고 말하며 '장미촌'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피력했다. 노자영은 「픠어오는 장미」에서 장미의 표면적 이미지를 그리는 데 힘쓰면서 장미와 시적 자아의 합일을 모색하였다. 박영희는 「과거의 왕국」에서 '장미촌'과 같은 미래의 이상향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미촌』에 실린 작품들의 제목을 보면 황석우, 변영로, 박종화, 노자영 등의 작품은 낭만주의적이고 정태신, 신태악, 박영희, 이홍의 작품은 퇴폐적 또는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을 보면 황석우, 변영로, 박종화의 작품도 상징주의적이며 퇴폐적인


大正十年五月二十日 印刷
大正十年五月二十四日 發行
定價貳拾錢
編輯人 京城府天然洞十六番地 黃錫禹
發行人 京城府貞洞三十四番地 美國人 邊永瑞
印刷所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印刷部
印刷人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魯基禎
發行所 京城府天然洞九九 薔薇村社
發賣所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營業部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장미촌』도 1920년대 문예지들이 지닌 결함과 혼잡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황석우는 기성과 신인을 막론하고 후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일본 상징주의 시에 심취하여 그것들을 번역하였는데, 그의 시에 나타난 분위기나 어휘가 상당 부분 일본의 상징주의 시와 일치함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장미촌』의 동인들을 '비전문 문인'으로 파악하면서 이들의 시에 아나키즘, 생명주의, 신비주의가 상징주의와 혼동된 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장미촌』은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어 그 결실을 보지는 못했으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신인 발굴을 시도했다는 점, 『태서문예신보』, 『폐허』와 『백조』를 잇는 교량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적 의의가 있다. 『장미촌』은 1호로 종간되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모였던 많은 문인들은 다시 제각각의 세계를 키우면서 다음 세대의 문단의 주류로 성장하게 되었다. (해제 : 이경수)

핵 심 어 퇴폐, 황석우, 데카당스, 변영로, 상징주의

참고문헌 이기철, 「장미촌 연구」, 『민족문화논총』 5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정진석, 「『장미촌』지 연구」, 『새국어교육』 3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1983.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조영복, 「『장미촌』의 비전문 문인들의 성격과 시 사상」, 『한국문화』 26권,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0.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30 백조

白潮
문화사
1922.1.9~1923.9.6
연세대 학술정보원

『백조』는 배재학당과 휘문의숙 출신의 문학청년들이 모여서 발행한 문학동인지로, 1922년 1월에 창간되어 1923년 9월에 통권 3호로 종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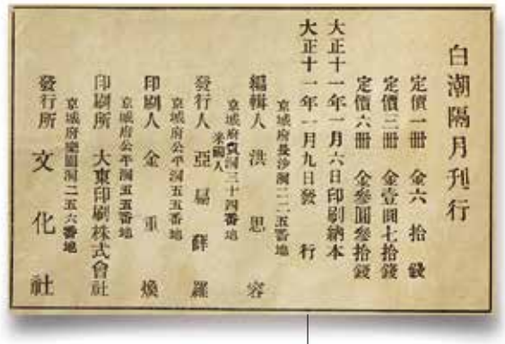
『백조』의 창간동인은 나도향, 박영희, 박종화, 최승일, 현진건, 홍사용, 이상화, 김기진, 노자영, 안석주, 오천석 등이다. 휘문의숙 출신의 박종화와 홍사용, 배재학당 출신의 나도향과 박영희 등이 최초에 잡지 창간을 제안한 당사자들로 알려져 있다. 창간 당시 편집인은 홍사용, 발행인은 미국인 아펜젤러(亞扁薛羅), 인쇄소는 대동인쇄주식회사, 발행소는 문화사였다. 본래 격월간 간행을 목표로 했으나 통권 3호를 낸 후 종간되었는데, 제2호(1922. 5)의 발행인은 '뽀이스' 부인, 제3호(1923. 9)의 발행인은 '훼루훼로' 등으로 변경된 것이 눈에 띈다.

제2호의 「육호잡기(六號雜記)」는 '출판의 자유가 없어' 발행인을 맡아줄 외국인을 찾아다녀야 하고 이 때문에 잡지 간행이 늦어진다는 사정을 털어놓고 있다. 잡지 간행에 필요한 자금은 김덕기와 홍사중이 담당했고, 본래 문예잡지로 기획된 『백조』 말고도 사상잡지인 『흑조(黑潮)』도 함께 내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한다. 잡지의 표지는 백조의 동인이자 미술가였던 안석주와 원세하가 그렸다. 창간호의 잡지 표지에는 청자 무늬 테두리 배경 안에 전통복식을 입고 생각에 잠긴 여성이 그려져 있다. 한편 속표지에는 나신(裸身)으로 바닷가에 앉아 있는 여인의 뒷모습과 이 여성을 내려다보는 아기천사의 삽화를 배치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린 삽화와 서구적인 분위기의 삽화를 균형 있게 배치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백조』의 동인이었던 박종화는 훗날 '백조시대'를 회상하면서, 이 잡지를 관통하는 사조는 '낭만'이며,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 환경과 삼일운동 뒤의 절망이 낭만, 상징, 데카당스 등의 사조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홍사용, 박종화, 박영희, 이상화 등은 시대고(時代苦)에서 비롯된 우울, 고뇌, 퇴폐 등의 정념을 숨김없이 표현한 작가들이다. "엇지노! 이를엇지노 아-엇지노! 어머니젓을 만지는 듯한 달콤한 비애가 안개처럼이어린넉슬 휩싸들으니…… 심술스러운 응석을 숨길수업서 똣안이한 우름을 소리처움이다"(홍사용, 「백조는 흐르는데 별하나 나하나」, 1호)라든가,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疲困하야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트기전으로, 水蜜桃의네가슴에, 이슬이맷도록달려오느라"(이상화, 「나의 침실로」, 3호) 같은 구절은 『백조』의 우울하고 퇴폐적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그러나 뚜렷한 개성을 지닌 동인들의 잡지였던 만큼 『백조』에는 다만 낭만주의로는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다. 가난한 청년이 여자 이발사의 미소를 이성적 호감이라 착각한 나머지 수중의 돈을 탕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나도향의 「여이발사」, 할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모여든 자손들이 윤리적 의무와 당면한 생계를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을 그린 현진건의 「할머니의죽음」 등은 개인의 내면을 파고들면서도 사회적 현실을 놓치지 않은 수작들이다. 특히 『백조』 제3호부터 동인으로 합류한 김기진은 "스트라익크가 禍가 되어서 집업시된 사람들의 눈물/主權者에게 反抗한 勇士의 부르지즘"(「한개의 불빗」)을 노래하는 시를 쓰고, "世紀末的近代病者가 知識階級의 太半이 넘는다"(「떨어지는 조각조각」)라며 감성으로 충만한 '백조' 동인들을 '세기말적 근대병자'라고 비판한다. 김기진의 시와 산문은 장차 박영희와 함께 투신하게 될 계급문학의 맹아를 담고 있다. 『백조』는 직정적인 감정의 표출부터 현실의 반영 및 변혁 의지에 이르기까지, 삼일운동 이후 한국 사회가 배태했던 문학적 상상력의 너비를 보여주는 잡지라 할 수 있다. (해제 : 정주아)

핵 심 어 문학동인지, 삼일운동, 낭만주의, 세기말적 근대병자, 계급문학의 맹아

참고문헌 박헌호, 「'낭만', 한국 근대문학사의 은폐된 주체」, 『한국학연구』2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31 조선지광

朝鮮之光
조선지광사
1922.11.1~1932. 2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지광』은 조선지광사가 발행한 종합학술문예지로 1922년 11월 창간되어 1932년 2월에 종간되었다. 창간 당시부터 2호까지는 월간, 3호부터 60호까지는 판형을 바꾸고 주간지로 전환했던 『조선지광』은 61호부터 다시 월간지로 전환하면서 100호까지 간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지광』의 이념적 변화를 반영한다. 『조선지광』의 초창기 필진들은 민족사상을 고취하고자 했지만 후반기 필진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자 했다.

『조선지광』의 창간호 판권란을 살피면, 편집 겸 발행인 장도빈, 인쇄인 양명수, 인쇄소 한성도서 주식회사, 발행소 조선지광사로 되어 있다. 『조선지광』 창간호의 표지는 웅장한 산과 나무가 차지하고 있어서, 조선민족의 기상을 잘 보여준다. 조선지광사의 '주의주장'에는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조선 민족의 교육과 식산, 협동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조선 사상계의 중심이 되는 명사를 망라한다고 하면서, 주간 장도빈, 집필 강매, 장응진, 선우전 등을 거론했다. 이로써 『조선지광』의 전반기 담당자들이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였음이 드러난다.

이후 1924년 5월, 『조선지광』의 편집 겸 발행인이 김동혁으로 바뀌면서 잡지의 성격도 달라졌다. 김동혁은 신간회 경성지회 간사로서, 이후 조선공산당의 프랙션활동을 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조선지광』이 판형을 변경하고, 다시 월간지 체제로 전환된 61호(1925년 10월)부터 사회주의 사상의 색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시기의 『조선지광』의 편집 체제는 크게 학술과 지식 담론, 그리고 문예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조선지광』의 학술 담론은 유물론과 관념론을 둘러싼 철학 논쟁,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경제발달사 등 사회과학적 지식들,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리고 국제 사회주의 운동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 기사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당대의 수준 높은 학술 담론과 사상 논쟁이 『조선지광』의 지면을 매개로 이루어 졌는데, 그 때문에 당대의 일부 독자들로부터 잡지가 너무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선지광』의 문예면은 김기진, 박영희, 조명희, 이기영, 한설야 등 사회주의 문인 단체 카프 계열 작가들의 비평이나 문학 작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용 형식 논쟁, 예술 대중화 논쟁 등 카프의 주요 논쟁과 관련된 비평문들이 실렸고, 조명희의 「낙동강」 등 카프 작가들의 기념비적인 작품들로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지광』에는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大正十一年十月三十日 印刷
大正十一年十一月一日 發行
京城府東崇洞一三〇番地ノ一二
發行兼編輯人 張道榮
京城府諫洞九〇番地
印刷人 楊明洙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ノ三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印刷部
京城府東崇洞一三〇番地ノ一二
發行所 朝鮮之光社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표주자 정지용의 시가 게재되었고, 당시 경성제국대학 재학생 유진오와 이효석도 『조선지광』의 문예면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각각 지식인 소설과 서정성 짙은 단편소설를 썼던 유진오와 이효석이 『조선지광』에 발표했던 「스리」, 「파악」, 그리고 「도시와 유령」 등의 작품도 사회주의적 색채가 있었다. 이는 『조선지광』의 후반기를 차지했던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회주의가 커다란 위세를 떨쳤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선지광』은 민족주의 사상에서 출발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중심 매체가 되었다. 특히, 신경향파 문학으로 대표되는 초창기 사회주의 문학의 산실이었던 『개벽』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간된 이후, 『조선지광』은 사회주의 문학, 혹은 프로문학론이나 그 계열 작품의 발표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1920~30년대 한국 근대문학의 한 축을 담당했다.(해제 : 이원동)

핵 심 어 사상변화, 사회주의사상, 문학논쟁, 프로문학운동

참고문헌 강만길,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김민환, 「일제하 좌파 잡지의 사회주의 논설 내용 분석」, 『한국언론학보』 49, 2005.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한기형,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 역학 : 『개벽』과 『조선지광』의 역사적 위상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0, 2006.

032 어린이

어린이
개벽사
1923.3.20 ~ 1949.1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는 1923년 3월 20일자로 창간되어 1935년 3월 '속간기념호'를 끝으로 일제 강점기에 통권122호, 해방 후 1948년 5월호로 복간하여 1949년 12월호까지 15호를 더하여 통권 137호를 발행한 아동 잡지이다.

『어린이』의 발행소는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변함없이 개벽사로 되어 있다. 창간 당시에 『어린이』는 월 2회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5일 간격으로 발행된 것은 2호 정도일 뿐이다. 3호부터 20일 이상 발행일이 늦어지더니, 8·9·10·11호는 모두 월 1회 발행되었다. 결국 2권 1호(통권 12호, 1924. 1)부터 『어린이』는 월 1회 발행 잡지로 체제를 굳히게 되었다.

『어린이』의 편집 겸 발행인은 해방 전 1~30호는 김옥빈, 31~86호는 방정환, 87~122호는 이정호로 변화했으며, 해방 후에는 123~131호는 이응진 발행, 고한승 편집 체제로 발행되다가 132~137호는 이응진 발행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장정희(2015:115)에 따르면, 잡지의 판권에 기록된 발행 겸 편집인과 실제 『어린이』의 실무를 담당한 편집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 창간부터 잡지의 성격, 판형, 가격, 원고 내용 등 제반 문제에 있어 방정환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에 천도교 간부 조정호와 천도교청년회 김옥빈, 천도교소년회 소식 등 실무를 돌보던 이정호 등 천도교의 도움으로 『어린이』는 간행될 수 있었다.

『어린이』는 창간 당시에 4·6배판 판형, 12면으로 된 5전짜리 저렴한 잡지였다. 현재 3호(1923.4)까지 같은 체제로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4~7호(1923. 5~1923. 8)는 결호라서 그 체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린이』 1권 8호(통권 8호, 1923. 9)부터 판형이 4·6판으로 변화하고 면수도 40면으로 증가했다. 책값도 '10전'으로 올랐다. 1권 11호(통권 11호,

1923.12) 때 지면이 24면으로 축소되자 『어린이』는 다시 책값을 '5전'으로 내렸다. 『어린이』 10권 1호(92호, 1932.1)부터는 판형이 '국판' 크기로 바뀌었다. 해방 후 복간된 『어린이』는 '4·6판' 크기의 작은 판형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본문도 가로쓰기로 바뀌었다. 이후 『어린이』는 3권 4호(통권 27호, 1925.4)부터 매호 특별부록으로 '세계일주 사진', '말판놀이' 등 다양한 부록을 넣기 시작했다. 3권 11호부터는 「어린이세상」까지 부록으로 삽입했다. 화려한 컬러 도판과 알찬 내용으로 『어린이』는 점차 조선 어린이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아동잡지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어린이』의 주요 내용은 표지·권두·화보와 동시, 동화, 아동극 등의 아동문학과 야담, 소화, 기담, 전설, 미담 등의 담화(이야기), 만화·삽화·아동화 등의 그림, 교양지식, 독자란, 통신, 현상, 광고, 편집후기,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창간 기념일을 맞이하여 특별 기획과 선물을 마련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어린이』의 각종 기획은 '조선'에 대해 알리는 내용을 꾸준히 담고 있었다. 『어린이』의 주요 필진은 손진태, 윤극영, 방정환, 고한승 등 색동회 회원들과 이광수, 이은상, 피천득, 박태원, 윤극영, 마해송, 주요섭, 박화성, 이태준, 이무영, 심훈, 홍난파, 박팔양 등의 문학 예술계의 필자들로 구성된 만큼 화려했다. 그 밖에도 이정호, 김기진, 김석송, 김억, 변영로, 송영, 박영희, 이익상, 주요한, 오장환, 유도순, 최독견, 채만식 등이 필자로 참여했으며, 윤석중, 이원수, 윤복진, 신고송, 강소천, 박목월, 목일신 등이 소년문사로 독자문예란에 투고했다.



근대서지학회 소장

『어린이』는 당대의 문학가이자 혁명적 교육사상가인 방정환과 '색동회' 회원, 개벽사 내의 걸출한 필진들, 조선 각지의 소년문사들이 서로 소통하며 만들어낸 근대 아동문학·문화사의 대표 잡지였다. (해제 : 이경수)



부록 「어린이세상」, 근대서지학회 소장

핵 심 어 방정환, 아동 잡지, 개벽사, 천도교, 색동회

참고문헌 장정희, 「『어린이』지 간행사 개관」, 『아동문학평론』 40(4), 아동문학평론사, 2015.12.

장정희, 「방정환과 『어린이』 연구의 활력소」, 『근대서지』13, 근대서지학회, 2016.6.

전용숙, 「아동잡지의 근대주체 형상화에 관한 연구—『어린이』를 중심으로」, 『우리말글』69, 우리말글학회, 2016.6.

정용서, 「방정환과 잡지 『어린이』」, 『근대서지』8, 근대서지학회, 2013.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33 신여성

新女性
개벽사
1923. 9. 1~1934. 6. 1
국립중앙도서관

『신여성』은 1923년 9월에 창간되어 1926년 10월 휴간, 1931년 1월 속간하여 1934년 6월 1일 통권 71호까지 간행했다. 국판 100면 내외로, 초대 편집 겸 발행인은 박달성(朴達成)이다. 제3호부터는 방정환(方定煥)이 맡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1931년 7월호부터는 차상찬(車相瓚)이 맡았다. 개벽사에서 발행하였으며, 이돈화, 김기전, 박달성, 주요섭 등이 주요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잡지는 한자 '新女性' 제하에 한복을 입은 조선 여인, 아기를 업은 여인, 혹은 단발의 신여성 등 다양한 여인 채색화를 표지화로 사용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성과 대중적 전통적 이미지를 종합하려는 노력이 드러난다.

잡지가 다룬 주요 내용은 여성들을 위한 교양과 계몽을 촉구하는 논문·시·소설·수필·아동문학 외에, '취미기사'로 분류될 잡보성 성격의 생활기사, 여학생·모던걸 관련 유행과 사회적 이슈, 대중문화와 생활 개선에 관한 각종 담론 등 근대 신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이슈 등이었다. 잡지 편제에 있어서 계몽성과 대중성의 접합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며 시사와 논설부터 문예란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적 특색을 갖추었고, 동시에 정론지와 정보오락지의 역할도 담당했다.





■ 근대서지학회 소장

구체적 편집항목은 논의와 시평, 사진화보, 생활개선, 독자논단, 실익기사, 취미기사, 창작란, 설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설문이나 독자논단의 경우 신여성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신여성』 이외에, 이후 『신민』, 『별건곤』, 『삼천리』 등의 잡지에서도 두루 쓰인 보편화된 방식이다. 설문의 주제는, 여학생의 외모와 유행, 남녀 교제 문제, 여학교 교육 방향, 여학교 졸업 후 진로 문제, 여학생들의 귀향 생활, 정조 문제, 단발 문제, 제2부인 문제, 자유결혼과 간섭결혼, 이상적 남편감, 아내감, 남녀의 장단점, 신구가정의 장단점, 부부 관계 등이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는 여학생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었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성과 결혼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신가정의 이상과 바람직한 부부 관계에 대한 논의들로 관심사가 바뀌어 갔다.



『신여성』은 1920년대에서 1930년 대 초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개벽』, 『동명』, 『신민』, 『창조』, 『백조』, 『폐허』 등 다양한 잡지들이 창간되고 폐간되던 1920년대와 1933년 동아일보사의 『신가정』이 나올 때까지, 『신여성』은 거의 유일한 여성잡지였다.

일제하 '신여성'은 한일합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학교교육과 일본유학을 통하여 새로 습득한 자유로운 개성의 주체로서의 신여성이라는 이념과, 신구의 문화가 갈등 속에 공존하던 과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여성 주체이자 동시에 대중적 호기심의 대상이라는 모순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 『신여성』은 1920~30년대 새로 도입된 새로운 여성의 위상과 이미지를 둘러싼 담론의 장이었으며 신여자·모던걸·양처라는 당대의 이념적 요구와 대중적 호기심, 그리고 여성의 주체성이 논의되었던 장이었다. (해제 : 차혜영)

핵 심 어 신여성, 모던걸, 여학생, 취미기사, 실익기사

참고문헌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윤영옥, 「1920~3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의 : 『신여성』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0, 2005.12.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실학』 57, 2015. 8.

034 금성

金星

금성사

1923.11.10~1924. 5.24

아단문고

『금성』은 1923년 11월 10일자로 창간되어 1924년 5월 24일까지 통권 3호를 내고 종간된 동인지이다. 금성사(서울 인사동 30)에서 A5판 50면으로 발행되었다. 동인으로는 유춘섭, 양주동, 손진태, 백기만, 이상백, 이장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와세다 대학 유학생들이며 이장희만 교토중학을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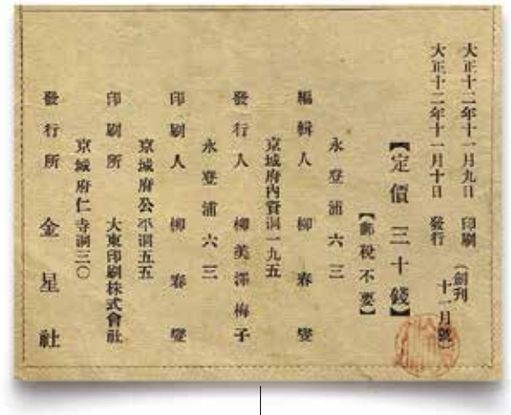
1호·2호의 발행인은 류비자와(柳美澤梅子), 편집인은 유춘섭이었다. 3호의 발행인은 야마구찌(山口誠子), 편집인은 양주동이었다. 발행인을 일본인으로 한 것은 '허가 절차의 수월함'과 '원고의 사전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금성』은 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잡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으로 말하면, 문예일반으로하자는 논의도 잇섯지만, 멧페-지 안 되는 잡지에 이것저것 느러놋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가지길을 꾸준히 것는 것이 낫겠다는 의미로, 시가중심이라는 제한을 둔 것이올시다. 여기 대하여는 물론 동인들이 시가에 취를 만히 가진 것도 일인이 되겠지오."라는 창간호에 실린 양주동의 말에도 드러나듯이 시가 중심의 잡지이면서 유파 초월의 성격을 지닌 잡지였다. 『금성』 겉표지에는 "LA VENUS"와 "金星"이라는 제호가 적혀 있고 안석주의 그림이 실려 있다.

『금성』은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페이지수를 제한하여 잡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양주동, 백기만, 손진태, 이상백의 동시·세계고시·청춘시·사념시·그리움의 시 등을 실었다. 또한 유호섭의 서사시, 이장희의 감각시, 김동환의 리얼리즘시 등의 시편도 실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 필진이었던 양주동이 작업한 외국 시인의 작품 소개와 번역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받아 왔다. 양주동은 「해안에서」, 「아기의버릇」, 「천문학자」 등과 같은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의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大正十二年十一月九日 印刷
大正十二年十一月十日 發行 (創刊 十一月號)
【定價 三十錢】【郵稅不要】
永登浦六三
編輯人 柳 寨 燮
京城府內貫洞一九五
發行人 柳 美 澤 梅 子
永登浦六三
印刷人 柳 寨 燮
京城府公不洞五五
印刷所 大東印刷株式會社
京城府仁寺洞三〇
發行所 金 星 社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시를 영역본을 텍스트로 하여 여러 편 번역해서 실어놓았다. 또한 보들레르 시를 번역하고 베를렌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금성』을 위시로 하여 상징파와 타고르의 작품을 주로 번역한 양주동은 1920년대 초기, 외국시 번역을 주로 담당한 김억과 이견을 펼치게 된다. 특히 양주동은 『금성』 3호의 「『개벽』 사월호의 『금성』평을 보고」라는 글에서 김억이 자신의 창작시 「기몽」과 번역시를 읽고 비판한 것에 대해 김억의 시 번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글 「시와 운율」에서 한시, 영시, 일본 현대시, 시조, 한국 현대시를 두루 살피며 시의 운율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양주동의 이러한 글들은 『금성』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금성』 발행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인물은 주로 양주동과 유춘섭이지만 동인 구성이나 편집 체제를 볼 때 백기만의 역할도 컸다. 이장희와 이상백은 백기만의 추천으로 『금성』 3호 동인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장희는 『금성』 3호에 「봄은 고양이로다」 외 4편을 발표하며 『금성』이 시 전문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금성』은 동인지 문단의 열정, 선구적 의식, 동지의식을 '문인'의 '전문성'과 '세련된 자의식'으로 대체해 간 첫 번째 그룹으로 평가받았다. 1920년대의 조선 시단에 새로운 문학 풍토를 조성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상문예모집을 통하여 김동환의 「적성을 손가락질하며」를 발굴한 것도 큰 수확으로 평가된다. 『금성』에 드러나는 시 전문성과 동인 의식, 그리고 외국시 번역과 소개는 근대시의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해제 : 이경수)

핵 심 어 시전문지, 상징파시, 번역, 양주동, 유춘섭

참고문헌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춘식,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동국대 박사논문, 2002.

박용찬, 「1920년대 시와 매개자적 통로 : 백기만론」, 『어문학』 94권, 한국어문학회, 2006.

정영효, 「번역과 근대시 형성 : 김억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9.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35 영대

靈臺
영대사
1924.8.5 ~ 1925.1
연세대 학술정보원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1924년 8월 5일 창간된 문학동인지 『영대』는 1925년 1월 통권 5호로 종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임장화, 인쇄인은 양제겸, 인쇄소는 광문사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 영대사 발행으로 되어 있지만 판권에는 문우당 발행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편집은 평양에서, 발행은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4호까지는 이 체제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5호에서 편집 겸 발행인이 고경상으로 바뀌었다. 표지는 김찬영, 삽화는 김관호가 그렸고, 제호는 왕희지의 글씨에서 집자하였으며 B6판(4·6판)으로 발행되었다. 동인으로는 김관호, 김소월, 김동인, 김억, 김여제, 김찬영, 전영택, 이광수, 임장화, 오천석, 주요한이 있다.

김찬영은 제호에서 '영대(靈臺)'라는 글자에 관하여 세상에서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오직 '영대(靈臺)'라는 글자의 체재와 '령대'라고 부르는 리듬과, '신령 령'·'집 대'가 합한 그 무드가 좋아서" 동인지의 이름을 '영대'라고 지었음을 밝혔다.

『영대』는 평안도 출신의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동인지이다. 이로 인하여 한 독자로부터 『영대』가 지방색을 띤 잡지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2호의 편집후기 격인 글에서 김유방은 "넘어도 만흔계급을 통하야 그지방색이라고하는 그림자가 손을벌니는우리는 지금 한가지 남어잇는 문단에서까지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실로 비참한 현상이 안일수업겟다"라고 그 질문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영대』 1호부터 5호까지 수록된 작품들은 창작소설·번역소설·창작희곡·번역가극·번역대화·수필·평론·창작시·번역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중 특히 창작시와 번역시가 각각 32편, 40편으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주요한의 「긔다림」, 김억의 「종달새」, 김소월의 「밧고랑우헤서」 등의 시가 발표되었고, 김동인의 소설 「유서」가 연재되었다. 또한 김유방의 3막극 「삼천오백냥」, 임노월의 「악마의 사랑」과 「악몽」, 「처염」이 실렸고 5호에는 전영택의 「바람부는저녁」이 발표되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번역시의 발표인데, 이는 김억, 전영택, 고사리, 오천석 등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김억에 의하여 예이츠, 깔드웰디, 보케엘, 랭보의 작품이 발표되었고, 전영택은 「눈의 순간」, 「부테」, 「밤」과 같은 워즈워드의 시를 발표하였다. 또한 고사리는 장시 「오마르카이얌의 시」를, 오천석은 시극 「애락아」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大正十三年八月一日 印刷
大正十三年八月五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林 長 和
平壤府新陽里一五一番地
印刷所 株式會社光文社
印刷人 楊 濟 謙
京城府都染洞四十一番地
發行所 靈 臺 社
京城府壽松洞六七番地
總發賣所 文 友 堂
振替口座京城一二七二七番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시와 소설뿐만 아니라 평론 역시 각호에 발표되었다. 1호에서는 임노월의 「예술지상주의의신자연관」이 실렸는데, 이 글에서는 표현파 에드거 앨런 포와 악마파 솔로호프의 자연관을 비교하였다. 또한 김유방의 「완성예술의서름」과 마경의 「식물의 예술미론」이 같은 호에 실렸다. 또 마경에 의하여 오스카 와일드, 니체, 보들레르, 입센의 경구들이, 고사리에 의해서 타고르의 경구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경구 소개는 『소년』과 『청춘』의 영향으로 보인다.

야영은 "최고의 이상은 센티멘타리즘의 애연한 셜음푸리도안니고 또한 인도주의의 도덕적정열을 표현하는것도안니다. 단지 영원한미에 밧치는열정과 상상력의 표현이 최고의이상이라 할수잇다. 영원한미는 즉계급의식을 초월한예술이다"라고 말하면서 프로문학이 예술지상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 「예술과 계급」을 『영대』를 통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소월 등을 제외한 동인의 대부분이 『창조』의 동인이었기 때문에 『창조』의 성격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문학사조상의 특정 경향을 추구하기보다는 문학을 한다는 순수한 의욕에 의하여 작품을 발표하여 동인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후기 문학운동의 주조인 순문학적인 요소가 그 특징이라 하겠다. (해제 : 이경수)

핵 심 어 문예동인지, 평안도 출신 문인, 번역시, 임노월, 김소월, 김억, 예술지상주의의

참고문헌 김춘식,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동국대 박사논문, 2003.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36

조선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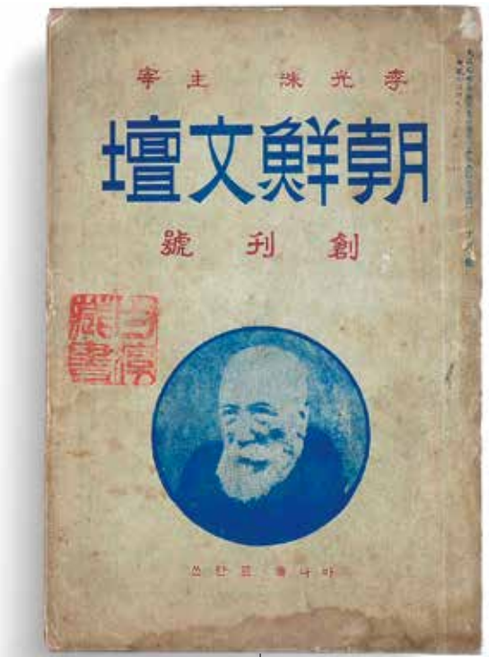
朝鮮文壇

조선문단사

1924.10.17~1935.12.27

아단문고

『조선문단』은 문예지로서 1924년 10월에 창간하여 1936년 1월호로 종간되기까지 총 26호가 발간되었다. 두 차례의 휴간(1925.12~1926.2, 1926.7~1926.12)과 속간(1927.1 / 1935.2)을 거듭하면서 1920~30년대 한국문단을 주도한 문예지의 하나였다. 1기는 방인근이 발행한 1924년 10월 창간호부터 1926년 6월호까지 통권 17호, 2기는 남진우(南進祐)가 발행한 1927년 1월호부터 그해 3월호까지 통권 3호, 3기는 이성로(李城路 : 學仁)가 발행한 1935년 2월호부터 1936년 1월호까지 통권 6호로 나눌 수 있다. 이 잡지는 동인지시대인 1920년대 중반에 탈 동인지적 성격을 표방한 종합문예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조선문단』 표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잡지 표제 위에, '이광수 주재'를 표나게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당대 인기와 권위를 가진 이광수의 명성과 『조선문단』이 가진 범문단적 종합성, 교과서적 기획을 상징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아나톨 프랑스 등 외국의 거장을


大正十三年十月一日 初版發行
大正十三年十月十三日 再版印刷
大正十三年十月十七日 再版發行
京城西大門町一丁目九番地
編輯兼發行人 方仁根
京城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人 魯基洵
京城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西大門町一丁目九番地
發行所 朝鮮文壇社
電話光化門一四六六番
振替京城五七四四番
支分社販賣所申請歡迎
注意
先金ヲ拂ヒ、送金ハ振替ヲ以テセラレタシ、
郵票代用ヲ、一割增ヲ以テス、外國行
郵稅モ一冊十錢ヲ增ス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잡지 본문 기획에서도 드러난, 해외 문예 거장과 조선 문인을 등가로 대비하는 기획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문단』은 문학지망생의 등용문인 '현상모집 추천제'를 두어 많은 작가를 배출했다. 한국근대 언론 매체사에서 '문예작품'을 현상모집한 사례로, 최남선의 『청춘』(1914~1918)에서 방정환(方定煥), 유광렬(柳光烈), 이상춘(李常春), 김명순(金明淳), 주요한 등이 발굴된 바 있다. 이후 1920년대 들어 『조선문단』이 본격적으로 '현상모집추천제'를 실시하여, 1924년 10월 창간호를 통해 서해 최학송의 소설 「故國」이 이광수의 추천을 받았다. 이후 『조선문단』 통권 26호가 나오는 동안 소설이 당선되어 추천받은 사람은 총 19명으로 최학송, 채만식, 박화성, 임영빈, 한병도(한설야), 계용묵, 안수길 등이 대표적인 존재다. 이는 1925년부터 시작한 '동아일보 신춘문예'와 1928년 시작한 '조선일보 신춘문예'보다도 앞선 일이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고전적 작품으로 잘 알려진 김동인의 「감자」, 전영택의 「화수분」,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 최학송의 「탈출기」, 나도향의 「물레방아」,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 그리고 최남선의 기행문 「금강예찬」, 유치환의 시 「깃발」, 나도향의 수필 「그믐날」 등이 『조선문단』에 게재되었다.

『조선문단』은 창간초기부터 다양한 특집물을 기획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 소설, 문학 등에 대한 개론을 기획하여 연재한 것이다. 1924년 창간호부터 이광수의 「문학강화」(1호~5호)와 주요한의 「노래를 지으시려는 이에게(시작법)」(1호~3호)가 연재되었고 김억의 「작시법」(7호~12호), 김동인의 「소설작법」(7호~10호)등 일종의 문학교과서에 해당되는 문학개론적 기획물이 집중적으로 연재되었다. 또한 거의 매호마다 각국의 문학 개관, 명저 소개 등과 같은 고정란을 통해 해외문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문사들의 이모양 저모양－문사들의 동정소개'(1호~5호), '국내외 유명 문사들의 초상화 게재'(4호/6호), '작가론'시리즈(최남선론－6호/김동인론－9호), '문사방문기'시리즈(김기진과 주요한－19호/박영희와 김동환－20호), '문사들의 얼굴'(16호), '처녀작발표 당시의 감상'(6호), '제작가의 쓸 때의 기분과 태도'(8호), '조선문사의 연애관' 기획(10호) 등 문예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을 선보임으로써 문단의 아우라를 창출하고, 근대문단의 위상을 담론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문단』은 1920년대 전반 동인지시대를 아우르면서 한국근대문단에의 관심 고조, 문학의 교과서적 이론의 보편화, 해외 문예의 소개, 새로운 작가 발굴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다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해제 : 차혜영)

핵 심 어 종합문예지, 근대 문단, 현상추천제, 문학개론

참고문헌 이경돈, 「『조선문단』에 대한 재인식 - 1920년대 중반 문학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상허학보』7, 2001.8.

이봉범, 「1920년대 부르주아문학의 제도적 정착과 『조선문단』」,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제도로서의 한국 근대문학과 탈식민성,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차혜영, 「『조선문단』 연구-'조선문학'의 창안과 문학 장 생산의 기제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1925~1929

1925 신민
조선농민
1926 문예운동
동광
별건곤
1927 해외문학
현대평론
예술운동
1928 조선시단
1929 문예공론
조선문예
근우
신소설



037 신민

新民
신민사
1925. 5. 10 ~ 1933. 4. 1
연세대 학술정보원

『신민』은 이각종이 설립한 신문사에서 1925년 5월 창간, 1933년 4월 '일미전쟁 예상호'까지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된 종합잡지이다. 『신민』은 1921년 2월부터 1925년 1월까지 친일적인 유교 단체 유도진흥회가 사회 교화를 목적으로 발간했던 잡지 『유도』(총권 45호)의 후신이기도 하다.

『신민』의 편집 겸 발행인은 이각종, 인쇄인은 김중환, 인쇄소는 한성도서 주식회사, 그리고 발행처는 신민사이다. 『신민』 창간호의 표지는 다른 그림이나 기호 없이, '신민'이라는 표제가 전서체로 되어있다. 신민사의 대표 이각종은 총독부 학무국 촉탁으로,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친일인사 가운데 하나였다. 『신민』이 신문지법에 의해서 발행 허가를 받은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유일한 잡지였던 것도 이와 관련된다.

『신민』의 담당자들은 지방 단위의 행정 관료, 지방 관리, 향촌의 지도자 등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다. 신문지법에 의해서 허가되었지만 『신민』의 주된 내용은 시사문제보다는 실용적인 생활 지식, 관료 정책 해설 등이었다. 창간사 「신흥민족의 초발심」에서, '신흥민족의 전도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다. 우리는 벌써 회의도 없고 오뇌도 없다. 다만 우리의 능력껏 우리의 실생활에 편의하도록 진리를 세우고 이상을 지어갈 뿐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신민』은 신흥민족인 조선인에게 시급한 것은 실제생활개선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사회교화와 민중문화 보급에 힘썼다. 이는 3·1운동 이후 한국 사회의 여론을 좌우했던 잡지 『개벽』 및 사회주의 운동 세력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실제생활개선'으로 축소하는 것이기도 했다.

『신민』의 편집 체계는 논설, 시사와 소식, 잡문과 문예 등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언이나 사설 시사 논평 등에서는 사회 현안을 해설하고, 학술, 조사, 소식 등에서는 총독부와 지방 행정 정책을 이해시키는데 힘썼다. 그리고 감상, 수필, 만평, 문예, 창작란 등은 지방민들의 문예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구미인이 본 조선의 장래」, 「소작쟁의 특집」, 「시조는 부흥할 것이냐?」, 「소작관행 개선운동」, 「농촌지도에 관한 문제」, 「조선인으로서 본 조선박람회」 등의 제목이 『신민』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한편, 『신민』의 문예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한시와 시조, 설화와 민요 등 주로 고전적인 문예 장르를 다룬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신민』의 주요 독자층이 지방 유림과 관료임을 생각할 때, 이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신민』은 국문학이나 역사학 관련 논문도 많이 싣고 있어 일종의 국학잡지로 이해될 수도 있다. 『신민』에 이름을 올린 문인들로는 양주동, 최상덕, 양백화, 최서해, 이장희, 김동환, 김동인, 이은상, 김안서, 염상섭, 박종화, 정지용, 권환, 박태원, 이익상 등 다양한 경향의 작가들이 포함된다. 이는 다른 잡지와 비교했을 때, 『신민』의 문예면이 뚜렷한 개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면서도, 한편으로 『신민』을 조선총독부의 경향력으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大正十四年五月九日　印刷
大正十四年五月十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李覺鍾　京城府茶屋町九十八番地
印刷人　金重煥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壑志洞三十二番地
發行所　新民社　京城府茶屋町九十八番地
振替口座京城一二三五七番
電話光化門一六七〇番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사실 『신민』은 총독부의 어용기관지로서 당대인들에게 혹평을 받았지만, 지방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또한 총독부의 시책을 따라야 했던 『신민』도 압수되거나 발매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민』은 지방의 유림과 관료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아서, '실제생활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실용적인 지식을 지방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신민』의 문예면은 한시와 시조, 민요와 설화 등 '조선정신'을 고양함으로써 미약하나마 나름의 역할을 담당했다. (해제 : 이원동)

핵 심 어 이각종, 지방 유림, 어용 잡지, 실생활개선, 조선 정신

참고문헌 이경돈, 「신민(新民)의 신민(臣民) – 식민지의 여론 시대와 관제 매체」, 『상허학보』 32, 20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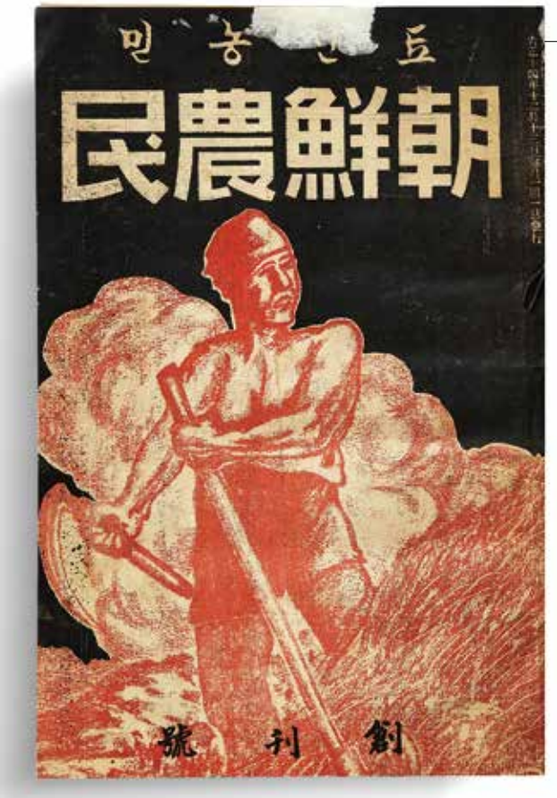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38 조선농민

朝鮮農民
조선농민사
1925.12.13 ~ 1930.6.1
국립중앙도서관

『조선농민』은 천도교 청년당이 주도한 조선농민사의 기관지로서 1925년 12월 창간되어 1930년 6월까지 총 45호가 발행된 잡지이다. 『조선농민』의 창간호 표지는 건장한 몸의 농민이 양손에 농기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붉은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이는 검은색의 배경과 대조를 이루면서 강렬한 인상을 자아낸다. 『조선농민』 창간 당시 주간은 이성환, 편집국장 겸 발행인 이돈화, 영업국장 선우전, 인쇄는 민영순이었다. 이후 1926년 6월부터 이성환이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는다. 잡지를 발행했던 조선농민사의 주축들이 천도교 청년당 조직에 있었지만, 초창기의 『조선농민』은 천도교적 색채보다는 농촌과 농민 문제를 중심에 두면서 대중성과 계몽성을 두루 갖춘 종합지였다. 특히 이성환이 편집을 맡으면서, 『조선농민』은 '농업대중의 인격적 해방과 경제적 현상을 구제, 지식적 각성을 재촉'하기 위해서, 문맹 타파 등 농촌 현실을 타개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1928년 12월 이후, 조선농민사가 천도교청년당 소속이 되면서 종교적 색채가 강화되고 잡지의 내용도 변했다. 이후 『조선농민』은 학술과 문예 중심의 잡지로 변모하면서, 이론적 지식을 보급하거나 새로운 농사법 등 실용적인 지식을 전파하는 종합지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1929년 이후 『조선농민』은 취미독물 위주의 편집 체제로 전환한다.

『조선농민』의 편집 체제는 논설, 시사 및 소식, 문예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논설은 농촌 및 농민 문제에 관한 의제를 설정하는 부분으로서, 문맹 타파, 위생담론, 근대지식 보급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시사 및 소식 부분에서는 연구와 강좌, 영농기술, 토양 지식, 흉년 대비책 등을 다루었다. 문예 부분에서는 시와 감상, 기행, 창작은 물론 만화, 만담, 유머 등을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실었다. 『조선농민』의 특집 제목을 일별하면 당대 현실에 대한 조선농민사의 인식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농촌청년호」, 「미신타파호」, 「농작준비호」, 「농촌기근타파호」, 「현대지식강좌특집호」, 「농민문예특집호」, 「기근문제호」, 「전원노동문제호」, 「유령퇴치호」, 「여성문제호」 등이 그것이다. 한편, 『조선농민』은 창간호부터 '농민문예'를 두어 시와 소설을 실었고, 농민 문예와 독자 투고를 개설하여 농민들의 문예적 취미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 소설, 수필 등 전문화된 근대 문학 갈래보다는 야담이나 잡문 형식으로 농민 독자대중을 사로잡으려 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천도교 청년당이 조선농민사의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를 기점으로 강화된다. 지상구락부, 만화, 야담, 유머, 뚱딴지, 깔깔대회, 사랑방이야기, 온돌야화 등의 제목들은 『조선농민』 문예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성환을 중심으로 제창된 농민문학론이나 구체적인 작품들은 이러한 경향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농민문예운동의 제창」에서, 이성환은 농민 생활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봉건적 인습적 농민혼이 아니라 "신농민 의식 내지 흙의 관념의 표현인 농민문예"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비록 이성환을 중심으로 한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이 농촌을 전원으로 취급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문학론의 이면으로 반도시적이고 반근대의식이 흐르고 있다는 점은 재평가해야 한다. 게다가 『조선농민』의 농민문학론은 방법은 달랐지만 카프의 농민문학론과 함께 농촌과 농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1930년대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과도 연결된다. (해제 : 이원동)


大正十四年十二月十二日 印刷
大正十四年十二月十三日 發行
京城府鳳凰臺洞八十八番地
印刷兼發行人 李 敦 化
京城府鳳凰臺洞八十八番地
印刷人 閔 泳 純
京城府鳳凰臺洞八十八番地
印刷所 海英舍印刷所
京城府鳳凰臺洞八十八番地
發行所 朝鮮農民社
振替京城一四八三九番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 심 어 천도교 청년당, 농민문학론, 이성환, 농촌운동

참고문헌 김민정, 「1920년대 『조선농민』 담론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홍성식, 「조선농민사의 농민문학론과 농민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8집, 2009. 4.

039 문예운동

文藝運動
백열사
1926. 2. 1~1926. 6
연세대 학술정보원

『문예운동』은 1926년 2월 1일자로 창간된 카프의 준기관지격인 잡지인데, 그 해 6월 통권 3호로 종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 양대종(梁大宗), 인쇄인 지까자와(近澤茂平), 인쇄소 지까자와상점(商店) 인쇄부, 발행소 백열사(白熱社), A5판 37면, 정가 20전이었다. 창간호는 표지에 '文藝運動'이라는 한자를 단순하고 현대적인 글자체로 디자인했다, 목차와 출판사, 가격 20전을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잡지 표지 디자인에서, 가격표기를 디자인의 일부로 표기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다.

창간호의 집필자로는 홍명희 김복진 박영희 김기진 조명희 안석주 이익상 최서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카프(KAPF 조선프롤레아타리아예술가동맹) 발기인이었다. 이점에서 『문예운동』은 카프 문예운동의 중심 무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창간호의 목차는 '표지'…金復鎭, '스케치'…安碩柱, '자화상'…李承萬, 〈논문〉 '新興文藝의 運動'…洪命憙, '文藝의 時代的 變位와 作家의 意識的 態度論'…李相和, '主觀 强調의 現代美術'…金復鎭, 〈시〉 '도오꾜에서'…상화, 農村의 時(서사시)…趙明熙, '前詩 憂鬱이 탈 때'…李浩, 〈기행〉 '東海를 끼고서'…朴英熙, 〈소설〉 '本能의 復讐'…金基鎭, '威脅의 채찍'…李益相 , '쥐 이야기'…李箕永, '醫師'…崔曙海, 〈단평〉 '速射砲' 석영 海得 八峰 想華 承一 英熙, '편집후기' 등으로 짜여있다.

홍명희는 「신흥문예의 운동」에서, 당시 카프 즉 신흥문예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세계를 들어서 새로운 계급의 발흥(勃興)은 바야흐로 대홍수를 일으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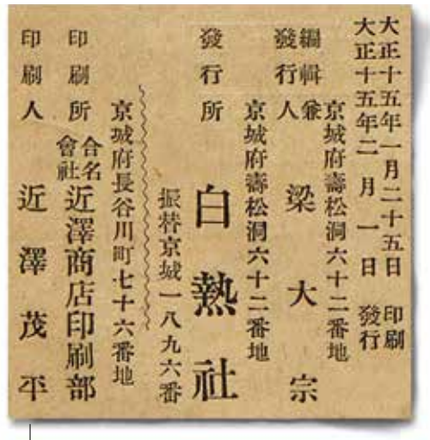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되었으니, 금일의 시대사조는 사회개혁·계급타파·대항·해방 등의 사상이니, 이 시대의 문예가 이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서 새로이 출발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와 같이 당시 카프의 세계사적 의의를 역설하였다.

창간호의 「본능의 복수」(김기진), 「위협의 채찍」(이익상), 「쥐 이야기」(이기영), 「봄 이야기」(김영팔) 등은 카프문학 초기의 자연발생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문예운동』에서

점화된 프로문예운동의 불길은 『조선지광』, 『예술운동』,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비록 『문예운동』은 3호로 끝났지만 카프의 초기형태 즉 주의, 인적 구성, 작품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해제 : 차혜영)


大正十五年一月二十五日 印刷
大正十五年二月一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京城府壽松洞六十二番地 梁大宗
發行所 京城府壽松洞六十二番地 白熟社
振替京城一八九六番
印刷所 合名會社 京城府長谷川町七十六番地 近澤商店印刷部
印刷人 近澤茂平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핵 심 어 카프 기관지, 프로문예운동, 사회주의 미학

참고문헌 백철, 『朝鮮新文學思潮史』, 백양당, 1949.

최병구, 「카프(KAPF)의 미학적 거점으로서 『문예운동』의 의미 : 『문예운동』 2호의 발굴 및 소개」, 『근대서지』 8, 2013.12.

040 동광

東光

동광사

1926. 5. 20 ~ 1947. 9. 1

연세대 학술정보원

『동광』은 1926년 5월 창간되어 1927년 8월까지 16호를 내고 휴간했다가 1931년 1월 속간되어 1933년 1월까지 40호를 발행하였다. 해방 후 1947년 8월에 41호로 재속간한 『동광』은 9월호까지 발행하여 통권 42호까지 발간한 종합잡지이다. 안창호(安昌浩)가 1913년 미국에서 조직한 독립운동단체 흥사단(興士團)의 정신을 승계하여 1926년 1월에 조직한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의 기관지였다. 이 시기 사회주의운동을 표방하던 잡지들에 맞서, 『동광』은 민족운동지임을 분명히 내세웠다. 편집 겸 발행인 주요한(朱耀翰), 인쇄인 노기정(魯基禎), 인쇄소 한성도서(주), 발행소 동광사(서울 서대문동 1가 9), B5판이었다. 『동광』은 창간호의 표지는 주요목차를 제시한 단순한 디자인을 사용했지만, 이 목차 내에 안창호의 「합동과 분리」를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창간호에서는 '사상과 학술의 연구·선전, 문예의 창작·번역 소개에 비중을 두고, 역사·지리·전기·전설·풍습' 등을 고루 다루며, 건전한 흥미기사, 과학의 통속화, 풍부한 사진·삽화 제시, 국문 용법의 통일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진 중 상당수가 미국 등의 서구 유학파 지식인들로서, 주로 미국 기독교 계통의 자유주의적 성향과 강렬한 민족주의적 경향이 결합된 논조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수양운동에 대한 관심의 표명으로, 「합동과 분리」, 「당신은 주인입니까」, 「사람마다 가슴에 참을 모시어 공통적 신용을 세우자」, 「합동의 요건-지도자」, 「부허에서 떠나 착실로 가자」, 「오늘의 할 일은 오늘에」, 「오늘의 조선학생」, 「조선청년의 용단력과 인내력」, 「자조의 정신과 호조의 정신」, 「낙관과 비관」 등과 같은 도산 안창호의 글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제5호에는 '조선말과 글의 연구', 제9호에는 '우리글 표기례의 몇몇'이라는 특집으로 김윤경·이병기·권덕규·어윤적·장지영·최현배 등의 한글론이 실렸다. 속간 후 1931년부터는 앞 시기의 수양론 중심의 잡지에서 벗어나 정치·시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제18호 「내외대관」란은 '세상은 어디로 가나'라는 부제를 달고, 신간회 해소론 문제, 총독부의 예산, 전조선보통학교후원회대연맹 운동, 정치범의 현황', 농촌의 양면상, 각 회사의 노동자 해고문제, 각 학교의 맹휴 등을 다루고 있다. 1932년 들어 『동광』은 이태리 파시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제33호에서는 홍효민의 「독일의 위기와 국수사회노동당」을 통해 독일의 나치즘을 소개하였다. 이광수와 주요한 등은 권두언 등을 통해 힘과 강력주의 등을 제창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농촌문제에도 관심을 두어, 「사선에 선 농촌과 그 대책」, 「농촌구제 좌담회」 등과 같은 특집을 마련하였고 농촌의 피폐현상, 피폐의 원인, 구제책 등을 다루었다.

『동광』은 흥사단의 국내 조직인 수양동우회의 이념과 운동론을 충실히 전파하는 교양잡지의 성격을 띠면서도,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의 입장에서 현실 문제, 농촌문제를 다루었다.

(해제 : 차혜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 심 어 교양잡지, 수양동우회, 안창호, 주요한, 부르주아 우파 민족주의

참고문헌
김상태, 「1920~1930년대 동우회·흥업구악부 연구」, 『한국사론』28, 서울대 국사학과, 1992.

이국헌, 「『동광』에 나타난 민족계몽담론의 내면동력으로서 기독교사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95(1), 2015.1.

최주한, 「193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지도자론과 파시즘 : 동우회(수양동우회) 기관지 『동광』을 중심으로」, 『어문연구』35(3), 2007.9.

041 별건곤

別乾坤
개벽사
1926.11.1~1934.8.1
개인 소장

『별건곤』은 1926년 11월 1일자로 창간된 대중잡지로 1934년 8월 통권 74호로 종간되었다. 이 잡지는 1926년 8월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폐간당한 『개벽』의 명맥을 이은 잡지였다. 시사종합지였으며 무게 있는 사상 잡지였던 『개벽』과 달리, 취미와 실익을 위주로 한 대중잡지이다. 편집 겸 발행인 이을(李乙), 인쇄인 민영순(閔泳純), 인쇄소 대동(大東) 인쇄(주), 발행소 개벽사(서울 경운동 88)였다. 발행인 이을(李乙)은 당시 개벽사 광고부 책임자였고, 1년 뒤에 발행인이 차상찬으로 바뀌었다. 『별건곤』의 창간호 표지는 성벽 밑에서 말을 탄 조선인을 그린 동양화 풍의 채색화이다. 별건곤이 한동안 지속적으로 연재한 대중적 '역사 이야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간호 표지

『별건곤』은 거의 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발간되었다. 1932년 2월까지 200쪽가량의 분량으로 한 권에 50전에 판매되다가, 1931년 1월 『신여성』이 다시 속간되고 1931년 3월 『개벽』의 후신인 『혜성』이 창간되면서, 1931년 3월부터 60쪽 정도 분량의 5전 잡지로 발행되다가 결국 1934년 8월에 종간되었다.



당시 『별건곤』의 정확한 발행 부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31년 『별건곤』이 가격을 5전으로 인하한 후 독자층이 지식인 중심에서 일반 대중으로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별건곤』의 편집후기를 보면 당시 발행 후 3일 만에 절판되었다고 하여 '삼일 잡지', '절판 잡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잡지의 목차는 창작(소설, 시), 수필, 상화, 풍자, 논설, 방문기, 번역, 傳記, 상식, 잡조 등으로 구성되었다. 『별건곤』은 이 목차에 넣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 양식도 많이 보여주었다. 특히 '경험담'과 '탐기'(르포), '대화'와 '풍자', '애화(哀話)'와 '실화', '사화' '야담' '수기' '만화' '기담' '괴담' '만담(코믹)'과 '민화풍의 이야기' '대담' '방문기' '해설' '지상논쟁' '설문(앙케이트)' '품평'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양식들은 『별건곤』에 등장해 1920년대의 여러 잡지와 신문에 저변화 되었다. 이처럼 종류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기사들이 등장했고, 이것들이 대부분 몇 년 후 『조광』『삼천리』로 확장되지만, 『별건곤』만이 갖는 가장 특색있는 기사를 꼽으라면 아마도 「대경성 백주 암행기」와 「대경성 암야탐사기」란 일 것이다. 이 글은 편집장의 명령으로 서울의 불특정 지역을 정해진 시간 동안 탐방하여 그 즉시 작성한 기사였다. 「암야탐사기」는 서울의 한밤중의 세태의 풍경을, 「백주 암행기」는 서울의 한낮의 풍경을 생생하게 기록했는데, 이 기사들은 1927년 2월부터 1929년 2월까지 연재되기도 했다.

취미라든가 가벼운 읽을거리를 제시했던 『별건곤』은 1930년대 들어 시사적인 내용의 기사를 줄이는 대신, '에로 그로 넌센스' 성의 기사들로 많은 지면을 채우게 된다. 1929년 이후 과도해진 잡지사들 간의 경쟁은 더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면서 잡지 가격 인하와 '에로 그로' 기사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개벽』을 통해 민족과 계몽이 결합될 수 있는 근대잡지의 모범답안을 보여 주었던 개벽사는 역설적으로 『별건곤』을 통해 근대 잡지가 갈 수 있는 대중성, 오락성, 상업성이라는 또 다른 방향성을 앞장서서 보여준 역설을 빚어내고 만다. (해제 : 차혜영)

핵 심 어 개벽사, 대중잡지, 취미잡지, 에로그로

참고문헌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실학』57, 2015.8

차혜영,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 표상의 정치학, 개벽사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호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58, 2014.8.

차혜영, 「개벽사 경성 표상의 정치학, 『별건곤』의 1929년 9월 대경성 특집호 연구」, 『동학학보』37, 2015.12.

채석진, 「제국의 감각 :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5, 2005.10.



042 해외문학

海外文學
해외문학사, 외국문학연구회
1927.1.17~1927.7.4
서울대 중앙도서관

『해외문학』은 1927년 1월 17일자로 창간된 해외문학연구회의 기관지이다. 해외 문학을 번역·소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문학 잡지로,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이은송, 인쇄소는 한성도서, 발행소는 해외문학사(서울 냉동 112)였다. 제2호는 같은 해 7월 4일에 간행되었고, 편집 겸 발행인은 정인섭, 발행소는 외국문학연구회, 인쇄소는 동경 동성사이다. 2호를 동경에서 간행한 것은 편집부와 발행소, 인쇄소가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기 때문이다. 창간호를 발행한 뒤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동인들의 각출로 제2호를 낼 수 있었지만, 창간호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해외문학』 창간호 표지에는 다소 난해한 느낌의 추상화가 실렸고, 상단에는 'Cpammata Eswtika', 하단에는 '동경 해외문학연구회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창간호에는 '권두언'을 시작으로 평론, 창작, 시가, 희곡 등 문예 작품이 수록되었다. 창간사에서는 "무릇 신문학의 창설은 외국문학의 수입으로 그 기록을 비롯한다. 우리가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외국문학 연구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오, 첫째 우리 문학의 건설, 둘째로 세계문학의 호상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 문학 건설에 목적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창간호에는 권두사를 필두로 「레이몬드 반토크 씨의 창간 축하편지」(영문 및 번역), '평론' 「표현주의 문학론」(김진섭), 「포오를 논하여 외국연구의 필요에 급하고 〈해외문학〉 창간을 축함」(화장산인), 「최근 영 시단의 추세」(김석향), 「노서아문학의 창시자 푸시킨의 생애와 그의 예술」(이선근) 등이 수록되었다. '소설'로 「역사(亦死)의 가면」(에드가 앨런 포), 「제스타스」(아나톨 프랑스) 등 7편이 수록되었고, '시가'로는 「악마」(프시킨) 등 26편이 소개되었다. '희곡' 「구혼」(안톤 체홉), 「월광」(에훼 테 마리넷치) 등이 실렸고, 그 외 「포오 소전」, 「문예 한담」, 「번역 가십」 등이 게재되었다.



2호 표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해외문학』 제2호에는 '두언'을 시작으로 「버나드 쇼 인상기」(레이몬드 반토크), 「여명기 로서아 문단 회고」(이선근), 「명치문학의 사적 고찰」(성일돈) 등과 같은 평론, 「알르의 여자」(알퐁스 도데)와 같은 소설, 「백조의 노래」(체홉)과 같은 희곡, 「한글 사용에 대한 외국문학 견지의 고찰」과 같은 좌담회가 수록되었다.


海外文學 七月號

定價三十五錢 送料二錢

2호 판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해외문학』의 주요 동인은 이하윤, 정인섭, 김진섭, 손우성, 김명엽, 김온, 정규창, 이헌구, 함대훈 등이었다. 1926년 동경 유학생 중외국문학 전공자를 주축으로 결성된 '외국문학연구회'는 이듬해 '해외문학연구회'로 개편되었다. 『해외문학』은 당대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프로문학이나 민족주의 문학과는 거리를 둔 미학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등의 외국문학 작품을 직접 읽고 번역해서 수록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의 문학이 일본 문학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는 나머지 일본어 중역(重譯)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했다. 『해외문학』이 소개한 글은 대체로 19세기 유럽과 미국문학에 치우쳐 있지만 한국 잡지역사상 최초로 외국문학을 본격 소개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이후 시문학파와 구인회(九人會)로 이어져 문학에서 정치성이나 사상성을 배제한 순수문학의 흐름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해제 : 강진호)

핵 심 어 해외문학연구회, 번역문학, 이하윤, 정인섭, 순수문학

참고문헌 유성호, 「해외문학파의 시적 지향」, 『비평문학』40, 한국비평문학회, 2011.6.

이하윤, 「해외문학」, 『사상계』, 1960.1.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조영식, 「해외문학파와 시문학파의 비교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43 현대평론

現代評論

현대평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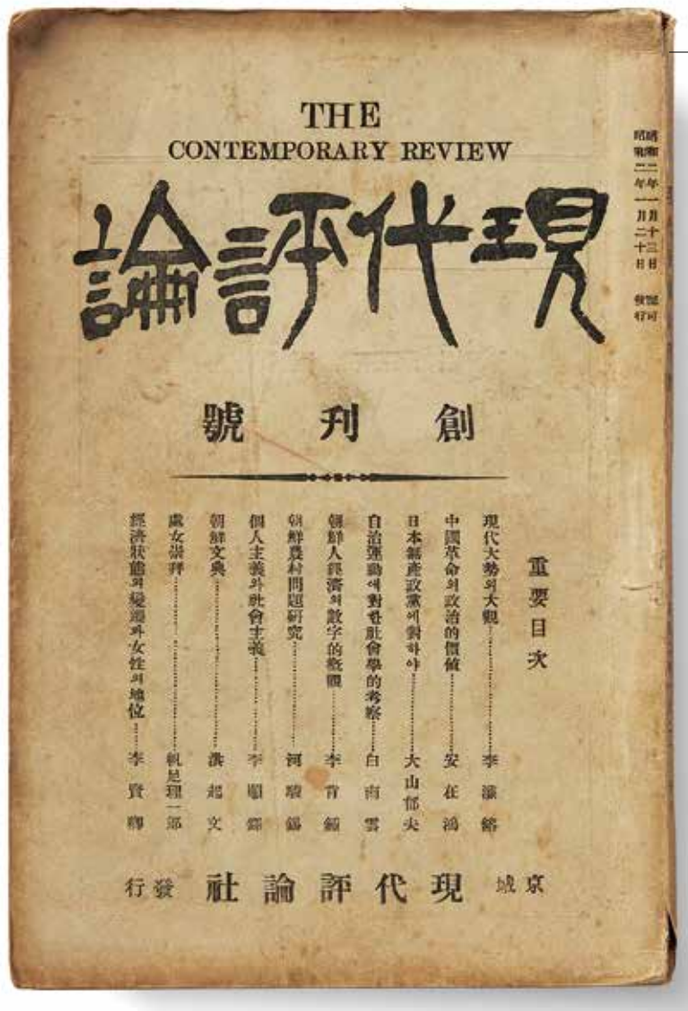
1927.1.20~1928.1.1

연세대 학술정보원

『현대평론』은 1927년 1월 20일자로 창간되어 정치·경제·사회평론을 주로 다룬 종합잡지로 11호로 종간되었다. 『개벽』이 1926년 8월 통권 72호로 강제 폐간당하고, 개벽사가 『신여성』과 『별건곤』 등 가벼운 취미독물 실익기사 중심의 잡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발행인 하준석(河駿錫), 인쇄인 이재간(李載侃), 인쇄소 대동(大東)인쇄소, 발행소 현대평론사(서울 종로1가 55), A5판 창간호의 경우 260여면, 정가 50전이었다. 『현대평론』은 창간호 표지디자인에서, THE Contemporary Review와 現代評論을 표지화로 사용하고, 목차를 표지에 배치했다.

이 잡지에는 이관용 이긍종, 하준석, 김준영, 이순탁, 백남운, 홍명희 등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관용(1891~1934)은 영국 에딘버러대학 수학 후 스위스 취리히대학을 졸업한 철학박사이고, 3·1운동 후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에 김규식(金奎植)이 참가했을 때, '독립청원서'를 불역(拂譯)하여 프랑스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고 귀국 후 동아일보 소련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긍종(1897~1951)이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이순탁, 백남운 등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도 다수 포진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치 담론을 이어나갔다. 이들 외에도 일본은 물론 영, 미 유럽 권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이 다수 포진한 것이 이 잡지의 특징이다.

『현대평론』 창간사 「권두언 대신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할 때, 그 정치적·경제적·문화적임을 물론하고 오직 우리 민중의 요구로 틀림없는 출발점을 삼는다. 민족흥망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하고 현대세계 어느 곳에도 비할 수 없이 파멸상태에 빠진 조선민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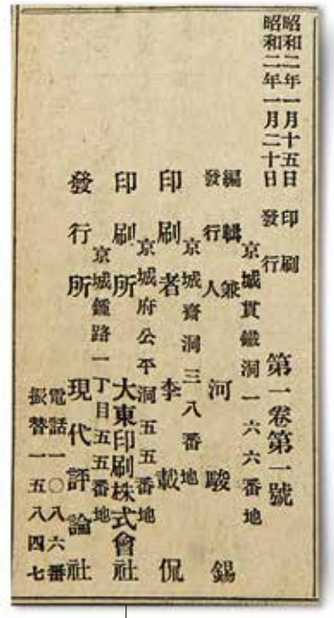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盟休)와 학생운동' 전문(7호), 조생(趙生)의 '절대로 비타협'(7호), 이적효(李赤曉)의 '국제청년데이의 사적(史的)고찰'(8호), 최독부(崔獨夫)의 '조선공산당사건의 관계자 인물만평(漫評)' 전문(9호) 등이 삭제조치 되었는가 하면, 10호(1927년 11월·12월호)는 전량 압수당했다. 그런 끝에 1928년 1월 제11호를 끝으로 종간하게 되었다. (해제 : 차혜영)

핵 심 어 시사 잡지, 사상 잡지, 정치평론, 삭제와 압수

참고문헌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昭和二年一月十五日 印刷
昭和二年一月二十日 發行
現代評論 第一卷第一號
編輯兼發行人 京城貫鐵洞一六六番地 河駿錫
印刷者 京城齋洞三八番地 李載昶
印刷所 京城府公平洞五五番地 大東印刷株式會社
發行所 京城鐘路一丁目五五番地 現代評論社
振替口座 京城一五〇八六番 電話 四七番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대상으로 하고(‥) 민중의 요구를 기초로 한 주의라면, 그것이 레닌주의와 합치되거나 혹 워싱턴주의에 공명하거나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악수할 것이다."와 같이 당대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 극복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이론적 공상보다 민족적 요구에 과한 모든 실제적 사실을 적발(摘發)하고 노력한다."와 같은 발간 정신의 표명 때문에 『현대평론』은 일제의 언론탄압에 시달리며 거의 매호 상당수 기사들이 삭제 조치를 당하였다. 이관구(李寬求)의 '농촌경제 몰락의 편영(片影)'(3호), 이성재(李成宰)의 '학생맹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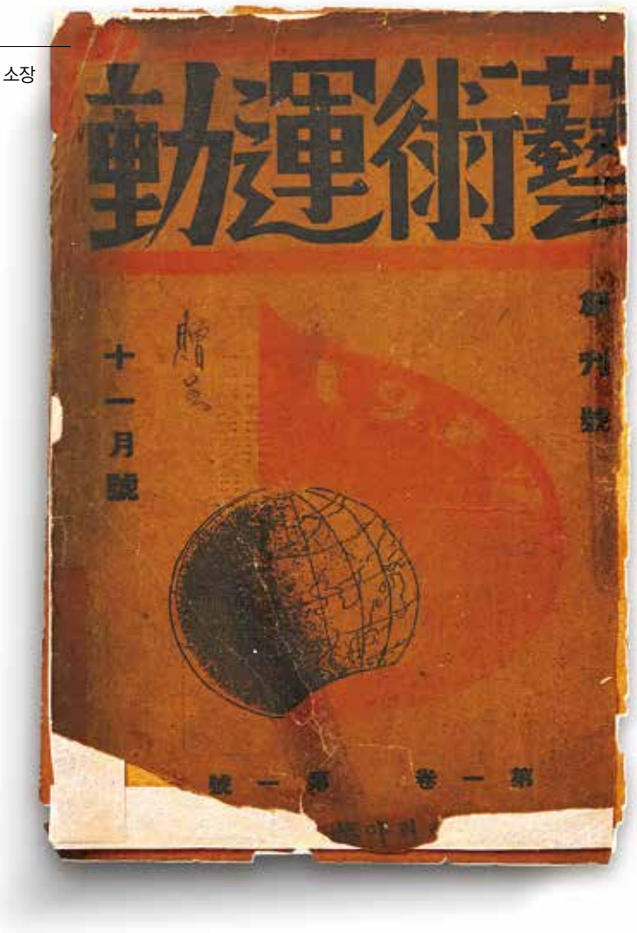
044 예술운동

藝術運動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1927.11.15
아단문고

『예술운동』은 1927년 11월 15일자로 창간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의 기관지이다. 창간호는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동경에서 발행되었는데, 발행 겸 인쇄인은 김두용이고, 발행처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동경지부, 인쇄소는 동성사였다. 창간호는 전체 86면, 정가는 30전이다. 창간호의 표지는 지구본에서 조선을 표기한 그림으로, 카프의 이념과 강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술운동』 창간호에는 '권두'를 시작으로 '논문' 「무산계급 문예운동의 정치적 역할」(박영희), 「예술운동의 방향전환론은 과연 진정한 방향전환론이었던가?」(이북만), 「日本 プロレタリア 藝術聯盟에 대하여」(中野重治) 등이 수록되었고, '노농노서아혁명 십주년 기념' 「시월혁명과 예술혁명」(장준석), 「노서아의 극문학」(웨 월켄스타인), 「프롤레타리아 예술에 대하여」(아루나찰스키) 등이 실렸다. '비판과 적발'에는 「청년운동과 문예투쟁」(이우적), 「프롤레타리아 극장 공연을 보고」(김무적), 「신여성 자매들에게」(윤시야), 「일기 발초」(홍효민) 등이 게재되었고, '시' 「담(曇)—1927」(임화), 「붉은 처녀지에 드리는 송가」(홍양명), '소설' 「앞날을 위하여」(윤기정), 「빼앗기고 살까?」(조중곤), '동화극'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송영) 등이 실렸다. 그리고 '본부 지부 보고', '검열제도개정기성동맹', '편집후기' 등이 게재되었다.

『예술운동』은 최초의 문학 기관지로 평가되는데, 간행 전에 이미 일제로부터 발간금지 조치를 당해서 동맹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배부되었다. 필진은 박영희, 이북만, 윤기정, 임화, 조중곤, 송영, 홍효민 등이었다. 『예술운동』 창간호에는 카프 문예운동의 방향전환론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1927년의 조선 문단의 현황과 지향에 관한 다양한 논평이 게재되었다. 박영희의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무산계급 문예운동의 정치적 역할」, 이북만의 「예술운동의 방향전환론은 과연 진정한 방향전환론이었던가?」 등은 당시 치열했던 카프 문예운동 방향성 논쟁의 일단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문예지 『조선문예』 주간이던 박영희는 1925년 7월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이 결성되고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망을 견고하게 다졌는데, 그 과정에서 동경지부의 기관지로 『예술운동』을 간행했다고 밝혔다. 곧, 일본 동경에서 발행한 『예술운동』과 경성에서 발행한 『조선문예』는 발행 장소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지향점을 지닌 잡지였다. 두 잡지 모두 카프의 이념적 방향성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카프 기관지 격의 문예지였다. 그러나 『조선문예』뿐만 아니라 『예술운동』 역시 검열과 자금 문제 등으로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인해 그 수명이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검열제도개정기성동맹'의 '선언'은 검열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그 개혁을 위해 싸우자는 내용으로, 당시의 강압적 검열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술운동』은 1920년대 후반 카프 문예운동의 방향성 문제를 치열하게 다룬 논쟁의 장이 되었다. 비록 창간호를 끝으로 종간되었으나, 『예술운동』은 이후 조선의 문학과 예술의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제 : 강진호)

핵 심 어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프로문학, 방향전환론, 조선문예

참고문헌 백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53.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45 조선시단

朝鮮詩壇
조선시단사
1928.11.7~1934.9.17
근대서지학회

1928년 11월 창간되어 1934년 9월 폐간되기까지 총 8호가 발행되었다. 창간호(1928.11)는 일제에 압수된 끝에 임시호로, 2·3호(1928.12)는 합병호로, 5호(1929.4)는 '2·3·4월 합본호'로 출간되었다.

황석우(黃錫禹)가 편집인과 발행인을 겸했으며, 경성 서대문에 위치한 '조선시단사'에서 발간되었다. 표지('2·3합본호')는 비교적 단출하다. 상단부의 경우, 우(右)에서 좌(左)로 '朝鮮詩壇'을 가로쓰기 했다. 중앙에는 타원 안에 수수가 잔뜩 여문 수수밭 사진을 배치했다. 만주를 떠돌다온 황석우의 경험과 '자연시'를 지향하겠다는 잡지의 목표가 함께 반영된 사진이다. 우측 하단부에 '12월호'로 발행 시기를 적시했다. 한편 5호(1929.4)의 「사고(社告)」는 6호부터 출판 형식이 매월 '사우비(社友費) 1원'을 부담하는 '사우제(社友制)'로 전환됨을 알렸다. 6호(1930. 1)의 「사고」는 7월호부터 제호가 '조선시인(朝鮮詩人)'으로 바뀜을 알렸다. 하지만 8호(1934. 9)는 '조선시단 속간(續刊) 제8호(임시호)'로 변함없이 발행되었다.

창간호에는 《동아일보》의 이익상과 염상섭, 《조선일보》의 박팔양, 《조선주보》의 김영팔, 《매일신보》의 이서구 등의 축사가 실렸다. 시로는 김억의 민요시 「가다오다」 외 1편, 김동환의 「추야장(秋夜長)」 외 1편, 지방시인 29명의 시편들, 황석우의 「가을시 및 6호잡곡(六號雜曲)」 등이 수록되었다. 「여언(餘言)」에는 첫째, 편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원고 압수 및 임시호 발간에 대한 사과, 둘째, 검열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과격한 작품'이 제외될 수 있다는 알림, 셋째, 사상적 작품은 보류하고 자연시 중심으로 게재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고지 등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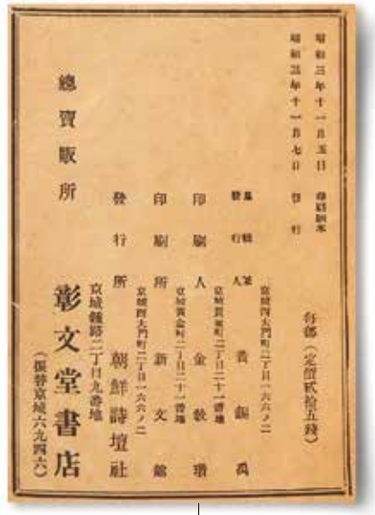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근대서지학회 소장

제2·3호 합병호는 도쿄와 경성, 만주의 안동과 봉천을 망라하는 각 지역 시인들의 작품들을 대거 수록했다. 한편 황석우는 창간호에 이어 '자연시'와 '육호시(六號詩)'를 연속 게재했다. 그는 「여언」에서 '자연시'에 몰두하게 된 사정을 조선신문에서조차 자기 시가 "일종 특종 위험물 취급"되었다는 것, 따라서 "'자연시 같은 것'으로 자위의 길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투로 고백했다. 물론 그의 '자연시'는 우주와 자연 자체를 노래하기보다 태양과 지구를 인간세계에 빗대어 표현한 '사회시'의 성격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았다.

제5호는 "조선시단제5호특대호"라는 제호 아래 '황석우 편 청년시인백인집(青年詩人百人集)'을 꾸몄다. 이는 남성·여성(10편)·학생(38편)을 망라한 문단사 초유의 기획이었다. 황석우는 이들을 "조선 신시단의 주인공"이며, "새 조선의 예술, 새 조선의 혼을 창조할 시대가, 역사가 보낸 실험의 신(神)들"로 호명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5호에는 「황석우씨의 시에 대하야」, 「시의 예술상 지위」, 「상징시에 대하야」 등의 평론이 실림으로써 근대시의 예술성과 대중화가 함께 제고되었다.

제6호에는 40여 편('여류시단' 10편 포함)의 시가 실렸다. 젊음과 몸뚱이가 유일한 무기임을 선언하는 김대준의 「마녀(魔女)의 노래」, 베를 짜며 일본으로 돈벌러간 '정든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묘사한 김정한의 「베 짜는 아가씨」, 수차례 짓밟아도 다시 피어나는 들국화의 생명력을 노래한 엄흥섭의 「들국화」, 혁명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있는 황석우의 「그대들 혁명가!」 등이 주목된다.

4년 만에 복간된 8호에서 황석우는 평론 「시가의 제 문제」에서 시의 운율과 기교, 내용과 효용의 문제를, 「최근 시단 개별(槪瞥)」에서 김기림, 조영출, 모윤숙의 신작을 검토했다. 작품으로는 김현승의 잠언시 「묵상수제(默想數題)」, 자연미를 노래한 민병균의 「그 화초」와 유치환의 「봄비」, 겨레 동포들의 "울분과 기아와 비탄과 오열"을 주목한 김조규의 「삼춘읍혈(三春泣血)」 등이 실렸다. 한편 잡지 말미에는 「시단의 투사들」이라는 제목 아래 1934년 당시 활동하던 30여명 시인들의 활동 사항을 알렸다. 김형원, 박팔양, 이병기, 이하윤, 김현승, 민병균, 양운각, 김조규, 유치환 등의 이름이 보인다.



창간호 판권지, 근대서지학회 소장

『조선시단』은 도쿄와 만주를 포함한 조선 경향 각지의 젊은 시인들, 특히 여성과 학생 시인들의 소개와 격려에 힘썼다. 이와 연관된 '조선 신시단'의 건설 욕망은 "조선신흥시가예술동맹"(제6호「재사고(再社告)」)의 결성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맹'의 결성 여부와 구체적 활동은 문학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해제 : 최현식)

핵 심 어 조선시단사, 황석우, 청년시인백인집, 자연시

참고문헌 노춘기, 「시 전문지 『조선시단』 소재 시와 시론 연구」, 『한국학연구』 제43호,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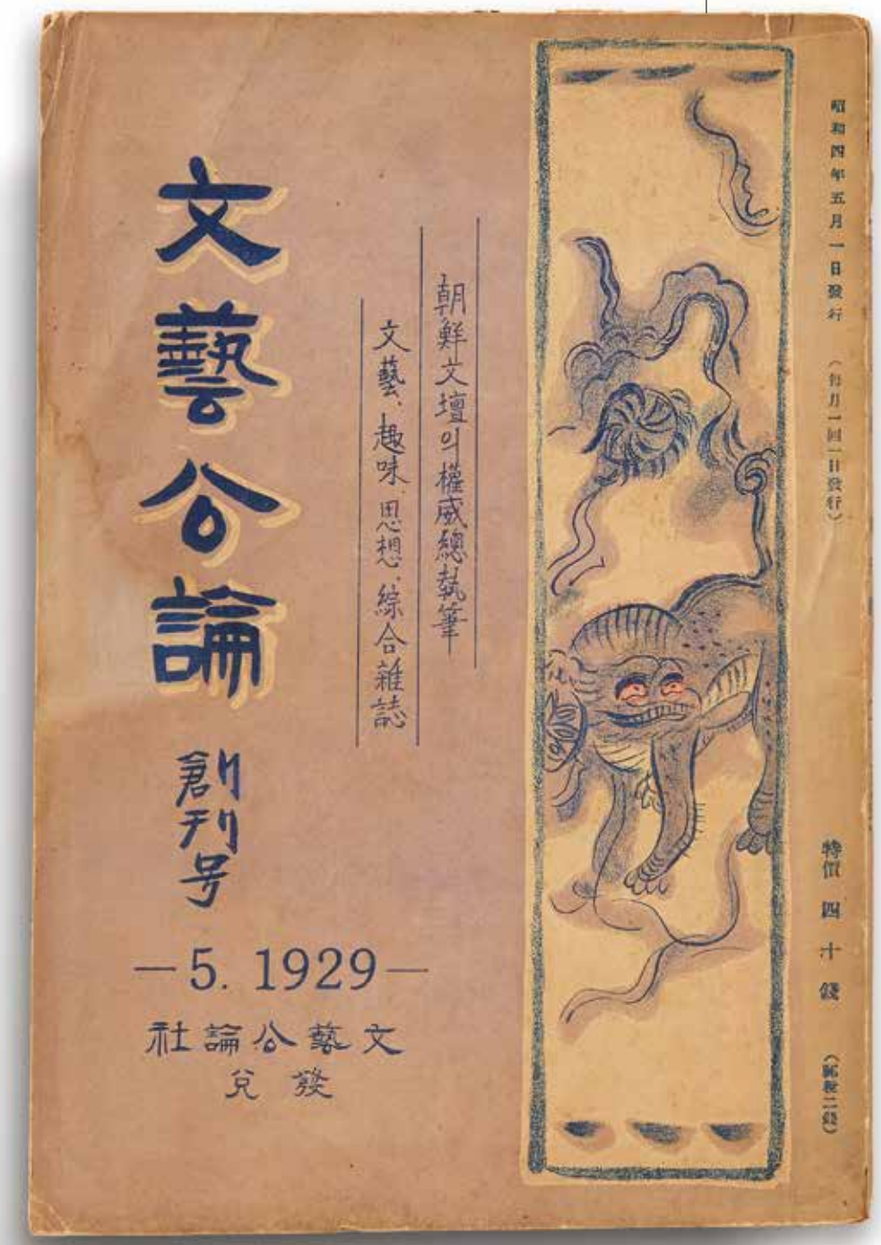
정우택, 『황석우 연구』, 박이정, 2008.

046 문예공론

文藝公論
문예공론사
1929.5.3~1929.7.1
근대서지학회

『문예공론』은 1929년 5월 3일 평양에서 양주동의 주재로 창간된 문예잡지로 1929년 7월에 통권 3호로 종간되었다. 편집은 평양에서 인쇄는 서울 광문사에서 했고, 발행소는 편집인 방인근의 집인 서울 천연동 132번지 문예공론사였다.

창간호의 「편집 여언」에서 양주동은 "문단의 총체적 발표기관으로서 공기가 되려 하고, 문예상 모든 의견과 주장을 불편부당의 태도로써 포용하고, 조선문예운동의 근저를 공고케 하기 위하여 문예의 민중화, 사회화를 기약하고자 한다. 문예 지식의 보급, 문예 취미의 함양, 문예 사상의 침윤, 문예 작품의 이해, 따라서 문예 작품의 감상안, 비평안을 향상"하는 데 잡지의 목표를 둔다고 하였다. 1호의 서두는 김팔봉의 「프로레타리아 문예의 대중화문제」로 시작했으나 검열로 인해 수록되지 못했다. 염상섭의 평론 「문학상의 집단의식과 개인의식」, 이광수의 평론 「내가 속할 유형」, 양주동의 염상섭·이광수의 일문일답식 인터뷰, 염상섭·김억·윤백남·방인근·박종화·이은상·김팔봉·김동환·양주동 등의 젊은 시절 일기, 주요한·최서해의 가정을 방문한 '문인 가정순례'와 방인근의 이광수 병문안 인터뷰, 문인들이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 영화와 배우, 심훈의 「문예작품의 영화화문제」라는 기사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시조로 「한기소기」(최남선), 「님 그리워」(정인보)가, 시에는 「봄마다 강 언덕엔」(김억), 「한식」(박종화), 번역시 「책형 받은 그에게」(휘트만), 김소월의 「길차부」, 이장희의 「적은 노래」, 양주동의 「조선의 맥박」 등이 발표되었다. 소설로는 염상섭의 「E부인(1)」, 방인근의 「돌아나는 싹」, 김명순의 콩트 「모르는 사람같이」 등이 게재되었다. 신진 시단에는 한정동, 우이동인, 김병호 등의 시가 수록되었다. 2호와 3호에서도 다양한 필진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창간호 표지,
근대서지학회 소장


昭和四年四月三十日 印刷
昭和四年五月三日 發行
京城府天然洞一三二番地
編輯兼發行人 方仁根
平壤府新陽里一五〇番地
印刷人 金逵洞
平壤府新陽里一五〇番地
印刷所 光文社
京城府天然洞一三二番地
發行所 文藝公論社

창간호 판권지,
근대서지학회 소장

『문예공론』이 폭넓게 필진을 수용하고 또 신진 문인과 여류 시인의 발굴에 적극적이었음을 말해준다.

『문예공론』은 국민문학과 계급문학으로 양분된 문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간행되었다. 『문예공론』은 국민문학의 입장에서 계급문학을 인정하는 절충과 통합의 문학론을 전개하며 민족과 계급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문학의 건설을 주창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한 관계로 좌파와 우파를 망라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문예공론』은 3호를 낸 뒤 폐간되었다. 양주동은 그 이유를, 당시 좌파의 문학이 정세에 의하여 '형식에의 재고려'를 운위하였고, 뒤에 이어 '카프'의 총검거가 있어 논쟁의 대상과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간행비를 모두 양주동 자신의 월급으로 충당했지만 2천이 넘는 구독자에도 불구하고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문예공론』은 1920년대 말의 민족문학과 프로문학으로 양분된 문단에서 절충적 입장을 펴며 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제 : 강진호)

핵 심 어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 , 양주동, 염상섭, 절충주의

참고문헌 백철, 『한국의 문학지 60년』, 세대, 1968.

양주동, 『양주동 평론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047 조선문예

朝鮮文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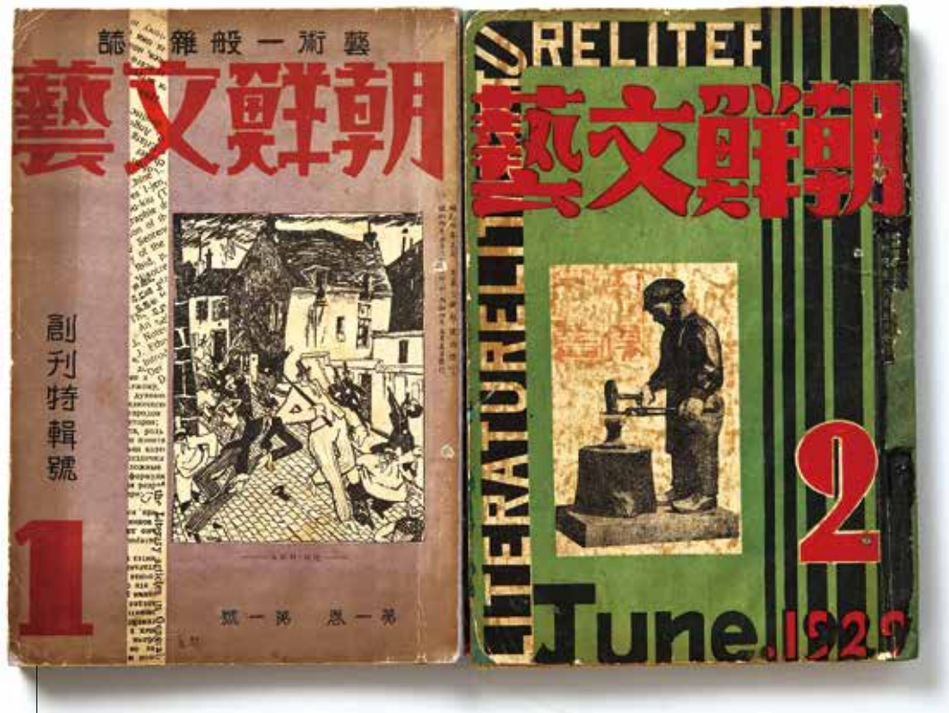
조선문예사

1929.5.5~1929.6.5

아단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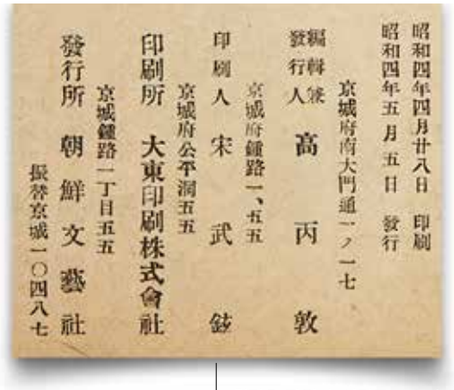
『조선문예』는 1929년 5월 5일에 창간, 동년 6월 2호로 종간된 종합 문예지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고병돈, 인쇄인 송무현(송영), 인쇄소는 대동인쇄, 발행소는 조선문예사이다. 창간호는 122면에 정가 30전으로 발행되었다. 『조선문예』 창간호 표지는 '예술일반잡지 조선문예'라는 책명 밑에 다양한 복색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만화가 실렸다. 창간호는 창작, 문예 시평, 신진작가 소개, 해외 문학자 소개, 해외 문예, 특별 읽을거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창간특집호는 '창작'으로 희곡 「대학생」(김영팔), 소설 「조그만 희열」(이종명), 「조그만 복수」(염상섭) 등이, '신록 수필'로는 「봄의 서장대」(엄흥섭), 「벽성의 봄」(정순정), 「재지(災地)의 봄」(한설야), 「촉석루에 올라서」(김병호), 「만춘의 초당이화」(송양파), 「다단한 송도의 봄」(박재청) 등이 수록되었다. '문예 시평'으로 「단편 서사시의 길로」(김기진), 「문예 시감」(윤기정), 「문예 소감 편린」(송순일), 「나의 문예 잡감」(정순정), 「문단에 대한 희망과 증오」(민병휘) 등이 게재되었고, '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김여수), 「봄이 오는구나」(임화), 「새 거리로」(엄흥섭) 등이 실렸다. '신진작가 소개'란에 백신애, 이일광, 전춘호, 이석신 등이, '해외문학자 소개'란에 로망 로랑, 코론타이, 르네팟상, 카이저 등이 소개되었다. '해외문예'란에는 「그 여자와 애인」(고리키)이 수록되었고, '특별 읽을거리'로 「대경성 파노라마」(최승일), 「고속도 대경성 레뷰」(주일수) 등이, 그리고 영화소설 「이 봄이 가기 전에」(송무현), 「문사 생활상」 등이 게재되었다. 창간호의 주요 필자로는 김기진, 윤기정, 임화, 한설야, 박팔양, 송영, 박영희 등과 같은 당시 카프 문인들 외에 이상화, 이효석, 염상섭, 주요한 등 중도 노선의 작가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창간호 및 2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조선문예』 주간 박영희의 회고에 의하면 "좌익진영에서는 1926년 2월 기관지 『문예운동』을 내었고, 1927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발행하던 『제삼전선』을 흡수하여 통합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1925년 7월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을 결성하고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망을 견고케 한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동경지부에서 『예술운동』이라는 기관지를 내게 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내가 주간이 되어 『조선문예』를 발행했다. 그러나 검열이 너무 가혹하여 표면으로는 일체 이름을 내지 않았고 어물어물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일본 동경에서 발행한 『예술운동』과 경성에서 발행한 『조선문예』는 그 발행 장소만 다를 뿐 사실 상 동일한 지향을 가진 잡지였다. 양자 모두 카프(KAPF)의 이념적 방향성을 따르고 드러냈던 문예지이다. 그러나 『예술운동』뿐만 아니라 『조선문예』 역시 일제의 검열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조선문예』는 2호를 끝으로 종간되었으나 영화, 연극,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고, 특히 카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이론 투쟁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예술 장르를 도입함으로써 이념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고민하고 실험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해제 : 강진호)


昭和四年四月廿八日 印刷
昭和四年五月五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高丙敦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一七
印刷人 宋武鉉 京城府鍾路一、五五
印刷所 大東印刷株式會社 京城府公平洞五五
發行所 朝鮮文藝社 京城鍾路一丁目五五 振替京城一〇四八七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핵 심 어 조선문예사, 프로 문학, 예술운동, 박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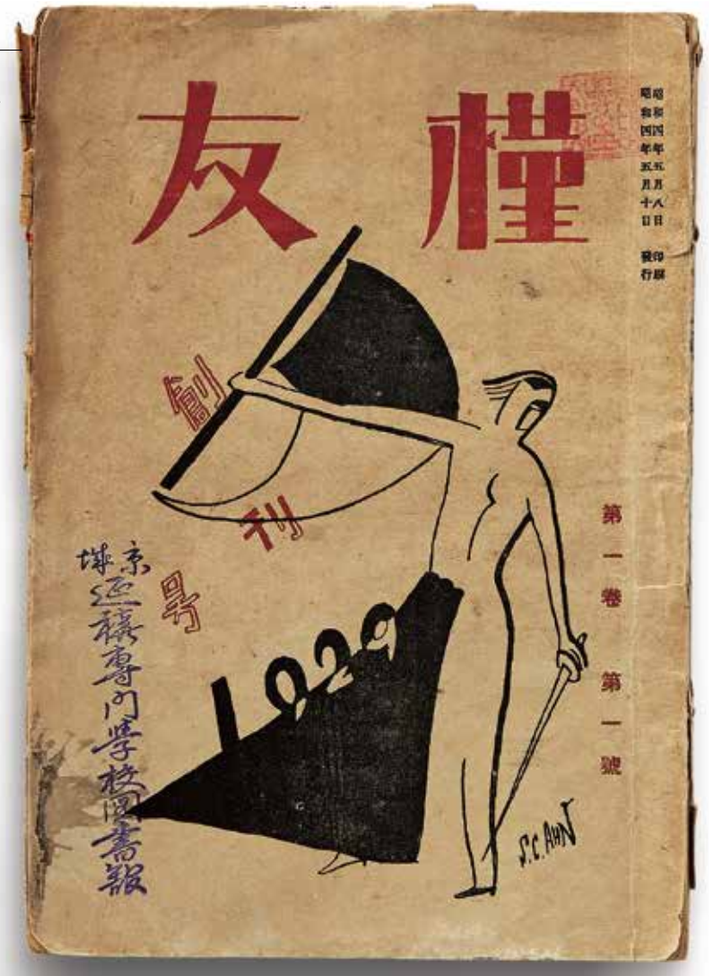
참고문헌 박영희, 「초창기 문단측면사」, 『현대문학』, 1959.8~1960.5(9회)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최병구, 「1920년대 사회주의 대중화 전략과 『조선문예』」, 『반교어문연구』37, 2014.

048 근우

槿友
근우회본부
1929.5.10
연세대 학술정보원



창간호 표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근우』는 1929년 5월 10일에 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槿友會)가 발행한 여성 잡지이다. 창간호를 발행한 뒤 일제에 의해 강제 종간되었다. 창간 당시 편집 겸 발행인은 정칠성, 인쇄소는 창문사, 발행소는 근우회본부(경성부 공평동)이다. 창간호의 표지는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에는 깃발을 든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통해 『근우』가 지향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근우』는 김활란, 허정숙, 유영준, 정칠성, 정종명 등 당시 근우회 핵심 회원들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근우』 창간호에는 권두언을 시작으로 「근우회 강령」, 「근우회 선언」, 「근우회 운동의 회고」(정종명), 「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임무」(허정숙), 「조선 여성운동에 현재」(배성룡), 「근우회의 임무와 발전책」(정헌태), 「근우 운동의 의의와 전망」(이시완), 「금후의 조선 여성운동」(이성환), 〈부인강좌〉 등이 게재되었다. 허정숙의 「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 임무」는 10면이 넘는 분량의 긴 논설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조선의 여성운동 및 근우회 운동의 현황과 방향성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찰했는데, 검열로 인해 많은 분량이 삭제되었다. '회원으로서의 희망'란에는 김선, 우봉운, 홍사희, 김정원, 김영순, 김활란 등이 『근우』와 근우회 운동에 거는 기대와 소회가 실려 있다. 그밖에 「부인의 문학적 지위」(이기영), 「여직공 방문기」(박호진), 「각 지회 상황」 등의 기사와 보고서가 게재되었고, '질의란'에는 폭력 남편, 신식 며느리, 유치원 교육 등에 관한 질의 및 응답이 실렸다. 「여직공 방문기」는 여성 근로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사로, 서울에 있는 서울고무회사, 조선제사주식회사, 영광정미소 등 여성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공장을 찾아가서 그 실태를 소개하였다. 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는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임금은 최저를 받는다는 등과 같이 여공들의 비참한 실상을 소개하였다. 『근우』에는 또한 '단편소설'로 「그림자」(이태준)가 수록되었고, 끝 부분에는 '편집 여언'이 게재되었다.

『근우』의 이른 종간은 근우회의 행보 및 내부 사정과 관련이 깊다. 근우회는 1927년 신간회의 자매기관 격으로 조직되어 조선 여성운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후 여성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 및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이념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昭和四年五月五日 印刷
昭和四年五月十日 發行
【定價金參拾錢】
京城府公平洞四三番地
編輯發行人 權友會出版部 丁星七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印刷人 鄭敬德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印刷所 彰文社
京城府公平洞四三番地
發行所 權友會本部
振替 番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1931년에 해산되었다. 『근우』 창간을 전후로 하여 근우회는 해마다 지회가 늘어나서 1930년까지 전국에 60여 개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근우회는 부인강좌와 순회강연, 각 지회에서의 야학운동 등으로 여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고, 학생운동을 지원하고 봉건적 인습 타파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의 장악력이 강해지자 이에 반발한 기독교계 인사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근우회는 그 구심력을 잃고 내분을 겪게 되었다. 여기에다 일본의 탄압이 가중되어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산되자 근우회 역시 힘을 잃고 해산되고 만다.

『근우』는 근우회의 운동 방향대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적·법률적 차별 철폐, 봉건적 민습과 미신 타파,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주장, 부인노동의 임금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창간과 동시에 종간되었으나, 『근우』는 1930년대 조선 문단과 여성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잡지로 평가된다. (해제 : 강진호)

핵 심 어 조선문예사, 프로 문학, 예술운동, 박영희

참고문헌 박영희, 「초창기 문단측면사」, 『현대문학』, 1959.8~1960.5(9회)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최병구, 「1920년대 사회주의 대중화 전략과 『조선문예』」, 『반교어문연구』37, 2014.

049 신소설

新小說

건설사

1929.12.1~1930.9.1

근대서지학회

『신소설』은 1929년 12월 1일자로 창간된 소설 중심의 문예지이다. 종간호까지 편집인 겸 발행인은 김대식, 인쇄소는 창문사, 발행소는 건설사(서울 경운동 96)이다. 1930년 『해방(解放)』으로 개제되어 대중잡지로 전환되는데, 이때 편집인 겸 발행인은 신민우, 인쇄소는 대성당, 발행소는 서울 경운동 96번지의 해방사였다. 『해방』의 잡지 첫 면에 '사고'로 1)사명 건설사를 해방사로, 2)제호 『신소설』을 『해방』으로 고치고, 3)정가 30전을 20전으로 내린다고 했으며, 판형도 A5판에서 B5판으로 바꾸었다. 「편집후기」에 "제호를 『해방』으로 고친 것은 '해방이 우리의 부르짖는 이상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일제치하에서는 보기 힘든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1930년 9월 통권 5호로 종간되었다.

『신소설』은 소설 중심의 잡지로 출발하였으나 2호부터 시·수필도 게재하였으며, 『해방』으로 제호를 바꾼 뒤에는 야담도 수록하였다. 창간호에는 '소설'로 「정조와 약가」(현진건), 「환원」(최독견), 「남편의 책임」(염상섭), 「이혼」(윤백남), 「아들의 원수」(이광수), 「추억」(이효석), 「은희 부처」(이태준), 「산동이」(채만식), 「광명을 앗기까지」(이기영) 등이 수록되었다. '수필'로는 「첨단어」(최상덕), 「의문의 그 여자」(최서해) 등이, '희곡'으로는 「정사」(구소청), '평론'으로는 이하윤, 김팔봉, 박영희 등의 평문이 있다. 그리고 '야담'과 '독자문단', '시'가 수록되었다. 대중 잡지를 표방한 관계로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수록되었으나, 근본 취지는 소설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홍명희는 「창간사」에서 "조그만 집착과 오만을 버려라! 그리고 냉정히 세계 대세 아래 조선의 앞길을 전망하라. 지금의 조선 사람은 예술을 수요한다 하더라도 이백·두보가 아니오, 세익스피어도 아니요 괴테도 아니다. (중략) 우리는 예술로 살기보다



창간호 표지, 근대서지학회 소장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활을 본위로 예술을 창조하여야겠다. 아니 예술은 구경 우리 생활의 한 도구이다. 우리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 진영을 개척하자."와 같이 생활문학과 생활예술을 제창했다.

『신소설』의 제호를 『해방』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의도의 표현이다. "우리는 제목을 『해방』으로 택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명실이 상부하도록, 현사회의 반동적 또는 추악한 죄악을 폭로하여 해방의 과정에로, 해방의 행진에로 자꾸자꾸 약진을 재촉하려 한다. 이것은 전조선의 지식층 학생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나온 것이다."(『해방』의 「권두언」)와 같이 『해방』은 문학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척결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 취지에서 박영희의 평론 「예술의 형식과 내용의 합목적성」, 이기영의 소설 「광명을 앗기까지」, 김동인의 소설 「죄와 벌-어떤 사형수 이야기」, 이은상의 고담 「종옥전」, 윤백남의 고담 「위조은화」, 이광수의 장편소설 「처」, 최독견의 소설 「연애시장」, 현진건의 소설 「웃는 포사」 등이 『해방』의 정신을 대변한다. 『신소설』은 처음에는 소설 위주의 잡지로 시작했으나 다양한 장르와 내용을 포섭하여 문학의 실질적인 면을 부각하고,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사회 현실을 그린 문학 세계를 추구하였으며, 지식인들을 일깨워 조선의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해제 : 강진호)



창간호 판권지, 근대서지학회 소장

핵 심 어 신소설, 해방, 건설사, 홍명희, 생활문학

참고문헌 이응백·김원경·김선풍,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목록 및 색인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	親睦會會報	창간호	동경 :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1896.02.15	아단문고	x
		2호	동경 :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1896.06.16	아단문고	x
		3호	동경 :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1896.10.23	아단문고	o
		4호	동경 :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1897.03.24	아단문고	x
		5호	동경 :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1897.09.26	아단문고	x
		종간호	동경 :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1898.04.09	아단문고	x
2	大韓自强會月報	창간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6.07.31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6.08.25	아단문고	o
		3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6.09.25	아단문고	o
		4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6.10.25	아단문고	o
		5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6.11.25	아단문고	o
		6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6.12.25	아단문고	o
		7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7.01.25	아단문고	o
		8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7.02.25	아단문고	o
		9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7.03.25	아단문고	o
		10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7.04.25	아단문고	o
		11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7.05.25	아단문고	o
		12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7.06.25	아단문고	o
		종간호	한성 : 대한자강회월보사무소	1907.07.25	아단문고	o
3	太極學報	창간호	동경 : 태극학회	1906.08.24	아단문고	o
		2호	동경 : 태극학회	1906.09.24	아단문고	o
		3호	동경 : 태극학회	1906.10.24	아단문고	o
		4호	동경 : 태극학회	1906.11.24	아단문고	o
		5호	동경 : 태극학회	1906.12.31	아단문고	o
		6호	동경 : 태극학회	1907.02.16	아단문고	o
		7호	동경 : 태극학회	1907.03.13	아단문고	o
		8호	동경 : 태극학회	1907.04.05	아단문고	o
		9호	동경 : 태극학회	1907.05.03	아단문고	o
		10호	동경 : 태극학회	1907.06.03	아단문고	o
		11호	동경 : 태극학회	1907.07.05	아단문고	o
		12호	동경 : 태극학회	1907.08.05	아단문고	o
		13호	동경 : 태극학회	1907.09.24	아단문고	o
		14호	동경 : 태극학회	1907.10.24	아단문고	o
		15호	동경 : 태극학회	1907.11.24	아단문고	o
		16호	동경 : 태극학회	1907.12.24	아단문고	o
		17호	동경 : 태극학회	1908.01.24	아단문고	o
		18호	동경 : 태극학회	1908.02.24	아단문고	o
		19호	동경 : 태극학회	1908.03.24	아단문고	o
		20호	동경 : 태극학회	1908.05.12	아단문고	o
		21호	동경 : 태극학회	1908.05.24	아단문고	o
		22호	동경 : 태극학회	1908.06.24	아단문고	o
		23호	동경 : 태극학회	1908.07.24	아단문고	o
		24호	동경 : 태극학회	1908.09.24	아단문고	o
		25호	동경 : 태극학회	1908.10.24	아단문고	o
		26호	동경 : 태극학회	1908.11.24	아단문고	o
		종간호	동경 : 태극학회	1908.12.20	미확인	x
4	少年韓半島	창간호	황성 : 소년한반도사	1906.11.01	서울대학교	o
		2호	황성 : 소년한반도사	1906.12.01	아단문고	o
		3호	황성 : 소년한반도사	1907.01.01	아단문고	o
		4호	황성 : 소년한반도사	1907.02.01	아단문고	o
		5호	황성 : 소년한반도사	1907.03.01	아단문고	o
		종간호	황성 : 소년한반도사	1907.04.01	아단문고	o
5	西友	창간호	한성 : 서우학회	1906.12.01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1.01	국립중앙도서관	o
		3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2.01	국립중앙도서관	o
		4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3.01	국립중앙도서관	o
		5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4.01	국립중앙도서관	o
		6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5.01	국립중앙도서관	o
		7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6.01	국립중앙도서관	o
		8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7.01	아단문고	o
		9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8.01	아단문고	o
		10호	한성 : 서우학회	1907.09.01	아단문고	o
		11호	한성 : 서우학회	1907.10.01	아단문고	o
		12호	한성 : 서우학회	1907.11.01	아단문고	o
		13호	한성 : 서우학회	1907.12.01	아단문고	o
		14호	한성 : 서우학회	1908.01.01	아단문고	o
		15호	한성 : 서우학회	1908.02.01	아단문고	o
		16호	한성 : 서우학회	1908.03.01	아단문고	o
		종간호	한성 : 서우학회	1908.05.01	아단문고	o
6	夜雷	창간호	한성 : 야뢰보관	1907.02.05	서울대학교	x
		2호	한성 : 야뢰보관	1907.03.05	국립중앙도서관	x
		3호	한성 : 야뢰보관	1907.04.05	서울대학교	x
		4호	한성 : 야뢰보관	1907.05.05	서울대학교	x
		5호	한성 : 야뢰보관	1907.06.05	서울대학교	x
		종간호	한성 : 야뢰보관	1907.07.05	서울대학교	x
7	大東學會月報	창간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02.25	서울대학교	o
		2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03.25	미확인	o
		3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04.25	고려대학교	o
		4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05.25	고려대학교	o
		5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06.25	미확인	o
		6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07.25	고려대학교	o
		7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08.25	고려대학교	o
		8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09.25	고려대학교	o
		9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10.25	고려대학교	o
		10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11.25	아단문고	o
		11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8.12.25	미확인	o
		12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1.25	아단문고	o
		13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2.25	아단문고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4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3.25	아단문고	o
		15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4.25	아단문고	o
		16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5.25	아단문고	o
		17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6.25	아단문고	o
		18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7.25	아단문고	o
		19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8.25	아단문고	o
		종간호	한성 : 대동학회회관	1909.09.25	아단문고	o
8	大韓學會月報	창간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02.25	연세대학교	o
		2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03.25	아단문고	o
		3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04.25	아단문고	o
		4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05.25	아단문고	o
		5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06.25	아단문고	o
		6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07.25	아단문고	o
		7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09.25	아단문고	o
		8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10.25	아단문고	o
		종간호	동경 : 대한학회사무소	1908.11.25	아단문고	o
9	大韓協會會報	창간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04.25	연세대학교	o
		2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05.25	아단문고	o
		3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06.25	아단문고	o
		4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07.25	아단문고	o
		5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08.25	아단문고	o
		6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09.25	아단문고	o
		7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10.25	아단문고	o
		8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11.25	아단문고	o
		9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8.12.25	아단문고	o
		10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9.01.25	아단문고	o
		11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9.02.25	아단문고	o
		종간호	한성 : 대한협회사무소	1909.03.25	아단문고	o
10	西北學會月報	창간호	한성 : 서북학회	1908.06.01	아단문고	o
		2호	한성 : 서북학회	1908.07.01	아단문고	o
		3호	한성 : 서북학회	1908.08.01	아단문고	o
		4호	한성 : 서북학회	1908.09.01	아단문고	o
		5호	한성 : 서북학회	1908.10.01	아단문고	o
		6호	한성 : 서북학회	1908.11.01	아단문고	o
		7호	한성 : 서북학회	1908.12.01	아단문고	o
		8호	한성 : 서북학회	1909.01.01	아단문고	o
		9호	한성 : 서북학회	1909.02.01	아단문고	o
		10호	한성 : 서북학회	1909.03.01	아단문고	o
		11호	한성 : 서북학회	1909.04.01	아단문고	o
		12호	한성 : 서북학회	1909.05.01	아단문고	o
		13호	한성 : 서북학회	1909.06.01	아단문고	o
		14호	한성 : 서북학회	1909.07.01	아단문고	o
		15호	한성 : 서북학회	1909.08.01	아단문고	o
		16호	한성 : 서북학회	1909.10.01	아단문고	o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7호	한성 : 서북학회	1909.11.01	아단문고	o
		18호	한성 : 서북학회	1909.12.01	서울대학교	o
		19호	한성 : 서북학회	1910.01.01	아단문고	o
		20호	한성 : 서북학회	1910.02.01	국립중앙도서관	x
		21호	—	—	미확인	x
		22호	한성 : 서북학회	1910.04.01	서울대학교	x
		23호	—	—	미확인	x
		24호	한성 : 서북학회	1910.06.24	개인 소장	x
		종간호	한성 : 서북학회	1910.07.01	서울대학교	x
11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8.08.25	연세대학교	o
		2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8.09.25	아단문고	o
		3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8.10.25	아단문고	o
		4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8.11.25	아단문고	o
		5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8.12.25	아단문고	o
		6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9.01.25	아단문고	o
		7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9.02.25	아단문고	o
		8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9.03.25	아단문고	o
		9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9.04.25	아단문고	o
		10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9.05.25	아단문고	o
		11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9.06.25	아단문고	o
		종간호	황성 : 기호흥학회사무소	1909.07.25	아단문고	o
12	少年	창간호	한성 : 신문관	1908.11.01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한성 : 신문관	1908.12.01	아단문고	o
		3호	한성 : 신문관	1909.01.01	국립중앙도서관	o
		4호	한성 : 신문관	1909.02.01	국립중앙도서관	o
		5호	한성 : 신문관	1909.03.01	국립중앙도서관	o
		6호	한성 : 신문관	1909.04.01	국립중앙도서관	o
		7호	한성 : 신문관	1909.05.01	국립중앙도서관	o
		8호	한성 : 신문관	1909.07.01	아단문고	o
		9호	한성 : 신문관	1909.08.01	아단문고	o
		10호	한성 : 신문관	1909.09.01	아단문고	o
		11호	한성 : 신문관	1909.10.01	아단문고	o
		12호	한성 : 신문관	1909.11.01	아단문고	o
		13호	한성 : 신문관	1910.01.15	아단문고	o
		14호	한성 : 신문관	1910.02.15	국립중앙도서관	o
		15호	한성 : 신문관	1910.03.15	아단문고	o
		16호	한성 : 신문관	1910.04.15	아단문고	o
		17호	한성 : 신문관	1910.05.15	아단문고	o
		18호	한성 : 신문관	1910.06.15	아단문고	o
		19호	한성 : 신문관	1910.07.15	아단문고	o
		20호	한성 : 신문관	1910.08.15	아단문고	o
		21호	한성 : 신문관	1910.12.15	아단문고	o
		22호	—	—	미간행	x
		종간호	한성 : 신문관	1911.05.15	아단문고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3	大韓興學報	창간호	동경 : 대한흥학회사무소	1909.03.20	서울대학교	o
		2호	동경 : 대한흥학회사무소	1909.04.20	아단문고	o
		3호	동경 : 대한흥학회사무소	1909.05.20	아단문고	o
		4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09.06.20	고려대학교	o
		5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09.07.20	아단문고	o
		6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09.10.20	아단문고	o
		7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09.11.20	아단문고	o
		8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09.12.20	아단문고	o
		9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10.01.20	아단문고	o
		10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10.02.20	아단문고	o
		11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10.03.20	아단문고	o
		12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10.04.20	아단문고	o
		종간호	동경 : 대한흥학회출판부	1910.05.20	아단문고	o
14	새별	창간호~14호	—	—	미확인	x
		15호	경성 : 신문관	1914.12.05	서울대학교	o
		종간호	경성 : 신문관	1915.01.14	국회도서관	o
15	붉은져고리	창간호	경성 : 신문관	1913.01.01	미확인	o
		2호	경성 : 신문관	1913.01.15	신문박물관	o
		3호	경성 : 신문관	1913.02.01	미확인	o
		4호	경성 : 신문관	1913.02.15	미확인	o
		5호	경성 : 신문관	1913.03.01	미확인	o
		6호	경성 : 신문관	1913.03.15	미확인	o
		7호	경성 : 신문관	1913.04.01	미확인	o
		8호	경성 : 신문관	1913.04.15	미확인	o
		9호	경성 : 신문관	1913.05.01	미확인	o
		10호	경성 : 신문관	1913.05.15	미확인	o
		11호	경성 : 신문관	1913.06.01	미확인	o
		종간호	경성 : 신문관	1913.06.15	미확인	x
16	아이들보이	창간호	경성 : 신문관	1913.09.05	아단문고	o
		2호	경성 : 신문관	1913.10.05	아단문고	o
		3호	경성 : 신문관	1913.11.05	아단문고	o
		4호	경성 : 신문관	1913.12.05	아단문고	o
		5호	경성 : 신문관	1914.01.05	아단문고	o
		6호	경성 : 신문관	1914.02.05	아단문고	o
		7호	경성 : 신문관	1914.03.05	아단문고	o
		8호	경성 : 신문관	1914.04.05	아단문고	o
		9호	경성 : 신문관	1914.05.05	아단문고	o
		10호	경성 : 신문관	1914.06.05	아단문고	o
		11호	경성 : 신문관	1914.07.10	아단문고	o
		12호	경성 : 신문관	1914.08.05	아단문고	o
		종간호	경성 : 신문관	1914.10.05	아단문고	o
17	學之光	창간호	동경 : 동양각	1914.04.02	미확인	x
		2호	동경 : 동양각	1914.04.20	아단문고	o
		3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4.12.03	고려대학교	o
		4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5.02.27	미확인	o
		5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5.05.02	미확인	o
		6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5.07.23	아단문고	o
		7호	—	—	미간행	x
		8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6.03.04	개인 소장	x
		9호	—	—	미간행	x
		10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6.09.04	연세대학교	o
		11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7.01.01	아단문고	o
		12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7.04.19	아단문고	o
		13호	동경 : 학지광발행소	1917.07.19	아단문고	o
		14호	동경 : 학지광사	1917.12.20	아단문고	o
		15호	동경 : 학지광사	1918.03.25	아단문고	o
		16호	—	—	미확인	x
		17호	동경 : 학지광사	1918.08.15	아단문고	o
		18호	동경 : 학지광사	1919.01.03	아단문고	o
		19호	동경 : 학지광사	1920.01.26	아단문고	o
		20호	동경 : 학지광사	1920.07.02	아단문고	o
		21호	동경 : 학지광사	1921.01.31	아단문고	o
		22호	동경 : 학지광사	1921.06.21	고려대학교	o
		23호~25호	—	—	미확인	x
		26호	동경 : 학지광사	1925.05.03	아단문고	o
		27호	동경 : 학지광사	1926.05.24	아단문고	o
		28호	동경 : 학지광사	1927.03.10	아단문고	o
		29호	동경 : 학지광사	1930.04.05	아단문고	o
		종간호	동경 : 학지광사	1930.12.27	아단문고	o
18	靑春	창간호	경성 : 신문관	1914.10.01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경성 : 신문관	1914.11.01	국립중앙도서관	o
		3호	경성 : 신문관	1914.12.01	국립중앙도서관	o
		4호	경성 : 신문관	1915.01.01	국립중앙도서관	o
		5호	—	—	미확인	x
		6호	경성 : 신문관	1915.03.01	국립중앙도서관	o
		7호	경성 : 신문관	1917.05.16	아단문고	o
		8호	경성 : 신문관	1917.06.16	국립중앙도서관	o
		9호	경성 : 신문관	1917.07.26	국립중앙도서관	o
		10호	경성 : 신문관	1917.09.16	국립중앙도서관	o
		11호	경성 : 신문관	1917.11.16	국립중앙도서관	o
		12호	경성 : 신문관	1918.03.16	국립중앙도서관	o
		13호	경성 : 신문관	1918.04.16	국립중앙도서관	o
		14호	경성 : 신문관	1918.06.16	국립중앙도서관	o
		종간호	경성 : 신문관	1918.09.26	국립중앙도서관	o
19	半島時論	창간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04.10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05.10	국립중앙도서관	o
		3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06.10	국립중앙도서관	o
		4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07.10	국립중앙도서관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5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08.10	국립중앙도서관	o
		6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09.10	국립중앙도서관	o
		7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10.10	국립중앙도서관	o
		8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11.10	국립중앙도서관	o
		9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7.12.10	국립중앙도서관	o
		10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1.10	한국학중앙연구원	o
		11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2.10	한국학중앙연구원	o
		12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3.10	한국학중앙연구원	o
		13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4.10	고려대학교	o
		14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5.10	아단문고	o
		15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6.10	개인 소장	o
		16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7.10	미확인	o
		17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8.10	미확인	o
		18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09.10	아단문고	o
		19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10.10	아단문고	o
		20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11.10	아단문고	o
		21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8.12.10	아단문고	o
		22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9.01.10	아단문고	o
		23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9.02.10	미확인	o
		24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9.03.10	미확인	o
		종간호	동경 : 반도시론사	1919.04.10	아단문고	o
20	女子界	창간호	경성 : 여자계사	1917.06.00	미확인	x
		2호	경성 : 여자계사	1918.03.22	연세대학교	o
		3호	경성 : 여자계사	1918.09.10	연세대학교	x
		4호	경성 : 여자계사	1920.03.25	연세대학교	x
		5호	경성 : 여자계사	1920.06.25	미확인	x
		6호	경성 : 여자계사	1921.01.11	아단문고	o
		7호	—	—	미확인	x
		속간4호	경성 : 여자계사	1927.01.03	연세대학교	x
21	惟心	창간호	경성 : 유심사	1918.09.01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경성 : 유심사	1918.10.01	국립중앙도서관	o
		종간호	경성 : 유심사	1918.12.01	국립중앙도서관	o
22	泰西文藝新報	창간호	—	1918.09.26	미확인	o
		2호	—	1918.10.13	미확인	o
		3호	—	1918.10.19	미확인	o
		4호	—	1918.10.26	미확인	o
		5호	—	1918.11.02	미확인	o
		6호	—	1918.11.09	미확인	o
		7호	—	1918.11.16	미확인	o
		8호	—	—	미확인	x
		9호	—	1918.11.30	미확인	o
		10호	—	1918.12.07	미확인	o
		11호	—	1918.12.14	미확인	o
		12호	—	1918.12.25	미확인	o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3호	—	1919.01.01	미확인	o
		14호	—	1919.01.13	미확인	o
		15호	—	—	미확인	x
		종간호	—	1919.02.17	미확인	o
23	新青年	창간호	경성 : 영풍서관	1919.01.20	미확인	o
		2호	경성 : 영풍서관	1919.12.08	미확인	o
		3호	경성 : 경성청년구락부	1920.08.01	개인 소장	x
		4호	경성 : 경성청년구락부	1921.01.01	아단문고	x
		5호	—	—	미확인	x
		종간호	경성 : 경성청년구락부	1921.07.15	아단문고	x
24	創造	창간호	동경 : 창조사	1919.02.01	아단문고	o
		2호	동경 : 창조사	1919.03.20	아단문고	o
		3호	동경 : 창조사	1919.12.10	아단문고	o
		4호	동경 : 창조사	1920.02.23	아단문고	o
		5호	동경 : 창조사	1920.03.31	아단문고	o
		6호	동경 : 창조사	1920.05.25	아단문고	o
		7호	동경 : 창조사	1920.07.28	아단문고	o
		8호	동경 : 창조사	1921.01.27	아단문고	o
		종간호	동경 : 창조사	1921.05.30	아단문고	o
25	三光	창간호	동경 : 삼광사	1919.02.10	연세대학교	x
		2호	동경 : 삼광사	1919.12.28	연세대학교	x
		종간호	동경 : 삼광사	1920.04.15	아단문고	x
26	曙光	창간호	경성 : 문흥사	1919.11.30	연세대학교	x
		2호	경성 : 문흥사	1920.01.18	연세대학교	x
		3호	경성 : 문흥사	1920.02.18	아단문고	x
		4호	경성 : 문흥사	1920.03.31	연세대학교	x
		5호	경성 : 문흥사	1920.06.01	아단문고	x
		6호	경성 : 문흥사	1920.07.05	아단문고	x
		7호	경성 : 문흥사	1920.09.01	아단문고	x
		종간호	경성 : 문흥사	1921.01.18	아단문고	x
27	開闢	창간호	경성 : 개벽사	1920.06.25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경성 : 개벽사	1920.07.25	국립중앙도서관	o
		3호	경성 : 개벽사	1920.08.25	국립중앙도서관	o
		4호	경성 : 개벽사	1920.09.25	아단문고	o
		5호	경성 : 개벽사	1920.11.01	아단문고	o
		6호	경성 : 개벽사	1920.12.01	국립중앙도서관	o
		7호	경성 : 개벽사	1921.01.01	국립중앙도서관	o
		8호	경성 : 개벽사	1921.02.01	국립중앙도서관	o
		9호	경성 : 개벽사	1921.03.01	국립중앙도서관	o
		10호	경성 : 개벽사	1921.04.01	국립중앙도서관	o
		11호	경성 : 개벽사	1921.05.01	국립중앙도서관	o
		12호	경성 : 개벽사	1921.06.01	아단문고	o
		13호	경성 : 개벽사	1921.07.01	국립중앙도서관	o
		14호	경성 : 개벽사	1921.08.01	국립중앙도서관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5호	경성 : 개벽사	1921.09.01	국립중앙도서관	o
		16호	경성 : 개벽사	1921.10.18	국립중앙도서관	o
		17호	경성 : 개벽사	1921.11.01	국립중앙도서관	o
		18호	경성 : 개벽사	1921.12.01	국립중앙도서관	o
		19호	경성 : 개벽사	1922.01.25	아단문고	o
		20호	경성 : 개벽사	1922.02.01	국립중앙도서관	o
		21호	경성 : 개벽사	1922.03.01	국립중앙도서관	o
		22호	경성 : 개벽사	1922.04.01	국립중앙도서관	o
		23호	경성 : 개벽사	1922.05.01	국립중앙도서관	o
		24호	경성 : 개벽사	1922.06.01	국립중앙도서관	o
		25호	경성 : 개벽사	1922.07.10	국립중앙도서관	o
		26호	경성 : 개벽사	1922.08.01	국립중앙도서관	o
		27호	경성 : 개벽사	1922.09.01	국립중앙도서관	o
		28호	경성 : 개벽사	1922.10.01	국립중앙도서관	o
		29호	경성 : 개벽사	1922.11.01	국립중앙도서관	o
		30호	경성 : 개벽사	1922.12.01	국립중앙도서관	o
		31호	경성 : 개벽사	1923.01.01	아단문고	o
		32호	경성 : 개벽사	1923.02.01	국립중앙도서관	o
		33호	경성 : 개벽사	1923.03.01	국립중앙도서관	o
		34호	경성 : 개벽사	1923.04.01	국립중앙도서관	o
		35호	경성 : 개벽사	1923.05.01	국립중앙도서관	o
		36호	경성 : 개벽사	1923.06.01	아단문고	o
		37호	경성 : 개벽사	1923.07.01	아단문고	o
		38호	경성 : 개벽사	1923.08.01	국립중앙도서관	o
		39호	경성 : 개벽사	1923.09.01	국립중앙도서관	o
		40호	경성 : 개벽사	1923.10.01	국립중앙도서관	o
		41호	경성 : 개벽사	1923.11.01	국립중앙도서관	o
		42호	경성 : 개벽사	1923.12.01	아단문고	o
		43호	경성 : 개벽사	1924.01.01	아단문고	o
		44호	경성 : 개벽사	1924.02.01	국립중앙도서관	o
		45호	경성 : 개벽사	1924.03.01	국립중앙도서관	o
		46호	경성 : 개벽사	1924.04.01	아단문고	o
		47호	경성 : 개벽사	1924.05.01	아단문고	o
		48호	경성 : 개벽사	1924.06.01	아단문고	o
		49호	경성 : 개벽사	1924.07.01	아단문고	o
		50호	경성 : 개벽사	1924.08.01	국립중앙도서관	o
		51호	경성 : 개벽사	1924.09.01	국회도서관	o
		52호	경성 : 개벽사	1924.10.01	국립중앙도서관	o
		53호	경성 : 개벽사	1924.11.01	아단문고	o
		54호	경성 : 개벽사	1924.12.01	국립중앙도서관	o
		55호	경성 : 개벽사	1925.01.01	아단문고	o
		56호	경성 : 개벽사	1925.02.01	국립중앙도서관	o
		57호	경성 : 개벽사	1925.03.01	국립중앙도서관	o
		58호	경성 : 개벽사	1925.04.01	국립중앙도서관	o
		59호	경성 : 개벽사	1925.05.01	국립중앙도서관	o
		60호	경성 : 개벽사	1925.06.01	국립중앙도서관	o
		61호	경성 : 개벽사	1925.07.01	아단문고	o
		62호	경성 : 개벽사	1925.08.01	아단문고	o
		63호	경성 : 개벽사	1925.11.01	아단문고	o
		64호	경성 : 개벽사	1925.12.01	아단문고	o
		65호	경성 : 개벽사	1926.01.01	고려대학교	o
		66호	경성 : 개벽사	1926.02.01	고려대학교	o
		67호	경성 : 개벽사	1926.03.01	국회도서관	o
		68호	경성 : 개벽사	1926.04.01	고려대학교	o
		69호	경성 : 개벽사	1926.05.01	연세대학교	o
		70호	경성 : 개벽사	1926.06.01	국회도서관	o
		71호	경성 : 개벽사	1926.07.01	고려대학교	o
		72호	경성 : 개벽사	1926.08.01	미확인	o
		신간1권1호	경성 : 개벽사	1934.11.01	국립중앙도서관	o
		1권2호	경성 : 개벽사	1934.12.01	국립중앙도서관	o
		2권1호	경성 : 개벽사	1935.01.01	아단문고	o
		2권2호	경성 : 개벽사	1935.03.01	국립중앙도서관	o
		73호	경성 : 개벽사	1946.01.01	국립중앙도서관	o
		74호	경성 : 개벽사	1946.04.01	국립중앙도서관	o
		75호	경성 : 개벽사	1947.08.01	국립중앙도서관	o
		76호	경성 : 개벽사	1948.01.01	국립중앙도서관	o
		77호	경성 : 개벽사	1948.03.01	국립중앙도서관	o
		78호	경성 : 개벽사	1948.05.05	국립중앙도서관	o
		79호	경성 : 개벽사	1948.08.01	국립중앙도서관	o
		80호	경성 : 개벽사	1948.12.20	국립중앙도서관	o
		종간호	경성 : 개벽사	1949.03.25	국립중앙도서관	o
28	廢墟	창간호	경성 : 폐허사	1920.07.25	서울대학교	o
		종간호	경성 : 신반도사	1921.01.20	아단문고	o
	廢墟以後	창간/종간호	경성 : 폐허이후사	1924.01.01	아단문고	o
29	薔薇村	창간/종간호	경성 : 장미촌사	1921.05.24	아단문고	o
30	白潮	창간호	경성 : 문화사	1922.01.09	연세대학교	o
		2호	경성 : 문화사	1922.05.02	아단문고	o
		종간호	경성 : 문화사	1923.09.06	아단문고	o
31	朝鮮之光	창간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2.11.01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3.01.01	아단문고	o
		3호~20호	—	—	미확인	x
		21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5.10.10	독립기념관	x
		22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5.10.17	독립기념관	x
		23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5.10.24	독립기념관	x
		24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5.10.31	독립기념관	x
		25호~26호	—	—	미확인	x
		27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5.11.21	독립기념관	x
		28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5.11.28	독립기념관	x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29호~57호	—	—	미확인	x
		58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6.08.10	아단문고	x
		59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6.09.04	연세대학교	x
		60호	—	—	미확인	x
		61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6.11.01	아단문고	o
		62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6.12.01	아단문고	x
		63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1.01	아단문고	x
		64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2.01	아단문고	o
		65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3.01	아단문고	o
		66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4.01	아단문고	x
		67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5.01	아단문고	o
		68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6.01	연세대학교	o
		69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7.01	국립중앙도서관	o
		70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8.01	아단문고	o
		71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09.01	아단문고	o
		72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10.01	아단문고	o
		73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11.01	아단문고	o
		74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7.12.01	아단문고	o
		75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8.01.01	아단문고	o
		76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8.02.01	국립중앙도서관	o
		77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8.04.01	아단문고	o
		78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8.05.10	미확인	o
		79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8.07.01	아단문고	o
		80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8.09.01	연세대학교	o
		81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8.11.01	아단문고	o
		82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9.01.01	아단문고	o
		83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9.02.01	연세대학교	o
		84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9.04.01	아단문고	o
		85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9.06.01	고려대학교	o
		86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9.08.01	연세대학교	o
		87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9.09.01	국립중앙도서관	o
		88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29.11.01	아단문고	o
		89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30.01.05	연세대학교	o
		90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30.03.01	아단문고	o
		91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30.06.01	연세대학교	o
		92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30.08.18	연세대학교	o
		93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30.11.18	아단문고	x
		94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31.01.18	아단문고	o
		95호~99호	—	—	미확인	x
		종간호	경성 : 조선지광사	1932.02.00	연세대학교	x
32	어린이	창간호	경성 : 개벽사	1923.03.20	미확인	o
		2호	경성 : 개벽사	1923.04.01	미확인	o
		3호	경성 : 개벽사	1923.04.23	연세대학교	o
		4호~7호	—	—	미확인	x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8호	경성 : 개벽사	1923.09.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9호	경성 : 개벽사	1923.10.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0호	경성 : 개벽사	1923.11.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1호	경성 : 개벽사	1923.12.2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2호	경성 : 개벽사	1924.01.0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3호	경성 : 개벽사	1924.02.1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4호	경성 : 개벽사	1924.03.1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5호	경성 : 개벽사	1924.04.1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6호	경성 : 개벽사	1924.05.1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7호	경성 : 개벽사	1924.06.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8호	경성 : 개벽사	1924.07.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9호	경성 : 개벽사	1924.08.0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20호	경성 : 개벽사	1924.09.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21호	경성 : 개벽사	1924.10.1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22호	경성 : 개벽사	1924.11.09	개인 소장	o
		23호	경성 : 개벽사	1924.12.11	개인 소장	o
		24호	경성 : 개벽사	1925.01.01	개인 소장	x
		25호	경성 : 개벽사	1925.02.01	아단문고	o
		26호	경성 : 개벽사	1925.03.01	아단문고	o
		27호	경성 : 개벽사	1925.04.01	아단문고	o
		28호	경성 : 개벽사	1925.05.01	아단문고	o
		29호	경성 : 개벽사	1925.06.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30호	경성 : 개벽사	1925.07.01	아단문고	o
		31호	경성 : 개벽사	1925.08.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32호	경성 : 개벽사	1925.09.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33호	경성 : 개벽사	1925.10.01	아단문고	o
		34호	경성 : 개벽사	1925.11.01	아단문고	o
		35호	경성 : 개벽사	1925.12.01	아단문고	o
		36호	경성 : 개벽사	1926.01.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37호	경성 : 개벽사	1926.02.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38호	경성 : 개벽사	1926.03.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39호	경성 : 개벽사	1926.04.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40호	경성 : 개벽사	1926.05.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41호	경성 : 개벽사	1926.06.0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42호	경성 : 개벽사	1926.07.3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43호	경성 : 개벽사	1926.09.01	아단문고	o
		44호	경성 : 개벽사	1926.10.01	개인 소장	o
		45호	경성 : 개벽사	1926.11.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46호	경성 : 개벽사	1926.12.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47호	경성 : 개벽사	1927.01.01	아단문고	o
		48호	경성 : 개벽사	1927.02.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49호	경성 : 개벽사	1927.03.01	개인 소장	o
		50호	경성 : 개벽사	1927.04.01	고려대학교	o
		51호	경성 : 개벽사	1927.06.01	개인 소장	x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52호	경성 : 개벽사	1927.07.22	개인 소장	o
		53호	경성 : 개벽사	1927.10.01	아단문고	o
		54호	경성 : 개벽사	1927.12.01	개인 소장	o
		55호	경성 : 개벽사	1928.01.20	아단문고	o
		56호	경성 : 개벽사	1928.03.20	아단문고	o
		57호	경성 : 개벽사	1928.05.20	고려대학교	o
		58호	경성 : 개벽사	1928.07.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59호	경성 : 개벽사	1928.09.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60호	경성 : 개벽사	1928.10.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61호	경성 : 개벽사	1928.12.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62호	경성 : 개벽사	1929.01.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63호	경성 : 개벽사	1929.02.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64호	경성 : 개벽사	1929.03.20	아단문고	o
		65호	경성 : 개벽사	1929.05.10	개인 소장	o
		66호	경성 : 개벽사	1929.06.18	고려대학교	o
		67호	경성 : 개벽사	1929.07.20	고려대학교	o
		68호	경성 : 개벽사	1929.08.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69호	경성 : 개벽사	1929.10.20	아단문고	o
		70호	경성 : 개벽사	1929.12.20	국회도서관	o
		71호	경성 : 개벽사	1930.01.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72호	경성 : 개벽사	1930.02.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73호	경성 : 개벽사	1930.03.20	개인 소장	o
		74호	경성 : 개벽사	1930.04.20	고려대학교	o
		75호	경성 : 개벽사	1930.05.20	개인 소장	o
		76호	경성 : 개벽사	1930.07.20	개인 소장	o
		77호	경성 : 개벽사	1930.08.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78호	경성 : 개벽사	1930.09.20	고려대학교	o
		79호	경성 : 개벽사	1930.11.20	개인 소장	o
		80호	경성 : 개벽사	1930.12.20	고려대학교	o
		81호	경성 : 개벽사	1931.01.01	개인 소장	x
		82호	경성 : 개벽사	1931.02.20	고려대학교	o
		83호	경성 : 개벽사	1931.03.20	개인 소장	x
		84호	경성 : 개벽사	1931.05.20	개인 소장	x
		85호	경성 : 개벽사	1931.06.20	국회도서관	o
		86호	경성 : 개벽사	1931.07.20	개인 소장	x
		87호	경성 : 개벽사	1931.08.20	개인 소장	o
		88호	경성 : 개벽사	1931.09.1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89호	경성 : 개벽사	1931.10.20	개인 소장	x
		90호	경성 : 개벽사	1931.11.20	개인 소장	x
		91호	경성 : 개벽사	1931.12.20	개인 소장	o
		92호	경성 : 개벽사	1932.01.20	개인 소장	x
		93호	경성 : 개벽사	1932.02.20	개인 소장	x
		94호	경성 : 개벽사	1932.03.20	개인 소장	x
		95호	경성 : 개벽사	1932.04.20	연세대학교	x
		96호	경성 : 개벽사	1932.05.20	아단문고	o
		97호	경성 : 개벽사	1932.06.20	아단문고	o
		98호	경성 : 개벽사	1932.07.20	아단문고	o
		99호	경성 : 개벽사	1932.08.20	아단문고	o
		100호	경성 : 개벽사	1932.09.20	아단문고	o
		101호	경성 : 개벽사	1932.10.20	개인 소장	x
		102호	경성 : 개벽사	1932.11.20	개인 소장	x
		103호	경성 : 개벽사	1932.12.20	개인 소장	x
		104호	—	—	미확인	x
		105호	경성 : 개벽사	1933.02.20	연세대학교	o
		106호	경성 : 개벽사	1933.03.20	개인 소장	x
		107호	—	—	미확인	x
		108호	경성 : 개벽사	1933.05.20	아단문고	o
		109호	경성 : 개벽사	1933.06.20	개인 소장	x
		110호	경성 : 개벽사	1933.07.20	개인 소장	x
		111호	경성 : 개벽사	1933.08.20	개인 소장	x
		112호	경성 : 개벽사	1933.09.20	개인 소장	x
		113호	경성 : 개벽사	1933.10.20	개인 소장	x
		114호	경성 : 개벽사	1933.11.20	개인 소장	x
		115호	경성 : 개벽사	1933.12.20	개인 소장	x
		116호	경성 : 개벽사	1934.01.20	아단문고	o
		117호	경성 : 개벽사	1934.02.20	아단문고	o
		118호	경성 : 개벽사	1934.03.20	개인 소장	x
		119호	경성 : 개벽사	1934.04.20	개인 소장	x
		120호	경성 : 개벽사	1934.05.20	개인 소장	x
		121호	경성 : 개벽사	1934.06.20	개인 소장	x
		122호	경성 : 개벽사	1935.03.01	개인 소장	x
		123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8.05.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24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8.06.05	개인 소장	o
		125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8.08.05	개인 소장	o
		126호	—	—	미확인	x
		127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8.10.05	개인 소장	o
		128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8.11.05	개인 소장	o
		129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8.12.05	개인 소장	o
		130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9.02.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31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9.03.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o
		132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9.04.05	개인 소장	o
		133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9.05.05	개인 소장	o
		134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9.06.05	개인 소장	o
		135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9.07.01	개인 소장	o
		136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9.10.01	개인 소장	o
		종간호	경성 : 주식회사 개벽사	1949.12.01	개인 소장	o
33	新女性	창간호	경성 : 개벽사	1923.09.01	미확인	x
		1권 2호	경성 : 개벽사	1923.10.25	미확인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권 3호~2권 2호	—	—	미확인	x
		2권 3호	경성 : 개벽사	1924.03.20	개인 소장	o
		2권 4호	—	—	미확인	x
		2권 5호	경성 : 개벽사	1924.05.12	개인 소장	o
		2권 6호	경성 : 개벽사	1924.06.17	개인 소장	o
		2권 7호	경성 : 개벽사	1924.07.30	미확인	o
		2권 8호	경성 : 개벽사	1924.08.30	개인 소장	o
		2권 9호	—	—	미확인	x
		2권 10호	경성 : 개벽사	1924.10.17	아단문고	o
		2권 11호	경성 : 개벽사	1924.11.17	개인 소장	o
		2권 12호	경성 : 개벽사	1924.12.19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1호	경성 : 개벽사	1925.01.01	연세대학교	o
		3권 2호	경성 : 개벽사	1925.02.11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3호	경성 : 개벽사	1925.03.10	국립중앙도서관	x
		3권 4호	경성 : 개벽사	1925.04.01	국립중앙도서관	x
		3권 5호	경성 : 개벽사	1925.05.01	연세대학교	o
		3권 6호	경성 : 개벽사	1925.06.20	연세대학교	o
		3권 8호	경성 : 개벽사	1925.08.01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9호	경성 : 개벽사	1925.09.01	연세대학교	x
		3권 10호	경성 : 개벽사	1925.10.01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11호	경성 : 개벽사	1925.11.01	연세대학교	o
		4권 1호	경성 : 개벽사	1926.01.01	아단문고	o
		4권 2호	경성 : 개벽사	1926.02.01	아단문고	o
		4권 3호	경성 : 개벽사	1926.03.01	아단문고	o
		4권 4호	경성 : 개벽사	1926.04.01	연세대학교	o
		4권 5호	경성 : 개벽사	1926.05.01	연세대학교	x
		4권 6호	경성 : 개벽사	1926.06.01	개인 소장	o
		4권 7호	경성 : 개벽사	1926.07.01	개인 소장	o
		4권 8호	경성 : 개벽사	1926.08.01	개인 소장	o
		4권 9호	경성 : 개벽사	1926.09.01	개인 소장	o
		4권 10호	경성 : 개벽사	1926.10.01	개인 소장	o
		5권 1호	경성 : 개벽사	1931.01.01	연세대학교	o
		5권 2호	경성 : 개벽사	1931.02.01	개인 소장	o
		5권 3호	경성 : 개벽사	1931.03.15	아단문고	o
		5권 4호	경성 : 개벽사	1931.04.20	개인 소장	o
		5권 5호	경성 : 개벽사	1931.06.01	아단문고	o
		5권 6호	경성 : 개벽사	1931.07.01	개인 소장	o
		5권 7호	경성 : 개벽사	1931.08.01	아단문고	o
		5권 8호	경성 : 개벽사	1931.09.01	개인 소장	o
		5권 9호	경성 : 개벽사	1931.10.01	개인 소장	o
		5권 10호	경성 : 개벽사	1931.11.01	아단문고	o
		5권 11호	경성 : 개벽사	1931.12.01	개인 소장	o
		6권 1호	경성 : 개벽사	1932.01.01	연세대학교	o
		6권 2호	경성 : 개벽사	1932.02.01	아단문고	o
		6권 3호	경성 : 개벽사	1932.03.01	아단문고	o
		6권 4호	경성 : 개벽사	1932.04.01	아단문고	o
		6권 5호	경성 : 개벽사	1932.05.01	국립중앙도서관	o
		6권 6호	경성 : 개벽사	1932.06.01	연세대학교	o
		6권 7호	경성 : 개벽사	1932.07.01	연세대학교	o
		6권 8호	경성 : 개벽사	1932.08.01	연세대학교	o
		6권 9호	경성 : 개벽사	1932.09.01	연세대학교	o
		6권 10호	경성 : 개벽사	1932.10.01	연세대학교	o
		6권 11호	경성 : 개벽사	1932.11.01	연세대학교	o
		6권 12호	경성 : 개벽사	1932.12.01	연세대학교	o
		7권 1호	경성 : 개벽사	1933.01.01	개인 소장	o
		7권 2호	경성 : 개벽사	1933.02.01	개인 소장	o
		7권 3호	경성 : 개벽사	1933.03.01	아단문고	o
		7권 4호	경성 : 개벽사	1933.04.01	아단문고	o
		7권 5호	경성 : 개벽사	1933.05.01	개인 소장	o
		7권 6호	경성 : 개벽사	1933.06.01	아단문고	o
		7권 7호	경성 : 개벽사	1933.07.01	아단문고	o
		7권 8호	경성 : 개벽사	1933.08.01	아단문고	o
		7권 9호	경성 : 개벽사	1933.09.01	아단문고	o
		7권 10호	경성 : 개벽사	1933.10.01	아단문고	o
		7권 11호	경성 : 개벽사	1933.11.01	개인 소장	o
		7권 12호	경성 : 개벽사	1933.12.01	개인 소장	o
		8권 1호	경성 : 개벽사	1934.01.01	개인 소장	o
		8권 2호	경성 : 개벽사	1934.03.01	아단문고	o
		8권 3호	경성 : 개벽사	1934.04.04	아단문고	o
		9권 1호	경성 : 개벽사	1934.05.04	미확인	o
		종간호	경성 : 개벽사	1934.06.01	아단문고	o
34	金星	창간호	경성 : 금성사	1923.11.10	아단문고	o
		2호	경성 : 금성사	1924.01.25	아단문고	o
		종간호	경성 : 금성사	1924.05.24	아단문고	o
35	靈臺	창간호	경성 : 영대사	1924.08.05	연세대학교	o
		2호	경성 : 영대사	1924.09.07	아단문고	x
		3호	경성 : 영대사	1924.10.20	아단문고	x
		4호	경성 : 영대사	1924.12.05	아단문고	x
		종간호	경성 : 영대사	1925.01.00	미확인	x
36	朝鮮文壇	창간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4.10.17	아단문고	o
		2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4.11.01	아단문고	o
		3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4.11.26	아단문고	o
		4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01.01	아단문고	o
		5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02.01	아단문고	o
		6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03.01	아단문고	o
		7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04.01	서강대학교	o
		8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05.01	아단문고	o
		9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06.01	아단문고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0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07.01	아단문고	o
		11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08.20	아단문고	o
		12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10.01	아단문고	o
		13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5.11.10	국회도서관	o
		14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6.03.05	아단문고	o
		15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6.04.01	아단문고	o
		16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6.05.01	아단문고	o
		17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6.06.01	아단문고	o
		18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7.01.01	아단문고	o
		19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7.02.01	국회도서관	o
		20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27.03.01	아단문고	o
		21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35.02.01	아단문고	o
		22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35.04.11	아단문고	o
		23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35.05.26	아단문고	o
		24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35.07.19	아단문고	o
		25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35.12.25	아단문고	o
		종간호	경성 : 조선문단사	1935.12.27	서울대학교	o
37	新民	창간호	경성 : 신민사	1925.05.10	연세대학교	o
		2호	경성 : 신민사	1925.06.10	아단문고	o
		3호	경성 : 신민사	1925.07.25	고려대학교	o
		4호	경성 : 신민사	1925.08.10	연세대학교	x
		5호	경성 : 신민사	1925.09.10	고려대학교	o
		6호	경성 : 신민사	1925.10.10	고려대학교	o
		7호	경성 : 신민사	1925.11.10	아단문고	o
		8호	경성 : 신민사	1925.12.10	아단문고	o
		9호	경성 : 신민사	1926.01.01	아단문고	x
		10호~11호	—	—	미확인	x
		12호	경성 : 신민사	1926.04.01	아단문고	x
		13호	경성 : 신민사	1926.05.01	아단문고	x
		14호	경성 : 신민사	1926.06.01	아단문고	x
		15호	경성 : 신민사	1926.07.01	아단문고	o
		16호	경성 : 신민사	1926.08.01	아단문고	o
		17호	경성 : 신민사	1926.09.01	아단문고	o
		18호	경성 : 신민사	1926.10.01	서울대학교	o
		19호	경성 : 신민사	1926.11.01	서울대학교	x
		20호	경성 : 신민사	1926.12.01	아단문고	x
		21호	경성 : 신민사	1927.01.01	아단문고	x
		22호	경성 : 신민사	1927.02.01	아단문고	o
		23호	경성 : 신민사	1927.03.01	아단문고	o
		24호	경성 : 신민사	1927.04.01	아단문고	o
		25호	경성 : 신민사	1927.05.01	아단문고	o
		26호	경성 : 신민사	1927.06.01	아단문고	o
		27호	경성 : 신민사	1927.07.01	아단문고	x
		28호	경성 : 신민사	1927.08.01	아단문고	o
		29호	경성 : 신민사	1927.09.01	아단문고	o
		30호	경성 : 신민사	1927.10.01	아단문고	o
		31호	경성 : 신민사	1927.11.01	아단문고	x
		32호	경성 : 신민사	1927.12.01	서울대학교	x
		33호	경성 : 신민사	1928.01.01	고려대학교	o
		34호	경성 : 신민사	1928.02.01	고려대학교	o
		35호	경성 : 신민사	1928.03.01	아단문고	x
		36호	경성 : 신민사	1928.04.01	아단문고	x
		37호	경성 : 신민사	1928.05.01	국회도서관	x
		38호	경성 : 신민사	1928.06.01	아단문고	x
		39호	—	—	미확인	x
		40호	경성 : 신민사	1928.08.01	아단문고	x
		41호	경성 : 신민사	1928.09.01	아단문고	x
		42호	경성 : 신민사	1928.10.01	아단문고	o
		43호	경성 : 신민사	1928.11.01	아단문고	o
		44호	—	—	미확인	x
		45호	경성 : 신민사	1929.01.01	서울대학교	o
		46호	—	—	미확인	x
		47호	경성 : 신민사	1929.03.01	국회도서관	o
		48호	—	—	미확인	x
		49호	경성 : 신민사	1929.05.01	아단문고	o
		50호	경성 : 신민사	1929.06.01	고려대학교	o
		51호	경성 : 신민사	1929.07.01	연세대학교	x
		52호	경성 : 신민사	1929.08.01	서울대학교	x
		53호	경성 : 신민사	1929.11.01	고려대학교	o
		54호	—	—	미확인	x
		55호	경성 : 신민사	1930.01.01	서울대학교	x
		56호	경성 : 신민사	1930.02.01	고려대학교	o
		57호	—	—	미확인	x
		58호	경성 : 신민사	1930.05.01	고려대학교	o
		59호	경성 : 신민사	1930.07.01	국립중앙도서관	o
		60호	경성 : 신민사	1930.08.01	국립중앙도서관	o
		61호	경성 : 신민사	1930.09.01	국립중앙도서관	x
		62호	경성 : 신민사	1930.11.01	국립중앙도서관	x
		63호	경성 : 신민사	1930.12.01	국립중앙도서관	x
		64호	경성 : 신민사	1931.01.01	국립중앙도서관	o
		65호	경성 : 신민사	1931.03.01	국립중앙도서관	o
		66호	경성 : 신민사	1931.04.01	국립중앙도서관	x
		67호	경성 : 신민사	1931.06.01	국립중앙도서관	o
		68호	경성 : 신민사	1931.07.01	국립중앙도서관	x
		69호	경성 : 신민사	1931.09.01	국립중앙도서관	x
		70호	경성 : 신민사	1932.01.01	아단문고	x
		71호~72호	—	—	미확인	x
		73호	경성 : 신민사	1932.06.01	아단문고	x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74호~79호	—	—	미확인	x
		종간호	경성 : 신민사	1933.04.01	연세대학교	x
38	朝鮮農民	창간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5.12.13	국립중앙도서관	o
		2권 1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01.10	국회도서관	o
		2권 2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02.12	국회도서관	o
		2권 3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03.12	국회도서관	o
		2권 4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04.12	아단문고	o
		2권 5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05.12	국회도서관	o
		2권 6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06.12	국회도서관	o
		2권 7호~2권 8호	—	—	미확인	x
		2권 9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09.12	아단문고	o
		2권 10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10.12	아단문고	o
		2권 11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11.12	아단문고	o
		2권 12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6.12.27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1호~3권 5호	—	—	미확인	x
		3권 6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7.06.01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7호	—	—	미확인	x
		3권 8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7.08.01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9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7.09.01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10호	—	—	미확인	x
		3권 11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7.11.10	국립중앙도서관	o
		3권 12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7.12.01	국립중앙도서관	o
		4권 1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8.01.01	국립중앙도서관	o
		4권 2호	—	—	미확인	x
		4권 3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8.03.10	국립중앙도서관	o
		4권 4호	—	—	미확인	x
		4권 5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8.06.01	독립기념관	x
		4권 6/7/8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8.11.26	국립중앙도서관	o
		4권 9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8.12.28	국립중앙도서관	o
		5권 1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9.01.28	국회도서관	o
		5권 2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9.03.26	국회도서관	o
		5권 3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9.04.26	국회도서관	o
		5권 4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9.06.26	국회도서관	o
		5권 5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9.08.26	국회도서관	o
		5권 6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9.10.26	국회도서관	o
		5권 7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29.12.01	국회도서관	o
		6권 1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30.01.01	국회도서관	o
		6권 2호	—	—	미확인	x
		6권 3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30.05.01	미확인	o
		종간호	경성 : 조선농민사	1930.06.01	미확인	o
39	文藝運動	창간호	경성 : 백열사	1926.02.01	연세대학교	x
		2호	—	—	미확인	x
		종간호	경성 : 백열사	1926.06.00	미확인	x
40	東光	창간호	경성 : 동광사	1926.05.20	연세대학교	o
		2호	경성 : 동광사	1926.06.11	아단문고	o
		3호	—	—	미간행	x
		4호	경성 : 동광사	1926.08.01	아단문고	o
		5호	경성 : 동광사	1926.09.01	아단문고	o
		6호	경성 : 동광사	1926.10.01	아단문고	o
		7호	경성 : 동광사	1926.11.01	미확인	o
		8호	경성 : 동광사	1926.12.01	아단문고	o
		9호	경성 : 동광사	1927.01.01	아단문고	o
		10호	경성 : 동광사	1927.02.01	아단문고	o
		11호	경성 : 동광사	1927.03.05	아단문고	o
		12호	경성 : 동광사	1927.04.01	아단문고	o
		13호	경성 : 동광사	1927.05.10	아단문고	o
		14호	경성 : 동광사	1927.06.01	아단문고	o
		15호	경성 : 동광사	1927.07.05	아단문고	o
		16호	경성 : 동광사	1927.08.05	아단문고	o
		17호	경성 : 동광사	1931.01.01	국립중앙도서관	o
		18호	경성 : 동광사	1931.02.01	국립중앙도서관	o
		19호	경성 : 동광사	1931.03.01	국립중앙도서관	o
		20호	경성 : 동광사	1931.04.01	국립중앙도서관	o
		21호	경성 : 동광사	1931.05.01	국립중앙도서관	o
		22호	경성 : 동광사	1931.06.01	국립중앙도서관	o
		23호	경성 : 동광사	1931.07.05	국립중앙도서관	o
		24호	경성 : 동광사	1931.08.04	국립중앙도서관	o
		25호	경성 : 동광사	1931.09.04	국립중앙도서관	o
		26호	경성 : 동광사	1931.10.04	국립중앙도서관	o
		27호	경성 : 동광사	1931.11.10	국립중앙도서관	o
		28호	경성 : 동광사	1931.12.01	국립중앙도서관	o
		29호	경성 : 동광사	1931.12.27	국립중앙도서관	o
		30호	경성 : 동광사	1932.01.25	국립중앙도서관	o
		31호	경성 : 동광사	1932.03.05	국립중앙도서관	o
		32호	경성 : 동광사	1932.04.01	국립중앙도서관	o
		33호	경성 : 동광사	1932.05.01	국립중앙도서관	o
		34호	경성 : 동광사	1932.06.02	국립중앙도서관	o
		35호	경성 : 동광사	1932.07.03	국립중앙도서관	o
		36호	경성 : 동광사	1932.08.01	국립중앙도서관	o
		37호	경성 : 동광사	1932.09.01	국립중앙도서관	o
		38호	경성 : 동광사	1932.10.01	국립중앙도서관	o
		39호	경성 : 동광사	1932.11.01	국립중앙도서관	o
		40호	경성 : 동광사	1933.01.23	아단문고	o
		41호	경성 : 동광사	1947.08.00	미확인	x
		종간호	경성 : 동광사	1947.09.01	연세대학교	x
41	別乾坤	창간호	경성 : 개벽사	1926.11.01	개인 소장	o
		2호	경성 : 개벽사	1926.12.01	아단문고	o
		3호	경성 : 개벽사	1927.01.01	국회도서관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4호	경성 : 개벽사	1927.02.01	미확인	o
		5호	경성 : 개벽사	1927.03.01	미확인	o
		6호	경성 : 개벽사	1927.04.01	아단문고	o
		7호	경성 : 개벽사	1927.07.01	아단문고	o
		8호	경성 : 개벽사	1927.08.17	아단문고	o
		9호	경성 : 개벽사	1927.10.01	서울대학교	o
		10호	경성 : 개벽사	1927.12.20	고려대학교	o
		11호	경성 : 개벽사	1928.02.01	서울대학교	o
		12/13호	경성 : 개벽사	1928.05.01	독립기념관	o
		14호	경성 : 개벽사	1928.07.01	아단문고	o
		15호	경성 : 개벽사	1928.08.01	아단문고	o
		16/17호	경성 : 개벽사	1928.12.01	아단문고	o
		18호	경성 : 개벽사	1929.01.01	아단문고	o
		19호	경성 : 개벽사	1929.02.01	아단문고	o
		20호	경성 : 개벽사	1929.04.01	국회도서관	o
		21호	경성 : 개벽사	1929.06.23	아단문고	o
		22호	경성 : 개벽사	1929.08.01	아단문고	o
		23호	경성 : 개벽사	1929.09.27	아단문고	o
		24호	경성 : 개벽사	1929.12.01	아단문고	o
		25호	경성 : 개벽사	1930.01.01	미확인	o
		26호	경성 : 개벽사	1930.02.01	고려대학교	o
		27호	경성 : 개벽사	1930.03.01	고려대학교	o
		28호	경성 : 개벽사	1930.05.01	아단문고	o
		29호	경성 : 개벽사	1930.06.01	아단문고	o
		30호	경성 : 개벽사	1930.07.01	아단문고	o
		31호	경성 : 개벽사	1930.08.00	미확인	o
		32호	경성 : 개벽사	1930.09.01	국회도서관	o
		33호	경성 : 개벽사	1930.10.01	국회도서관	o
		34호	경성 : 개벽사	1930.11.01	국회도서관	o
		35호	경성 : 개벽사	1930.12.01	고려대학교	o
		36호	경성 : 개벽사	1931.01.01	고려대학교	o
		37호	경성 : 개벽사	1931.02.01	고려대학교	o
		38호	경성 : 개벽사	1931.03.01	아단문고	o
		39호	경성 : 개벽사	1931.04.01	아단문고	o
		40호	경성 : 개벽사	1931.05.01	아단문고	o
		41호	경성 : 개벽사	1931.07.01	아단문고	o
		42호	경성 : 개벽사	1931.08.01	아단문고	o
		43호	경성 : 개벽사	1931.09.01	아단문고	o
		44호	경성 : 개벽사	1931.10.01	아단문고	o
		45호	경성 : 개벽사	1931.11.01	아단문고	o
		46호	경성 : 개벽사	1931.12.01	아단문고	o
		47호	경성 : 개벽사	1932.01.01	아단문고	o
		48호	경성 : 개벽사	1932.02.01	아단문고	o
		49호	경성 : 개벽사	1932.03.01	아단문고	o
		50호	경성 : 개벽사	1932.04.01	아단문고	o
		51호	경성 : 개벽사	1932.05.01	아단문고	o
		52호	경성 : 개벽사	1932.06.01	아단문고	o
		53호	경성 : 개벽사	1932.07.01	아단문고	o
		54호	경성 : 개벽사	1932.08.00	미확인	x
		55호	경성 : 개벽사	1932.09.01	아단문고	o
		56호	—	—	미확인	x
		57호	경성 : 개벽사	1932.11.01	고려대학교	o
		58호	경성 : 개벽사	1932.12.01	미확인	x
		59호	경성 : 개벽사	1932.12.30	아단문고	o
		60호	경성 : 개벽사	1933.02.01	아단문고	o
		61호	경성 : 개벽사	1933.03.01	고려대학교	o
		62호	경성 : 개벽사	1933.04.01	아단문고	o
		63호	경성 : 개벽사	1933.05.01	아단문고	o
		64호	경성 : 개벽사	1933.06.01	아단문고	o
		65호	경성 : 개벽사	1933.07.01	아단문고	o
		66호	경성 : 개벽사	1933.09.01	아단문고	o
		67호	경성 : 개벽사	1933.11.01	아단문고	o
		68호	경성 : 개벽사	1933.12.01	아단문고	x
		69호	경성 : 개벽사	1934.01.01	아단문고	o
		70호	경성 : 개벽사	1934.02.01	아단문고	o
		71호	경성 : 개벽사	1934.03.01	아단문고	o
		72호	경성 : 개벽사	1934.04.01	아단문고	o
		73호	경성 : 개벽사	1934.06.01	아단문고	o
		종간호	경성 : 개벽사	1934.08.01	고려대학교	x
42	海外文學	창간호	경성 : 해외문학사	1927.01.17	미확인	o
		종간호	동경 : 외국문학연구회	1927.07.04	서울대학교	o
43	現代評論	창간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01.20	아단문고	o
		2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03.01	아단문고	o
		3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04.01	아단문고	x
		4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05.01	아단문고	o
		5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06.01	아단문고	o
		6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07.01	아단문고	o
		7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08.01	아단문고	o
		8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09.01	아단문고	o
		9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7.10.01	아단문고	o
		10호	—	—	미확인	x
		종간호	경성 : 현대평론사	1928.01.01	연세대학교	o
44	藝術運動	창간/종간호	경성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1927.11.15	아단문고	x
45	朝鮮詩壇	창간호	경성 : 조선시단사	1928.11.07	개인 소장	o
		2/3호	경성 : 조선시단사	1928.12.06	아단문고	o
		4호	—	—	미확인	x
		5호	경성 : 조선시단사	1929.04.03	아단문고	o
		6호	경성 : 조선시단사	1930.01.12	아단문고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7호	—	—	미확인	x
		종간호	경성 : 조선시단사	1934.09.17	아단문고	o
46	文藝公論	창간호	경성 : 문예공론사	1929.05.03	연세대학교	o
		2호	경성 : 문예공론사	1929.06.10	아단문고	o
		종간호	경성 : 문예공론사	1929.07.01	세종대학교	o
47	朝鮮文藝	창간호	경성 : 조선문예사	1929.05.05	아단문고	x
		종간호	경성 : 조선문예사	1929.06.05	아단문고	x
48	槿友	창간/종간호	경성 : 근우회본부	1929.05.10	연세대학교	o
49	新小說	창간호	경성 : 건설사	1929.12.01	아단문고	x
		2권 1호	경성 : 건설사	1930.01.01	아단문고	x
		2권 2호	경성 : 건설사	1930.05.01	아단문고	x
		2권 3호	경성 : 건설사	1930.06.01	아단문고	x
		종간호	경성 : 건설사	1930.09.01	아단문고	x

※목록 중 발행일 미확인 자료는 00으로 표시하였으며 원본 소장처는 대표기관 한 곳만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원문 제공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대문학종합목록(http://literature.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지명 색인

ㄱ

개벽 27
근우 48
금성 34
기호흥학회월보 11

ㄷ

대동학회월보 7
대한자강회월보 2
대한학회월보 8
대한협회회보 9
대한흥학보 13
동광 40

ㅁ

문예공론 46
문예운동 39

ㅂ

반도시론 19
백조 30
별건곤 41
붉은저고리 15

ㅅ

삼광 25
새별 14
서광 26
서북학회월보 10
서우 5
소년 12
소년한반도 4
신민 37
신소설 49
신여성 33
신청년 23

ㅇ

아이들보이 16
야뢰 6
어린이 32
여자계 20
영대 35
예술운동 44
유심 21

ㅈ

장미촌 29
조선농민 38
조선문단 36
조선문예 47
조선시단 45
조선지광 31

ㅊ

창조 24
청춘 18
친목회회보 1

ㅌ

태극학보 3
태서문예신보 22

ㅍ

폐허 / 폐허이후 28

ㅎ

학지광 17
해외문학 42
현대평론 43

한국근대문학 해제집 Ⅱ 문학잡지(1896~1929)

해제 강진호(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찬기(한경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
이경수(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원동(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임상석(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HK교수)
정주아(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차혜영(한양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최현식(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감수 조남현(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발행일 2016년 12월 26일
발행인 임원선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TEL : 02-590-6236
FAX : 02-590-0584
http://www.nl.go.kr

편집·교정 김지혜, 예그림
편집디자인 (주)디자인그룹더블유
사진 AJ Studio 박두진

ⓒ 2016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ISBN : 979-11-5687-322-8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2016031008)

본 해제집에 실린 참고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